

제5장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분석(Ⅰ)

- 가족 및 개인의 생애주기 특성 분석 -

박시내 · 박준오 · 류광현

제1절 서론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을 규명하고,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개진되었다. 특히 한 개인이 출생하여 성장하여 교육받고, 첫 직장에 진입하여 결혼 및 출산, 은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과정에 관한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특히 개인은 전 생애동안 연령별 혹은 시기별로 다양한 욕구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생애과정에 관한 연구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면, 생애과정 접근법을 활용한 연구들은 서구 및 일본의 사회과학계에서 활발히 조망(眺望)받아온 주제이다. 1970년대 이래로 서구에서는 라이프코스 또는 라이프코스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널리 사용하였으며, 전통적으로 생(生)에 관한 연구는 연령 분화(age differentiation), 연령 계층화(age stratification), 사회이동 및 직업이동과 지위획득, 가족학, 인류학, 평생 발달 심리학(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Mayer & Schoepflin, 1989).

미국에서는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의 삶과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가 어떻게 긴밀하게 역사적 상황의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준 사회학자 엘더(Elder)의 연구를 필두로 하여, 사회학계에서는 울렌버그(Uhlenberg), 라일리(Riley) 등, 가족사학계에서는 헤레븐(Hereven), 비놉스키스(Vinovskis), 인류학계에서는 플래스(Plath), 컬처

(Kertzer) 등이 중심이 되어 가족과 인간 발달의 생애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보려는 학제적(學制的) 연구가 수행되었다(한경혜, 1993). 한편 국내의 생애주기 연구는 질적 접근법으로는 생애사(生涯史) 연구, 양적 접근법으로는 각종 종단자료를 이용한 생애과정 연구(sequence Analysis) 등이 수행되었으나, 관련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생애과정적 관점은 개인의 생을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관점으로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이 내재된 개념이다. 그러나 인구센서스 자료는 5년마다 조사되며, 패널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각 시점별 시계열 변화 양상을 분석하거나, 코호트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생애과정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구·사회학적인 접근은 많이 이뤄진 반면, 개인단위의 미시자료를 활용한 개인의 생애과정에 관한 연구는 다소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생애과정별 특성을 파악하고, 시계열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자료 활용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둘째, 해외 통계청에서는 인구관련 통계의 생산뿐만 아니라, 인구통계와 행정자료를 연계하거나, 조사통계 간 연계 자료를 생산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호주 통계청은 센서스자료를 활용한 생애과정 관련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우리도 이 같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센서스 자료를 통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큰 함의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생애주기별 인구 규모나 지리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복지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보육행태, 결혼 및 출산, 빈 등지기 등 생애과정별 특성에서 나타나는 시사점들은 관련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및 개인의 생애과정별 특성과 시계열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인구센서스 자료는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이며, 패널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단위의 생애과정 추적연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분석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과정의 주제 순으로 분석과정을 구성하고, 다음의 세 가지 수준의 분석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횡단면 자료(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및 개인의 생애과정별 주요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시계열 자료(1975~2010년)를 활용하여, 생애과정의 주요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한다. 셋째, 생애단계의 주된 결정요인을 선정하고, 모델링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생애주기, 생애과정 이론과 관련 해외사례를 검토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생애주기 개념 및 이론 발달과 전개 상황을 논의하고, 서구에서 진행된 생애과정 접근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를 개략적으로

1)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해외 통계청의 생애과정 연구 역시 이러한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생애주기 관련 해외사례로 해외 통계청(영국, 일본, 호주)의 통계 작성 및 분석사례를 소개한다. 해외 통계청은 인구센서스, 인구동태 자료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생애주기 관련 통계를 작성, 공표 및 분석하였다. 특히 호주 통계청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생애과정의 중요한 단계와 사건시기를 분석하였다. 2절의 3.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3절과 4절은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나타나는 가족 및 개인의 생애주기별 기초특성(횡단면, 정태)을 분석한다. 3절에서는 가족 생애주기별 특성을 형성기, 확대기, 수축기, 소멸기로 구분하고, 각 생애주기별 가구규모 및 세대구성,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주택 가격 및 규모 등을 살펴본다. 4절에서는 개인 생애주기별 특성을 성장기, 성숙기, 노쇠기, 해체기로 구분하고, 생애과정별(출생, 보육, 교육성취, 노동시장 진입과 근로생애, 결혼 및 출산, 빈 등지기)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논의한다.

5절에서는 생애과정의 시계열 특성변화를 분석한다. 앞서 분석된 생애과정의 주요 특성 중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며, 시의성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나타나는 출생 및 인구이동, 결혼 및 출산 등의 시계열 변화 양상의 주된 결과를 제시한다.

6절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한계와 의의를 서술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해외사례

1. 생애주기, 생애과정 이론의 발달과 전개

사회과학의 ‘생애주기(Life Cycle)’는 19세기의 사상의 발달과 연관되어 있다. ‘생물학’에서는 개체의 발달과 종의 역사적 진행과의 관계에 이용되었으며(Coleman, 1971; Mayer, 1882), 인류학에서는 원시사회의 난혼과 족장사회의 일부일처제(一夫一妻)하의 가족형태와 친족체계의 기원과 진화(Leibowitz, 1969)에, 초기 발달 심리학에서는 태아기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개체발생에 생애주기에 관한 개념이 발달하였다(Reinert, 1979; Baltes, 1979). 이러한 견해들은 자연선택에 관한 다윈니즘 체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직접적으로 사회과학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Kohn, 1980).

19세기 후반에 대두된 ‘생애주기 원칙 모델(The principle model of life cycle)’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발달하는 유기체에 발생하는 일련의 단선적 변화를 지칭한다(Coleman, 1971). 따라서 생애주기의 주된 성질은 연속적인 형태(단계 stage), 불가역적인 발달(성숙, maturation), 재생산(세대, generation)이다. 자연선택에 관한 다윈의 이론을 통해서 생애주기 개념은 종(species)의 기원과 멸종에 연관되어 있고,

개체의 발달과 종의 발달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에 관한 오랜 기간의 논쟁을 해결하게 되었다(Coleman, 1971; Mayr, 1982; Gould, 1977). 요약하자면 생애주기에 대한 사상은 적응, 생존, 그리고 멸종에 관한 종, 또는 인구의 수준과 유산의 발달에 대한 유기체 혹은 개체적 수준의 초기 사상을 포함하는 복잡한 개념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은 19세기 말엽에 등장하게 되었다. 다윈의 이론은 맬서스(Malthus), 페일리(Paley) 등의 사회이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Kohn, 1980). 이 이론들은 인구과정을 강조하고, 다윈으로 하여금 “인구적 사고(개체군적 사고, population thinking)”로 전환하도록 만들었다(Mayr, 1982). 그의 인구학적 사고는 종보다는 개체 간의 경쟁, 형태의 변이와 재생산이 생명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 이유로 단계, 성숙, 그리고 세대로 구성되는 생애주기 개념은 세대 사이의 연속적 사건에 관한 인구과정을 암시한다.

19세기 진화이론의 영향을 받은 생애주기 개념은 사회과학 영역에서 그 흔적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특히 에릭슨의 고전적인 8단계 모델은 진화이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예컨대 에릭슨은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개체발생(ontogenesis)은 피할 수 없으며, 이것은 본질적인 추구의 순서(Erikson, 1968: 292)”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8단계 모델은 생애주기 개념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릭슨의 고전적인 연구는 인구의 재생산이나 세대를 잘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한편 레빈슨(Levinson, 1978)은 “Seasons of a man's life”에서 개인의 연령에 따른 규범적인 발달과업(development task)을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재생산이나 세대까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경제학에서는 생애주기 개념이 보다 명료하게 정의된다. 가령 프리드만(Friedman, 1957)의 “소비함수(consumption function)”와 “항상소득(permanent income)”, 바이스(Weiss, 1986)의 “생애주기 소득(life-cycle earnings)”, 베커와 솔츠(Becker & Schultz)의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등 경제학의 신고전 이론에 생애주기 개념이 활용되었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자인 블라우그(Blaug, 1980)는 인적자본 연구 프로그램에 생애주기 개념을 암묵적으로 차용한다. 블라우그는 인적자본 프로그램의 핵심이 현재의 ‘취향(tastes)’과 ‘능력(abilities)’에 있으며, 현재의 개인의 선택은 직접적으로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내포된 생애주기 개념은 수명(life span)으로 개념화되었고, 이는 개인적 관점에서 본 현재의 연령규범에 부합한 행동으로부터 미래의 보상에 연결된 가치의 필연적인 궤적이다.

미시경제학(micro-economic)은 생애주기 기반을 수용하여 적용한다. 윈스턴(Winston, 1982, 1988)의 회사, 가정, 시장의 경제활동의 시간 특성(time-specific) 분석은 그 한 예이다. 그는 시간이 경제 분석에 의해 너무 임의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시간은 “단순한 단방향성의 선형흐름(simple unidirectional linear flow)이고, 경제 주체(economic actor)에



외인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Winston, 1982: 13). 시간은 연속하여 사건들을 분석적으로 나열하고, 불가역성(irreversibility)으로 인해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들을 경제 주체의 관점에서 형성하도록 한다. 여기서 시간과 변이의 형태를 정의하는데, 개인의 시간 관점 속의 사건의 시간과 더불어 생애주기의 생애과정 개념이 적용된다.

한편 다른 발달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개인, 가정, 조직에 대한 몇 단계의 분석에서 사회적 주체의 수명(life-span)에 관한 시간과 변이에 관련된 나이브 모델(naive model)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생애주기(Life-span) 발달 심리학(Baltes & Brim, 1979; Featherman, 1983), 사회학의 인간 발달 이론(Featherman & Lerner 1985, Featherman 1986), 지위 획득 모델(status attainment models, Featherman & Hauser, 1978), 연령계층에 관한 생애과정 모델(life-course models of age stratification, Riley, 1987, Riley et al., 1982)과 인생사건의 전이(Hogan, 1978; Marini, 1984), 가족 발달 이론(Hareven, 1978a, b; Grebenik et al., 1989), 조직의 인구생태 모델(Stinchcombe, 1965; Aldrich, 1979; Carroll, 1984)과 생애주기와 인구특성의 인구학적 모델(Coale, 1972; Preston, 1982) 등 사회과학의 여러 연구 분야에서 생애주기 관점은 적용, 발전되었다. 특히 사회학에서는 ‘개인의 노화(Individual Aging)’와 ‘가족 생애주기(Family Life Cycle)’, ‘조직의 성장과 쇠퇴 과정(Organizational growth and decline processes)’의 세 분야에서 생애주기 개념이 발달하였다.

첫 번째로 ‘개인의 노화(Individual Aging)’는 성장(growth), 성숙(maturation), 노쇠(senescence), 그리고 개인의 사망(death)에 관련된 오랜 전통에서 파생하였다(Tanner 1981; Reinert, 1979). 실제로 ‘노화(Aging)’과 ‘생애주기’는 종종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Kertzner & Keith, 1984). 지난 수십 년간 노화와 관련된 연구는 많은 문제를 겪어 왔으며, 개인의 노화를 결정짓는 개인 수준 요인의 변이(transition)와 시기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강조하는 비교 연구로 전환되는 추세이다(Elder, 1975). 생애과정의 형성 요인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개인행동과 사회변화를 종합하여 형성되는 패턴이 전달하는 역사적 상호작용의 개념과 개인의 노화과정의 구조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O'Rand, 1990). ‘노화(Aging)’에 관한 사회이론을 살펴보면, 생애단계 혹은 특정 연령층을 설명하는 개별적 수준에서 탈피하여 역사 변화의 맥락 속에서 생애주기와 사회구조와 관련된 인간발달의 진화론적, 또한 구조적인 이론으로의 전환이 이뤄졌다(Birren & Bengtson, 1988; Riley, 1987). 특히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코호트에 대한 관심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Ryder, 1965; Waring, 1975; Riley et al., 1982; Hareven, 1978; Easterlin, 1980; Uhlenberg, 1988).

개인의 노화 영역에서 생애주기와 관련된 가설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이스터린(Easterlin, 1980)의 ‘출생과 운명에 관한 가설(Hypothesis of birth and fortune)’로, 이 가설은 연속적인 코호트의 출생률이 그들의 인구 규모와 개인 발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기회

구조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두 번째 가설은 패더만의 이론으로 시간과 개인에게 발생하는 시간 의존적인 변화 혹은 인간 발달의 변이(variation)와 관련된 것이다. 패더만의 방법론은 행동 혹은 특성의 “시간 경로(time paths)”와 시간과 연관된 경로변화의 “통계적 공통성(statistical commonalities)”의 연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적 전략으로 구성된다²⁾.

두 번째로 ‘가족 생애주기(Family Life Cycle)’ 분야에서의 생애주기의 개념의 발전이다. 에디드 듀발(Murphy, 1987)의 단계모델은 가족의 형성(formation), 확장(extension), 수축(contraction), 소멸(dissolution) 과정과 20세기 중반 미국의 핵가족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핵가족에 대한 강조는 가족형태에 대한 제한적인 분석을 할뿐만 아니라, 단계모델 중 핵가족의 형성(결혼)과 확장(자녀 출산 및 양육)의 초기과정에 집중한다. 가족 생애주기 연구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구드(Goode), 톨리(Tilly), 아리에스(Aries), 데모스(Demos) 등의 가족사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식민지 시대의 가족의 생애사는 생애주기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결혼 시기, 자녀양육, 재혼의 다양한 패턴들은 생애주기 모델로 설명되기 힘들다. 그러나 가족생활 주기의 세대기준이나 단계별 특성 구분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카터와 맥골드릭(Carter & McGoldrick), 콜린스(Collins), 듀발(Duvall) 등은 결혼, 첫 자녀 출생, 막내자녀 출생, 첫 자녀 결혼, 막내 자녀 결혼, 배우자 사망, 본인 사망 등의 가족생활 사건을 중심으로 가족생활주기를 6~8단계로 제시하였다. 이 중 카터와 맥골드릭은 가족 생활주기를 결혼전기, 결혼적응기, 자녀아동기, 자녀 청소년기, 자녀 독립기, 노년기의 6단계로 구분하고, 가족 생활주기 6단계별 과업을 제시하였다. 가족생활 주기 단계 구분은 학자마다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에디드 듀발의 단계모델에서 제시한 가족의 형성(formation), 확장(extension), 수축(contraction), 소멸(dissolution)의 4단계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가족 생애주기 영역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요인으로 결혼과 출산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가?, 결혼 및 출산의 시기가 다음 생애과정의 전이(transition)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생애과정의 지속성은 가족 생애주기의 지속기간(duration)과 시퀀스(sequence)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러한 의문점들은 가족의 형성 및 과정이 개인의

2) 보다 구체적으로 시간과 연관된 변화는 기간 의존, 연령에 따른 전이, 사건 전이이다. 가령 던컨(Duncan)의 ‘생애주기 소득모형(Life-cycle earning model)’은 전통적인 생애주기별 소득가설에 도전하였다. 던컨은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인구학적 상태(연령 및 성) 및 생애사건과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가구의 수입은 개인의 라이프 스펙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역사적 연구(Hareven, 1978; Uhlenberg, 1988), 인구학적 모델(Preston, 1982; Oppenheimer, 1988), 또한 현대 생애의 전이에 관한 중단분석(Hogan, 1978; Marini, 1984; Henretta & O’ Rand, 1989)은 생애주기 단계가 개인의 수명과 역사적 시간에 따라 되돌려질 수 있고, 반복되며, 생물학적이며 연대기적인 연령과 결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의 노화에 관한 연구들은 생애주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내부 동질성과 관련하여 단계와 추정에서 벗어나 과정과 이질성으로의 전환을 이뤄왔다.



생애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자면 생애주기 연구는 가족연구 분야에서 많은 실증적인 문제들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생애과정 접근법을 이용한 연구들은 서구 및 일본의 사회과학계에서 활발히 조망(眺望)받아 온 연구주제이다. 1970년대 이래로 서구에서는 라이프코스 또는 라이프코스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Hagestad & Neugarten, 1985; 안병철, 1994). 전통적으로 생(生)에 관한 연구는 연령 분화(age differentiation), 연령 계층화(age stratification), 사회이동 및 직업이동과 지위획득, 가족학, 인류학, 평생 발달 심리학(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개진되었다(Mayer & Schoepflin, 1989). 미국에서는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의 삶과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가 어떻게 긴밀하게 역사적 상황의 영향을 받는가를 보여준 사회학자 엘더(Elder)의 연구³⁾를 필두로 하여, 사회학계에서는 울렌버그(Uhlenberg), 호간(Hogan), 허그스타드(Hagestad), 라일리(Riley) 등, 가족사학계에서는 헤레븐(Hereven), 비놉스키스(Vinovskis), 인류학계에서는 플래스(Plath), 켈처(Kertzer) 등이 중심이 되어 생애과정의 사회학, 생애과정의 문화현상학(文化現象學)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가족과 인간 발달의 생애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보려는 학제적(學制的) 연구가 수행되었다(한경혜, 1993).

한편 일본에서도 1982년 “라이프코스 연구회(The Family & Life Course Study Group)”가 결성된 이후, 사회학자와 역사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미국의 학자들과 협력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이 수행되었다. 특히 라이프코스과 관련된 주요 연구로 1981~1984년에 남성들의 생애과정과 전이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1983~1985년에는 미국과의 국제비교 연구가 수행되었다.

독자적인 연구영역으로서 미국에서의 라이프코스 연구는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40년 이전으로, 이 시기는 미국 사회학계에서 초기 시카고학파가 활동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미국에서 인구이동과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던 시기로, 도시로의 유입, 높은 비행율과 범죄율, 가족해체, 정신질환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던 시기이다. 시카고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는 토마스(W.I. Thomas)로, 그는 생애사(生涯史)에 관한 중단적 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여겼다. 그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여러 유형의 인간들을 연구해야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또한 생의 다양한 과거 시기에 관해 연구해야 하며, 여러 집단의 개인을 추적하여 이들의 경험을 계속 기록할 것”(Volkart, 1951; Elder & Caspi, 1988; 안병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토마스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과 빈곤과의 전쟁이 쟁점이 되던 시기에 미국의 실증주의 사조에 의해 크게 환영받지 못하였다.

미국의 라이프코스 연구의 두 번째 시기는 1960년대로 여러 가지 발전의 양상을

3) 대공황기의 아동들에 관한 연구(1974)가 있다.

보였다. 1960년대의 사회적 상황은 세대, 역사적 영향, 생애 간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였다. 한편 중단적 실증 자료의 축적 및 라이프코스 연구에 적합한 분석기법의 발달은 연구를 보다 활성화시키시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의 라이프코스 연구에 관한 주된 이론적 발전은 발달, 코호트, 노화를 연구하던 뉴거턴(B. Neugarten), 라이더(N. Ryder), 라일리(M. Riley) 등에 의해 이뤄졌다. 뉴거턴이 이끈 연구 프로그램은 1950년대 후반 및 1960년대 초반에 라이프코스에 관한 규범적 관점(normative perspective)을 발전시켰는데, 이 관점은 규범적 시간표라는 개념과 개인이 이러한 기대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여기서 라이프코스 시간표란 ‘사회적 연령’을 말하는데, ‘사회적 연령’이란 생애과정의 사건(event)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대한 기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기대 연령(age expectation)은 주요 생애과정의 전이(transition)에 대한 적합한 시점을 의미한다. 교육기관에 입학 및 진학, 결혼 및 출산, 노동시장 은퇴 등에는 대체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적합한 시점이 있다. 생애과정 사건들 간의 시점 및 순서(sequence)에 관한 연구는 라이프코스 연구 중 가장 활발한 영역 중 하나로 뉴거턴은 이 영역에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였다(Elder, 1991).

라이더(N. Ryder)는 미국의 대표적인 세대 연구자이다. 라이더는 자신의 논문 ‘사회변동 연구에서 개념으로서의 코호트’(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1965)에서 라이프코스 연구를 위한 개념으로서 코호트를 제안한다. 그는 ‘생의 단계의 원리’(life-stage principle)를 활용하여 사회변동과 코호트의 생애 유형(life pattern)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했다. 라이더에 의하면 역사적 사건이 코호트의 라이프코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코호트가 변화를 경험하는 생의 단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대량 실업과 군 입대가 갖는 의미는 개인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연령과 시간과의 결합에 관한 라이더의 연구는 생애시간과 역사적 시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하도록 한다(Elder and Caspi, 1988).

라일리(M. Riley)는 그의 저서 「노화와 사회」(「Aging and Society」, 1972)에서 ‘사회적 연령’과 ‘역사적 연령’이라는 두 개의 차원을 통합하고 있다. ‘연령’은 ‘코호트’를 통해 역사적 분화의 기초를 나타내고,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지위와 역할의 순서에 따라 ‘사회적 분화’의 기초가 형성된다. 따라서 연령 층화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무언의 질서를 부여한다. 사회화와 역할 할당은 노화(Aging)와 코호트 계승 과정에서 사람과 사회적 역할을 연결시킨다. 라일리는 릴리와 함께 1970년대 초반 연령에 관한 거시이론으로 ‘연령 계층화 이론’(Age Stratification Theory)을 주창하였다. 이 이론은 사회가 연령에 따라 구조화되고, 사회 구원성은 연령에 따라 성층화(Stratification)되어 있다는 것으로, 기존의 계층이론에서 간과하던 연령집단이 사회계층의 주요 원리임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라이프코스는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생(生), 인간발달, 노화



(Aging)를 연구하기 위한 일반적인 이론적 틀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발전은 생애주기의 실증적 연구가 가능한 종단자료의 구축과 시간(time), 과정(process), 맥락(context)을 나타내는 생애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출현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Elder, 1991).

미국에서 수행된 생애주기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콜과 티치맨(Call & Teachman, 1996)의 ‘결혼과 군복무의 생애과정 시기와 순서 및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군복무 이전의 결혼이 군복무 기간 중 혹은 이후의 결혼에 비해 결혼 안정성에 지장을 준다는 ‘생애과정 시퀀스(Sequencing) 가설’을 검증한다. 이 연구는 13년 간의 패널자료를 사건사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베트남전 참전 이전 혹은 군복무 중 결혼은 장기적인 결혼 안정성에 심각할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군복무 후 결혼은 결혼안정성을 높인 것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자를 베트남 참전용사와 비참전용사의 결혼 유형을 서로 비교하고, 결혼 순서(Sequencing)가 이혼확률을 높인다는 가설을 테스트한 것이다

마가릿 머니 마리니(Margaret Mooney Marini, 1984)는 ‘성인기로의 전이의 사건의 순서(The Order of Event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5년간의 추적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이의 사건순서와 이러한 순서를 결정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우편조사와 전화 인터뷰로 수집된 이 추적 자료는 응답자들의 교육, 직업, 결혼, 출산, 이민 경험에 관한 회고적 생애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출생코호트별로 생애과정 전이유형에 변화가 있었는데, 가령 후기 출생코호트일수록 더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출산을 하였으며, 생애과정과 전이과정의 성별 차이(교육성취 및 성인가족역할이 시작되는 시기)가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감소함을 발견하였다(U.S. Bureau of the Census, 1976, 1980; Heyns and Bird, 1982).

군힐트 하게쉬타트(Gunhild O. Hagestad)는 ‘인구학적 변화와 생애과정: 가족의 영역에서 등장하는 일부 동향’에서 인구학적 변동이 일부 중요한 가족 전이의 발생률, 시기 및 순서를 바꾸었다고 주장한다. 사망률과 출산률, 이혼 및 재혼율의 변화는 가족의 생애주기에 변화를 가져왔다. 울렌버그(Uhlenberg, 1980)은 한 세기 이전에는 절반 이상의 자녀가 15세 이전에 부모나 형제자매의 사망(Loss of Children and Parents)을 경험했으나, 오늘날 이 수치는 10% 내외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한다. 부모의 사망(Loss of Parents)은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사망률의 감소로 점점 더 성인기의 후반기에 직면하는 생애과정 사건이 되었다. 사망률의 극적인 감소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가 반세기 이상 가족생애를 공유하게 하게 되었고, 조부모됨(grand-parenthood)을 보편화시켰다. 이혼 및 재혼율의 변화는 가족 생애주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도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지만, 오늘날 결혼해체의 주요 원인은 ‘사망’에서 ‘이혼’으로 바뀌었다(Ross & Sawhill, 1975).

2. 생애주기 관련 해외사례

가. 영국: 스코틀랜드 종단조사(The Scottish Longitudinal Study)

영국은 인구센서스를 활용하여 생애주기 관련 자료의 종단자료를 구축하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구센서스를 활용한 종단자료의 구축 및 분석은 ONS 및 스코틀랜드 종단연구 센터(LSCS)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절에서 살펴볼 내용은 스코틀랜드 종단연구(Scottish Longitudinal Study: 이하 SLS)이다. 이 연구는 스코틀랜드 종단연구 센터(이하 LSCS)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이 기관은 경제·사회위원회(ESRC)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종단자료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기관이다. 스코틀랜드 종단연구는 센서스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 자료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사건 자료(출생, 사망, 결혼),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Central Register: NHSCR) 자료와 NHS(암 등록 및 퇴원) 자료의 연계를 통해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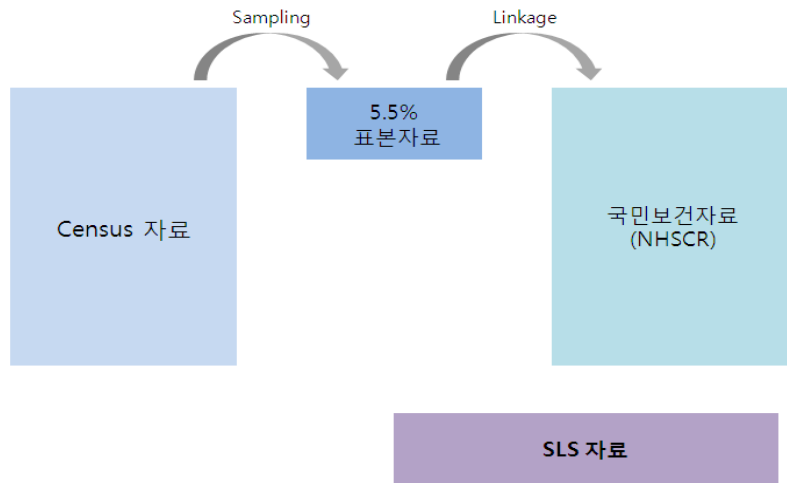
영국 통계청의 종단연구(LS)는 1971년에 영국과 웨일즈에서 시작되었으며, 30년간 축적된 영국과 웨일즈의 1%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는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로 명칭이 바뀐 OPCS(Office of Population Census and Survey)에서 시작되었고, 영국 통계청과 경제·사회위원회의 지원을 받았다. 이 종단조사는 출산, 가족 재구성, 직업,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인종별 건강 격차, 이주 패턴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였고, 자료를 통한 연구결과는 사회정책에 활용되었다. 영국과 웨일즈에 종단연구가 만들어지던 비슷한 시기에 스코틀랜드에서도 종단연구가 만들어졌으나, 약 1%(약 5만명)의 소규모 샘플로 스코틀랜드의 사회·인구 문제들을 대표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1981년 중단되고, 자료는 폐기되었다.

영국 통계청의 종단연구(LS)와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의 종단연구(SLS)는 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동태 관련 행정자료와의 연계자료로 구축되었다. 스코틀랜드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의료에 관한 종단자료의 부족으로 정책 입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사망률(mortality rates)은 높고, 출산율(fertility rates)은 낮은 한편 인구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고,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무엇보다 정책기반이 될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그림 5-1]은 SLS 자료 생성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1991년 인구센서스에서 5.5%(274,055명) 표본에서 중복자료가 제거된 최종 5.3%(270,385명)의 표본을 추출한 후⁴⁾ 국민건강보험의 자료(NHSCR)와 연계하여 SLS 자료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자료는 매년 NHSCR의 갱신을 통해 종단자료의 성격을 갖게 된다.

4) 한 해에 발생한 20개의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추출한 반-무작위적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그림 5-1] SLS 자료의 생성

SLS 자료 구축의 진행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 센서스 자료에서 5.5%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20개의 생년월일을 선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1991년 센서스에서 생년월일 정보가 정확한 대상자를 추출한다. 세 번째 단계는 SLS 표본자료의 센서스 조사표를 다시 참조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NHSCR 데이터 베이스에서 SLS 표본을 표시(flagging)한다. SLS 표본의 이름과 기본적인 인구학적 정보는 수작업을 거쳐 NHSCR로 넘겨지면 정보가 확인되고 표시된다. 그러나 SLS 대상자들 중 등록이 되어 있지만, 추적이 불가능한 사례가 약 10% 가량 존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군인들이거나, NHS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과정 중 3,670명의 대상자들이 중복으로 판명되어 표본에서 제외되었고, 최종적으로 1991년 센서스 인구의 5.3%인 270,385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섯 번째 단계는 NHSCR를 이용하여 SLS 대상자 정보를 중요한 사건 자료(출산, 사산 및 영아사망, 이민 및 재입국 등)에 연결하는 작업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을 찾기 위해 NHSCR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이름, 성, 생년월일, 성별로 이러한 정보를 통해 정확 매칭(exact linkage)을 통해 자료를 연계하고 미스매칭된 경우 일부 수동매칭(manual match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섯 번째 단계로 2001년 SLS 자료 연계에는 1991년 2단계의 매칭을 활용하였던 것에 반해, 정확매칭(exact matching) → 확률매칭(probability matching) → 수동매칭(manual matching)의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곱 번째 단계는 병원 입원 및 암과 관련된 자료(의료데이터)의 연결이다. 이 자료를 SLS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암호화된 SLS 번호, NHS 번호, CHI 번호, 성, 이름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확률적 매칭기법을 통해 의료정보를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영국 통계청(ONS)의 중단연구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흡사하나, 영국 통계청(ONS)의 중단연구에는 의료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SLS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데이터 셋의 내용은 다음의 <표 5-1>에 제시되어 있다. SLS 자료의 구성은 센서스에서 주택 특성 및 개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자료를

<표 5-1> SLS 데이터 주요 변수

센서스	주요 사건들(NHSCR)	의료기록 (입원 및 암 관련)
성, 연령, 혼인상태 가족 구성 및 형태 주택 특성 생년월일 인종 교육정도 경제적 위치(경제활동) 직업과 사회계급 이민 제한된 장기질병	출산 사산(stillbirth) 및 영아사망 결혼 및 이혼 사망 미망인 이민 및 재입국	입원환자 및 퇴원 관련 NHS 병원 정보 정신병동 입원 정보 암 관련 기록
2001년 추가항목		
주관적인 건강상태 종교 부양(care-giving)		

출처: 「The Scottish Longitudinal Study : An Introduction」, LSCS Working Paper 1.0 (2007. 4)

기반으로, NHSCR의 주요사건에 관한 정보와 NHS의 의료정보를 포함한다. 활용되는 센서스 데이터는 1991년과 2001년에 차이가 있는데, 2001년에는 부가적으로 주관적인 개인의 건강상태, 종교 및 부양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SLS의 유지(maintenance work)는 1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센서스 항목은 갱신되지 않으며, 주요사건 및 의료기록에 관한 정보가 수정, 변경된다. SLS는 개인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거대하고 복잡한 데이터 셋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LSCS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첫째, 데이터 셋 자체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뤄진다. SLS는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데, 이 자료에 대한 접근은 소수의 연구자만이 가능하다. 둘째, 데이터의 유지는 엄격하게 감독을 받는다. 데이터는 스코틀랜드 주민등록청(General Register Office for Scotland)에 보관되어 있으며, 비밀번호로 보호된 자료는 단독 네트워크에 저장되어 있다. SLS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적정성 여부의 승인절차가 따르며,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는데, 다른 2차 데이터와는 달리 원격접속(remote access)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SLS 자료는 센서스 자료와 행정자료의 연계 데이터이지만, 자료의 내용은 주로 인구동태에 관련된 것이다. 영국 센서스는 10년 주기로 조사되기 때문에 이 시간 중 동태사건의 변화를 포착하기 힘들다. 따라서 센서스의 5.5% 표본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데이터 셋을 만들고, 매년 행정자료가 갱신되면서 종단자료를 구축하게 된다. SLS는 학술 및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유용한 자료로, 개인의 인구동태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SLS 자료를 활용한 연구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991~2001년 기간 중 스코틀랜드의 10대 부모(2010)’, ‘여성의 사별이 사망 위험율에 미치는 영향(2009)’,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나쁜 건강상태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2008)’, ‘스코틀랜드의 이민과 종교: 종교가 이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센서스에 기반한 직종별 임금의 추정: 혼합추정모델적 접근’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대표적인 논문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1991~2001년 기간 중 스코틀랜드의 10대 부모(2010)’는 1991~2001년 기간 중 10대에 부모가 되는데 어떠한 요인의 영향력이 유의한가를 논의한다. 이 연구에는 2,282명의 미혼모와 811명의 미혼부가 추출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부모와 살지만 낮은 사회계층에 속하거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미혼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종교적으로 카톨릭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종교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경우보다 미혼부모가 될 확률이 높았다. ‘여성의 사별이 사망 위험율에 미치는 영향(200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LS 자료에서 58,685명의 기혼 남성과 58,415명의 기혼여성 데이터를 추출한 후, 배우자 사망원인을 ‘정보를 제공하는 사망’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망’, ‘예방할 수 있는 사망’과 ‘예방할 수 없는 사망’, ‘위험한 사망’과 ‘위험하지 않은 사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콕스모형을 통해 배우자의 서로 다른 사망 원인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사망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망의 위험은 10~40%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도 이와 유사하며, 특히 배우자의 사망 직후 미망인의 사망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배우자의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사망은 미망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연구결과를 통해 미망인의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 일본

생애주기와 관련된 일본의 통계 작성사례는 「인구동태 직·산업별 통계조사(2010년)」, 「21세기 출생아 종단조사」, 「출생전후 부모의 취업변화 통계조사」 등이 있다. 「21세기 출생아 종단조사」는 후생 노동성 주관으로 2001년부터 실시된 통계조사이며, 21세기 첫 해에 출생한 아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한 종단조사로, 저출산 대책 등

보건 행정 정책의 기획 및 입안, 실시 등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2001년 1월 10일~ 1월 17일과 같은 해 7월 10일 ~ 7월 17일 기간 중 출생아로 인구동태 조사의 출생표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가족관계 및 동거자, 학교생활 실태, 하루일과 실태 및 패턴, 부모의 가사 및 육아분담 상황, 육아 및 보육비용, 육아불안과 고민의 유무, 수유상태, 질병이나 부상, 신장 및 체중, 부모의 취업상태, 가구소득 상황 등이다. 조사방법은 후생 노동성이 인구동태조사 출생표를 토대로 표본을 추출하고, 대상가구에 조사표를 배포한 후 우편으로 회수하였다⁵⁾.

「인구동태 직·산업별 통계」는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의 인구동태 사건과 직업 및 산업과의 관련성을 밝혀 인구 및 보건행정 시책의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사는 1932년 ‘인구동태조사’의 출범 이후 1967년까지 매년 실시되었으며, 1968년 이후 인구조사에 직업과 산업을 조사하였으며, 1970년부터 ‘인구동태 직·산업별 통계’로 개칭하였다. 후생 노동성은 1970년부터 5년마다 보고서를 간행하고 인구의 직업·산업 비중 및 출생, 사망, 결혼, 이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망에 관해서는 직업·산업별 사망 통계를 간행하고 있다. 이 통계는 전수조사로 조사사항은 호적법상 아이 출생 시 부모의 직업 및 산업, 사망 시 부모의 직업 및 산업, 동거 시작 전 부부의 직업 및 산업, 이혼 시 부부의 직업 및 산업 등이다. 조사 시기는 인구센서스가 실시되는 년도의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다. 조사 방법은 인구동태조사의 일부로 실시하고, 인구동태 각 조사표 작성 시 각 신고서에 기재된 직업 또는 산업에 해당하는 분류번호를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출생전후 취업변화 통계」는 2000년 「인구동태 직·산업별 통계」와 「21세기 출생아 종단조사(2001, 2002년)」 자료를 연계하여 개인별로 추적하고, 자녀의 출생시점 전후의 모의 취업상황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두 자료를 연계하면 동일 대상의 자녀의 태아기→출생 시→출생 후 모의 취업상황에 대한 추적 및 포착이 가능하고, 출생 시 부모의 직업 및 출생 후 육아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 통계에서는 자녀 출산 전후의 어머니의 취업변화 패턴을 ‘Ⅰ. 취업계속형’, ‘Ⅱ. 임시이직형’, ‘Ⅲ. 출산 전 이직형’, ‘Ⅳ. 출산 후 이직형’(Ⅰ,Ⅱ,Ⅲ,Ⅳ 출생 1년 전: 유직), ‘Ⅴ. 무직계속형’, ‘Ⅵ. 취업개시형’(Ⅴ,Ⅵ 출생 1년 전 무직)으로 구분⁶⁾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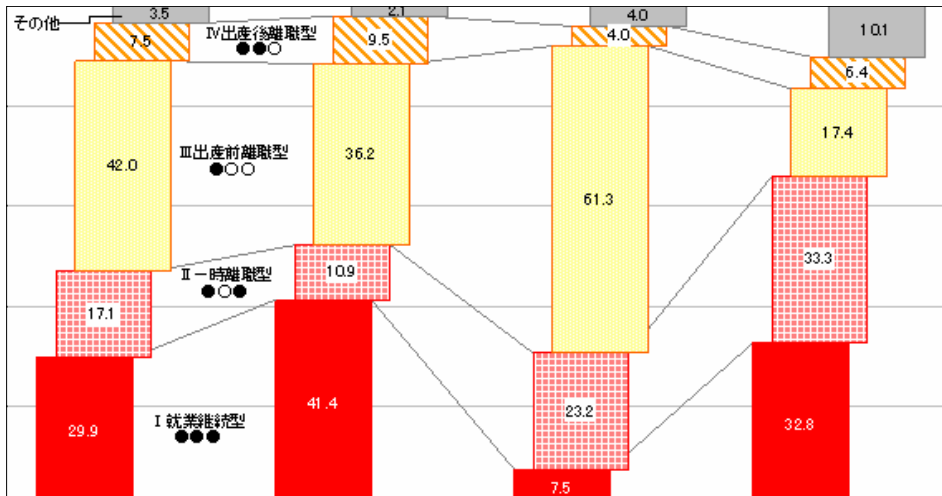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Ⅰ. 취업계속형’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이 높고, 평일 주간에 보육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Ⅱ. 임시이직형’은 어머니의 연령이 낮고, 자녀 출생 1년 전 임시직의 비중이 높다. ‘Ⅲ. 출산 전 이직형’은 출생 1년 전 풀타임과

5) 조사표의 회수율은 1월 출생아는 88.0%, 7월 출생아는 87.5%, 총 87.7%로 나타난다.

6) ‘Ⅰ. 취업계속형’은 자녀의 출생전후 일관되게 유직(有職)인 유형, ‘Ⅱ. 임시이직형’은 자녀 임신 중 유직→자녀출생 후 일시적으로 이직→1년 반 이후 유직인 유형, ‘Ⅲ. 출산 전 이직형’은 자녀 임신 중 유직→출생 시 무직→출생 후 무직인 유형, ‘Ⅳ. 출산 후 이직형’은 자녀출생 시 유직→출생 후 무직인 유형, ‘Ⅴ. 무직계속형’은 출생 전후 일관되게 무직인 유형, ‘Ⅵ. 취업개시형’은 자녀 임신 중 무직→1년반 후 유직인 유형을 말한다.



파트-타임직 비중이 동일하고, 결혼기간이 짧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유형에서 둘째아의 출산이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IV. 출산 후 이직형’은 자녀 출산 1년 전의 모의 취업 비중은 I.유형 수준으로 높지만,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적다. ‘V. 무직 계속형’은 모의 연령과 부의 소득수준이 높으며, 결혼기간이 길고, 두 자녀 이상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VI. 취업개시형’은 모의 평균연령이 다른 유형 중 가장 낮고, 파트직의 비중은 가장 높다. 어머니의 취업패턴 유형 중 자녀 출산 1년 반 이후 취업상태인 유형 I, II, VI의 특성은 조부모와의 동거 비중이 높고,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으며, 아버지가 가사육아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다. 자녀 출산 1년 반 이후 미취업상태인 유형 III, IV, V은 핵가족의 비중이 높으며, 보육을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였다는 특성을 보였다.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출생전후 취업변화 통계」

[그림 5-2] 자녀출산 1년전 취업 모의 취업형태별 취업패턴변화

다. 호주

호주 통계청(ABS)은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생애과정을 통한 중요한 단계와 사건의 시기를 분석하였다⁷⁾. 호주 통계청은 「호주 원주민의 생애과정에서 나타난 인구학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결과」에서 ABS 2006 5% 센서스 표본 파일(Census Sample File: CSF)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22,437명의 호주 원주민과 913,262명의 비원주민이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생애과정의 7개의 주제⁸⁾를 선정하고, 영역별 기초 통계와

7)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Outcomes Across the Indigenous Australian Life-course」 ABS, 2010

8) 7개의 주요 영역은 ‘출산 및 가족형상’, ‘이민과 인구이동’, ‘교육 참여’, ‘노동시장 참여’, ‘고용’, ‘주거’, ‘건강’, ‘아동’임

모델링을 통해 생애과정의 주요 특성을 제시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출산 및 가족형성’은 결혼지위(결혼 혹은 사실혼), 출산력 및 총 출생아 수, 보육, 생애과정에서의 출산력과 가족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이민과 인구이동’은 영구이민과 거주지 이동, 일시적 이동 등의 내용을 다룬다. 호주 원주민들은 대단히 이동성이 강하다는 견해가 널리 퍼져있는데, 이 장에서는 거주와 일시적 이동과 연관된 요인을 살펴본다. 평균적으로 호주 원주민들이 센서스 이전에 현거주지를 바꾸거나, 혹은 센서스 시행 시 현거주지를 떠나기 때문에, 거주와 일시적인 이동에 관계된 생애과정에 실질적인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교육 참여’는 대학진학률, 비정규 교육 참여율 등의 내용을 다룬다. 센서스 자료에서는 개인의 읽기, 쓰기, 문해력 등의 능력을 측정하지는 않으며, 조사 당시 재학여부를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원주민 학생들과 비원주민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 경로 및 성인기를 거치는 동안의 교육 참여와 관련된 요인을 논의한다. ‘노동시장 참여’는 고용률, 전문·관리직 고용상황, 자원봉사와 무급가사노동 등의 내용을 다룬다. 이 장에서 연구자들은 고용, 전일제 고용에 비교하여 시간제 고용, 그리고 직업 상태와 연관된 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호주 원주민과 비원주민을 분리하여 생애과정에서 자원봉사와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참여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주거’에서는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거의 두 가지 측면, 즉 거주 형태(주택소유,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와 주거 밀도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건강’은 비원주민과 비교하여 원주민의 생애과정별 생존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한편 센서스에서 ‘핵심 활동(core activity)’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한다. 분석의 마지막 영역은 ‘아동’이다. 이 장에서는 성인기 이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어린 시절의 경험의 세 가지 잠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 세 가지 측면은 한 부모 가정에서의 생활, 저학력 가정에서의 생활, 실직 상태인 가정에서의 생활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호주 원주민의 생애과정에 대한 의제를 요약한다.

3. 분석틀 및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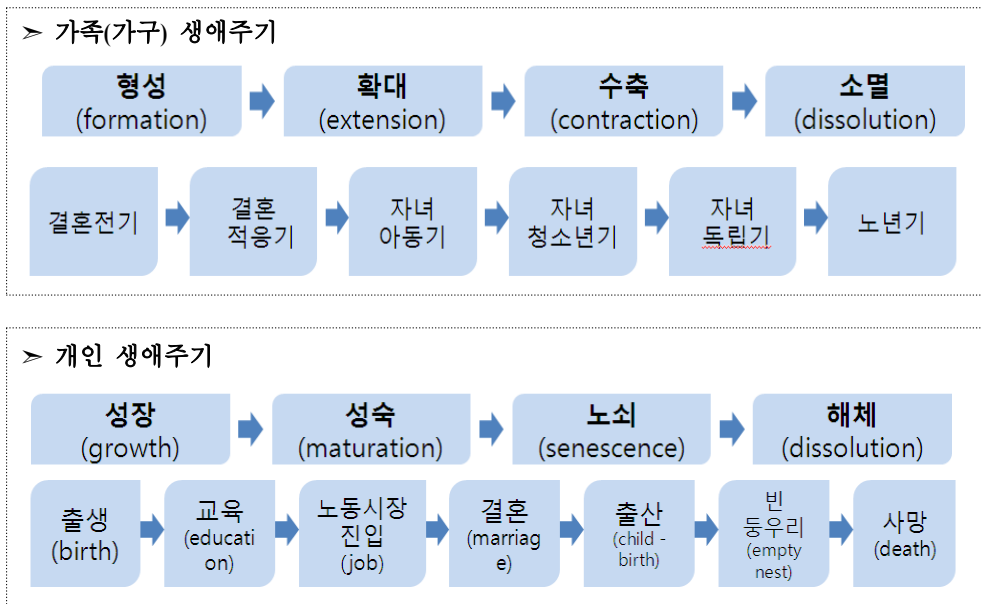
본 연구는 가족 및 개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제시하고, 생애과정의 전이유형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앞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검토된 바에 따르면, 가족과 개인은 유기적인 존재로, 생성에서 소멸까지 연속적인 생애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회과학에서 ‘생애주기(Life Cycle)’는 19세기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자연선택에 관한 ‘다윈니즘’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대두된 ‘생애주기 원칙 모델(The principle model of life cycle)’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기에서 다음 단계로 발달하는 유기체(有機體)의 단선적인 변화를 지칭한다.

앞서 논의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모델이 되는 가족 및 개인의 생애 과정은 [그림 5-3]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생애주기는 가족과 개인의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가족 역시 생성과 발전, 소멸을 하는 유기체적인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에디드 듀발(Duvall, 1987)은 가족 생애주기 단계 모델을 가족의 형성, 확장, 수축, 소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가족의 형성(formation)’이란 결혼을 통한 가족이 형성을 의미하며, 이 시기는 ‘결혼 전기’와 ‘결혼 적응기’로 구분될 수 있다. ‘가족의 확장(extension)’이란 출산·입양을 통해 가족이 확대되는 시기를 의미하며, 완결출산(完決出產)까지 이르는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자녀 아동기’와 ‘자녀 청소년기’로 구분된다. ‘가족의 수축(contraction)’은 자녀의 출가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가족규모가 축소되는 시기로 첫 자녀부터 막내 자녀의 결혼 및 배우자 사망이 발생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 시기는 ‘자녀 독립기’와 ‘노년기’로 구성된다. 이 시기에는 특히 자녀의 출가로 인한 빈 둥지(empty nest) 증후군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가족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는 ‘가족의 소멸(dissolution)’로, 결혼으로 생성된 가족이 노부부의 사망으로 최종적인 가족의 해체를 맞게 됨을 의미하며, 이 시기를 주로 ‘노년기’라고 한다).



[그림 5-3] 가족 및 개인의 생애과정

9) 그러나 가족의 소멸의 원인이 부부의 사망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혼 및 재혼율의 변화는 가족 생애주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도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지만, 오늘날 결혼해체(가족의 소멸)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사망’뿐만 아니라, ‘이혼’의 영향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oss & Sawhill, 1975).

한편 개인의 생애주기는 ‘성장(growth)’, ‘성숙(maturation)’, ‘노쇠(senescence)’, ‘해체(dissolution)’로 설명될 수 있다. 생애주기는 개인의 ‘노화(Aging)’와 보통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한 개인은 출생하고, 교육을 받은 후, 결혼하고 출산 및 자녀 양육의 과정을 겪으며, 자녀가 성장하여 빈 등지에 머물며, 이혼이라는 사건을 겪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이라는 유기체의 소멸을 겪는다.

생애주기 영역의 기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관심 갖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요인이 결혼과 출산의 시기를 예측하는가? 결혼 및 출산의 시기가 다음 생애과정의 전이(transition)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생애과정의 지속성은 가족 생애주기의 지속기간(duration)과 시퀀스(sequence)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즉 가족의 형성과 확대, 수축, 소멸의 양상은 어떠하며, 시계열로 어떻게 변모하여 왔는가? 한편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교육, 노동시장 진입, 결혼 및 출산, 빈 등지 등 개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은 어떠하며, 개인 생애주기의 전이유형은 시계열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이러한 의문점들은 가족의 형성 및 과정이 개인의 생애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자면, 생애주기 연구는 가족연구 분야에서 많은 실증적인 문제들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인구센서스의 횡단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가구) 및 개인의 생애주기별 기본 특성을 살펴보고, 생애과정의 전이유형(transition pattern)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 I. 가족 및 개인의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을 제시한다.

- I-1. 가족의 형성, 확대, 수축, 소멸기별 주택·가구 특성은 어떠한가?
- I-2. 개인의 성장, 성숙, 노쇠, 해체기별 인구·사회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과제 II. 개인의 생애과정 전이유형의 변화양상을 시계열 자료를 통해 파악한다.

- II-1. 시점별 개인의 생애과정(교육, 노동시장 진입, 결혼, 출산)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3절 가족의 생애주기별 특성

1. 가구규모 및 세대구성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른 생애주기가 있는 것처럼 가족 역시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따르는 유기체(有機體)적 속성을 갖는다. 가족도 결혼을 통해 생성되고, 자녀의 출산, 자녀의 출가, 배우자의 죽음, 이혼 등 일련의 생애사건들을 단계적으로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해체되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생애주기’와 ‘가족 생애주기(Family Life Cycle)’는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에디드 듀발(Duvall, 1987)은 가족의 생애과정을 크게 다음의 네 단계, ‘가족의 형성(formation)’, ‘가족의 확장(extension)’, ‘가족의 수축(contraction)’, ‘가족의 소멸(dissolution)’로 구분하였다.

‘가족의 형성(formation)’이란 결혼을 통해 가족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시기는 ‘결혼 전기’와 ‘결혼 적응기’로 구분될 수 있다. ‘가족의 확장(extension)’이란 출산·입양을 통해 가족이 확대되는 시기를 의미하며, 완결출산(完決出產)까지 이르는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자녀 아동기’와 ‘자녀 청소년기’로 구분된다. ‘가족의 수축(contraction)’은 자녀의 출가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가족규모가 축소되는 시기로 첫 자녀부터 막내자녀의 결혼 및 배우자 사망이 발생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 시기는 ‘자녀 독립기’와 ‘노년기’로 구성된다. 이 시기에는 특히 자녀의 출가로 인한 빈 둥지(empty nest) 증후군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가족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는 ‘가족의 소멸(dissolution)’로,

〈표 5-2〉 가족(가구)의 생애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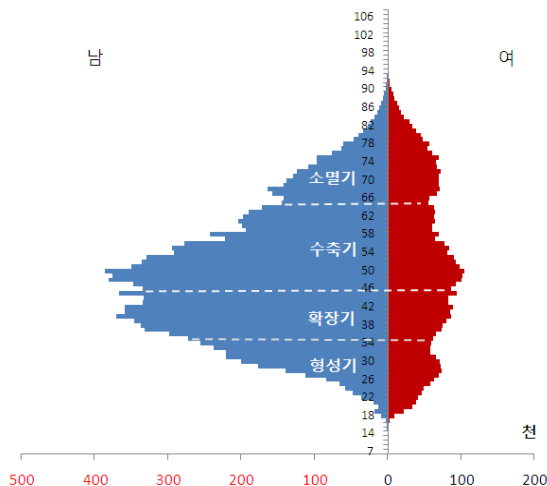
	형성(Formation)	확장(Extension)	수축(Contraction)	소멸(Dissolution)
주요 생애주기 사건	결혼	첫 자녀 출산 막내 자녀 출산	첫 자녀 결혼 막내 결혼 배우자 사망	본인 사망
시기	결혼전기 결혼적응기	자녀아동기 자녀청소년기	자녀 독립기 노년기	노년기
연령 구분	25~34세	35~44세	45~64세	65세 이상

출처: 에디드 듀발(Duvall, 1987)의 가족의 생애과정

이는 결혼으로 생성된 가족이 노부부의 사망으로 인한 최종적인 가족의 해체를 의미하며, 이 시기를 주로 ‘노년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가족의 소멸의 원인이 부부의 사망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했듯이 이혼 및 재혼율의 변화는 가족 생애주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도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지만, 오늘날 결혼해체(가족의 소멸)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망’뿐만 아니라, ‘이혼’의 영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 가족은 가구구성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그 다양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림 5-4]는 가족 생애주기 피라미드로, 가구주 연령별 가구수를 성별로 제시한 것이다. 가족 생애주기별 가구규모를 살펴보면, 형성기(34세 이하)는 16.2%, 확장기(35~44세)는 23.8%, 수축기(45~64세)는 42.2%, 소멸기(65세 이상)는 17.8%를 차지한다. 남성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좌측 피라미드가 훨씬 두텁다.

한국 가족과 가구의 주요 변화는 가구 규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이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85년 4.1명에서 2010년 2.8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가구 규모의 축소는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비율이 줄고 2세대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 그리고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현상과 관련된다. 3세대 이상 가구는 1985년 14.9%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2010년에는 6.1%로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1인가구의 비율은 1985년 6.9%에서 2010년 23.8%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젊은 연령층에서는 미혼율이 증가하고, 노년층에서는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단위: 가구)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주: 가구주 연령별, 성별 가구 수 임

[그림 5-4] 가족 생애주기 피라미드: 2010년

〈표 5-3〉 가족규모와 가구구성의 변화: 1985-2010년

(단위: 명,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평균 가구원수(명)	4.1	3.7	3.3	3.1	3.0	2.8
1세대 가구 ¹⁾	9.6	10.7	12.7	14.2	16.2	17.4
2세대 가구 ²⁾	67.0	66.3	63.3	60.8	55.4	51.2
3세대 이상 가구 ³⁾	14.9	12.5	10.0	8.4	6.9	6.1
비혈연 가구	1.7	1.5	1.4	1.1	1.4	1.1
1인 가구	6.9	9.0	12.7	15.5	19.9	23.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세대 가구는 부부, 부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주: 2)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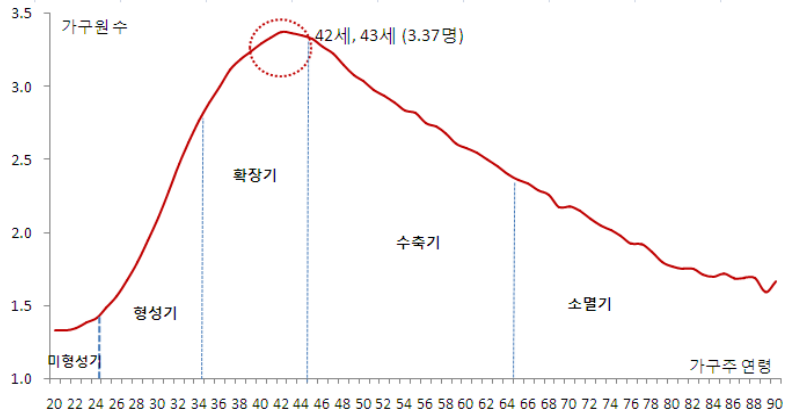
주: 3)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자료: 인구센서스 1985년-2010년, 가구 표본자료

또한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한 새로운 독신자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장래가구추계(2010)에 따르면, 1인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35년에는 전체 가구의 3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거 30여 년간 68%대를 유지해오던 핵가족 가구(부부 가구, 부부+자녀가구, 부+자녀가구, 모+자녀가구)비율이 2010년에는 61.6%까지 감소하였다. 2세대 가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족 형태인 ‘부부+자녀’가구가 2010년에는 6,416,000가구로, 2000년의 6,892,000가구에 비해 약 7% 감소한 반면, ‘한 부모+자녀’ 가구는 1,124,000가구에서 1,594,000가구로 약 41.8%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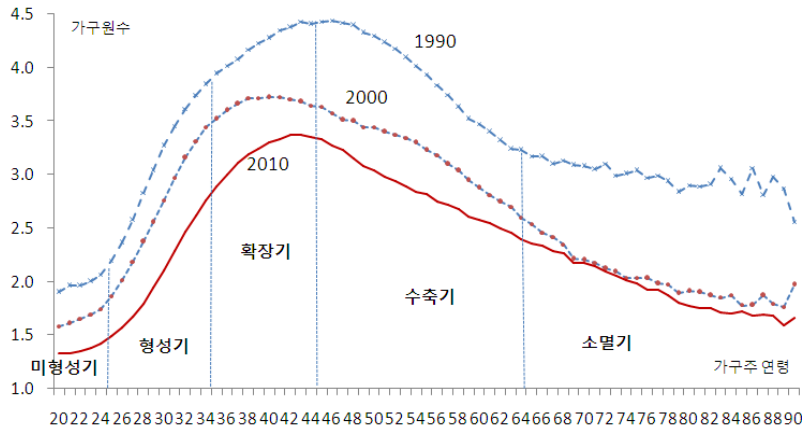
가족의 생애주기의 구분은 경험적 차원에서 가구주의 연령으로 조작될 수 있다. 즉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가족의 형성, 확장, 수축, 소멸기에 관한 대략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그림 5-5]는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수이다. 가구주 연령 20세부터 평균 가구원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42세, 43세 3.37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완만하게 감소한다.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20세 1.3명, 25세 1.5명, 30세 2.1명, 35세 2.9명, 40세, 3.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 연령구간에서 가구원 수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45세 3.3명, 50세 3.0명, 55세 2.8명, 60세 2.6명, 65세 2.4명으로 60대에는 2명~3명 수준, 70대 이상은 2명 이하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수를 통해 가족의 생애주기를 유형화할 수 있다. 25세부터 34세까지는 결혼을 통해 가족이 형성되는 ‘가족 형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평균 가구원수는 1.5명에서 2.8명 수준이다. 이 시기에는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성립 및 결혼에 대한 적응이 이뤄진다. ‘가족 확장기’는 35세에서 44세까지로 이 시기



주: 가구주 연령을 20세~90세로 한정함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그림 5-5]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 수: 2010년



주: 가구주 연령을 20세~90세로 한정함
 자료: 인구센서스 1990년, 2000년, 2010년, 가구 표본자료

[그림 5-6]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 수: 1990년, 2000년, 2010년

평균 가구원수는 2.9명에서 3.4명 수준이다. 이 시기에는 자녀의 출산으로 평균 가구원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자녀의 이동기 및 청소년기를 거치게 된다. ‘가족 수축기’는 대략 45세부터 65세까지로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고 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평균

가구원수는 3.3명에서 2.4명으로 가구원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소멸기’는 노화로 인하여 부부의 사망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배우자가 사망하고, 본인도 사망하는 과정을 통해 한 가족은 완전한 소멸에 이르게 된다. 물론 배우자 및 본인의 사망 이전에 이혼을 통해 가족이 소멸되기도 하며, 재혼을 통해 또 다른 가족이 형성되기도 한다. 여기서 제시된 틀은 일반적인 가족 생애주기 모형으로, 총량적 수준의 데이터를 통해 가족 생애주기를 개념 및 조작화한 것이다.

[그림 5-6]은 1990년, 2000년, 2010년 세 시기의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 수이다. 1990년의 곡선이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2000년, 2010년 곡선이 차례로 그 다음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각 시기별 평균 가구원 수가 최대인 가구주 연령을 살펴보면, 1990년에는 46세(4.43명), 2000년에는 40세, 41세(3.72명), 2010년에는 42세, 43세(3.37명)로 각 시기별 최대 가구원 수가 점차 감소하였다.

가족 생애주기별 가구원 수를 각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0년에는 ‘가족 형성기(25세~34세)’의 가구원 수는 2.19명에서 3.84명 사이에 분포하며, ‘가족 확장기(35세~44세)’는 3.94명에서 4.42명, ‘가족 수축기(45~64세)’는 3.23명에서 4.43명 사이에 분포한다. 한편 2000년은 ‘가족 형성기(25세~34세)’의 가구원 수는 1.86명에서 3.44명 사이에 분포하며, ‘가족 확장기(35세~44세)’는 3.52명에서 3.72명, ‘가족 수축기(45~64세)’는 2.6명에서 3.63명 사이에 분포한다. 마지막으로 2010년에는 ‘가족 형성기(25세~34세)’의 가구원 수는 1.49명에서 2.76명 사이에 분포하며, ‘가족 확장기(35세~44세)’는 2.89명에서 3.37명, ‘가족 수축기(45~64세)’는 2.39명에서 3.32명 사이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가족 형성기’와 ‘가족 확장기’에는 가구원 수가 증가하고, ‘가족 수축기’와 ‘가족 소멸기’에는 가구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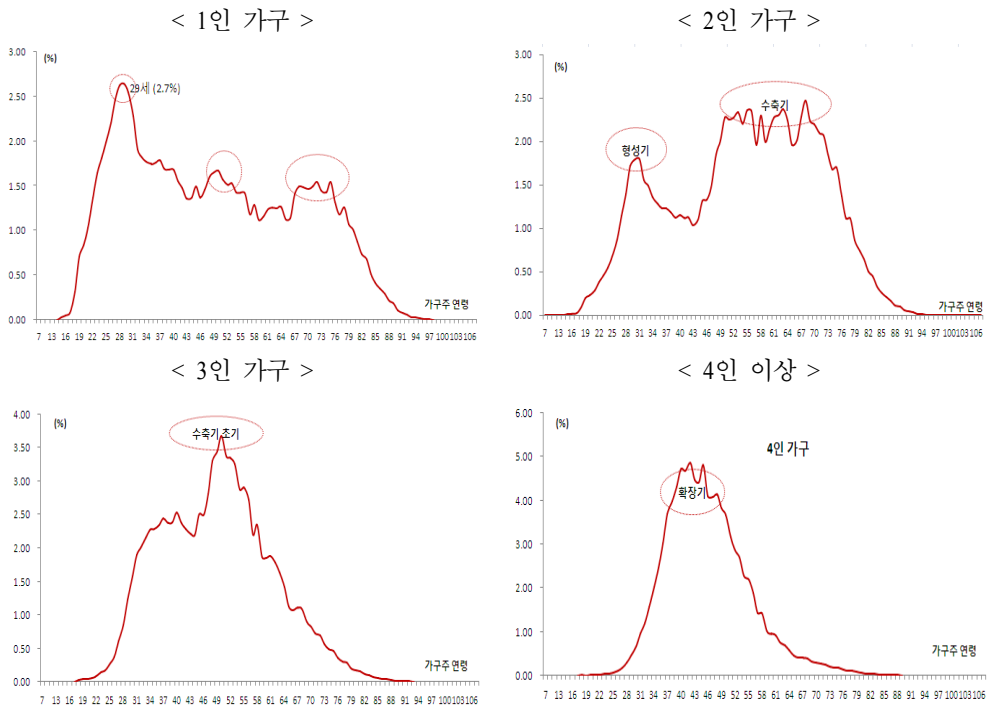
[그림 5-7]은 가구주 연령별 가구규모이다. 가구주 연령별 1인 가구의 분포를 보면, 가구원수 1인이 최대인 지점은 가구주 연령 ‘29세’로 이 구간까지 가구주 연령별 1인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1인 가구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기는 가족이 형성되기 전 시점이다. 이후 연령구간에서 가구주 연령 증가에 따라 1인 가구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인다. 그러나 40대 후반과 60대 후반 및 70대 전반에 다시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가구주 연령별 2인 가구의 증감추이를 살펴보자. 가족 형성기인 20대 후반에 2인 가구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이후 감소하다 40대 후반에서 70대 전반까지 2인 가구 비중이 높은 편이다. 40대 후반에서 60대 전반은 가족 수축기로 장성한 자녀들이 출가하면서 2인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가구주 연령별 3인 가구의 분포를 보면 40대 후반까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다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5세~64세는 가족 수축기로

자녀의 출가 및 배우자 사망으로 가족 규모가 감소하는 시기이다. 즉 3인 가구 비중은 수축기 초기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가구주 연령별 4인 가구의 비중을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4인 가구의 비중은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구간에서 4인 가구 비중은 급격히 감소한다. 4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구간은 가족 생애주기 중 ‘확장기’로 출산이 완결되고, 자녀가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거치는 시기이다. 가구주 연령 40대 전반 이후 4인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가족 생애주기가 수축기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구주 연령별 세대구성 분포는 어떠한가? 센서스 가구조사에서 세대유형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상으로 유형화된다. 1세대 가구는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이 같이 사는 가구로, ‘부부+미혼형제, 자매’, ‘부부+기타 친인척’, ‘가구주+미혼형제, 자매’, ‘가구주+기타 친인척’으로 이뤄진 가구를 의미한다. 2세대 가구는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로, ‘부부+미혼자녀’,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부부+양친’, ‘부부+한부모’,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조부모+미혼 손자녀’, ‘한조부모+미혼 손자녀’ 등으로 이뤄진 가구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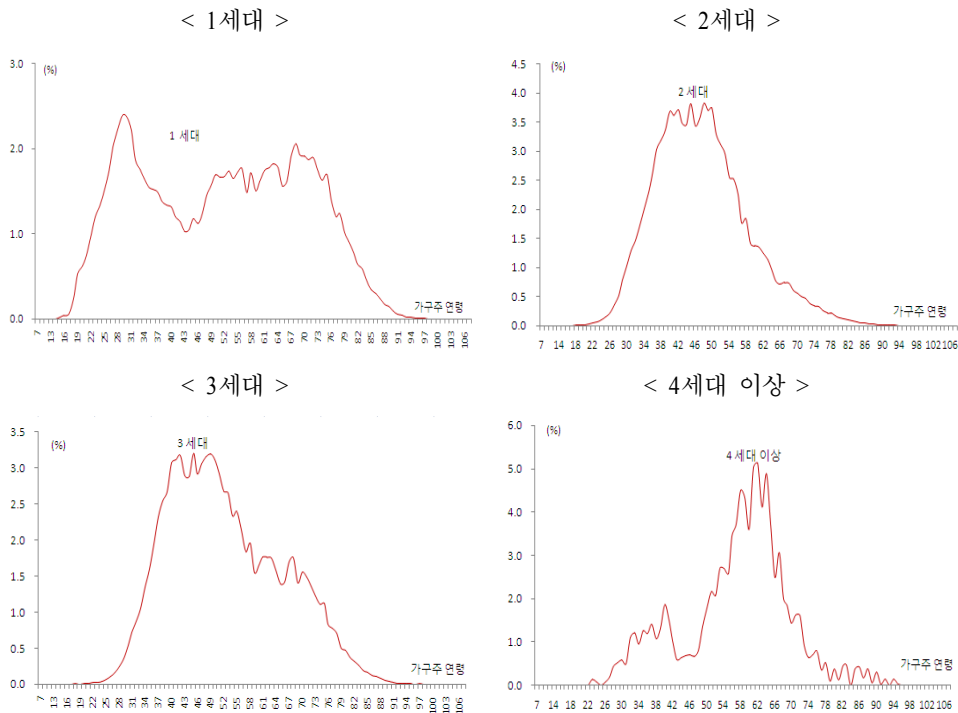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그림 5-7] 가구주 연령별 가구규모



3세대 가구는 가구주와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로, ‘부부+미혼 자녀+양친’, ‘부부+미혼자녀+부’, ‘부부+미혼자녀+모’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가구주 연령별 1세대 가구의 분포는 20대 후반에 정점을 이루고 이후 감소하였다가 50, 60대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1세대 가구는 가구주와 동일세대의 친족으로 구성된 가구로 가족 형성기에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자녀의 출산이 시작되는 확장기에 비중이 감소하고, 자녀가 장성하여 결혼하는 수축기에 다시 그 비중이 증가한다. 2세대 가구는 가구주와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으로 구성된 가구로 가족 확장기(35-44세)에 그 비중이 가장 높다. 이 시기에 활발한 출산으로 2세대 가구구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3세대 가구는 가구주와 직계 또는 방계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로, 가족의 확장, 수축기인 40대에 그 비중이 가장 높다¹⁰⁾. 4세대 이상 가구는 50, 60대 고령 가구주에게 비중이 높다. 4세대 가구는 가구주와 친족이 4세에 걸쳐 사는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고령인 점이 특징적이다.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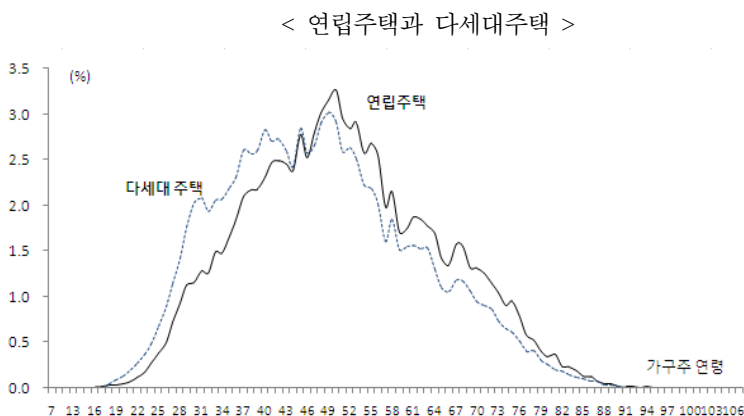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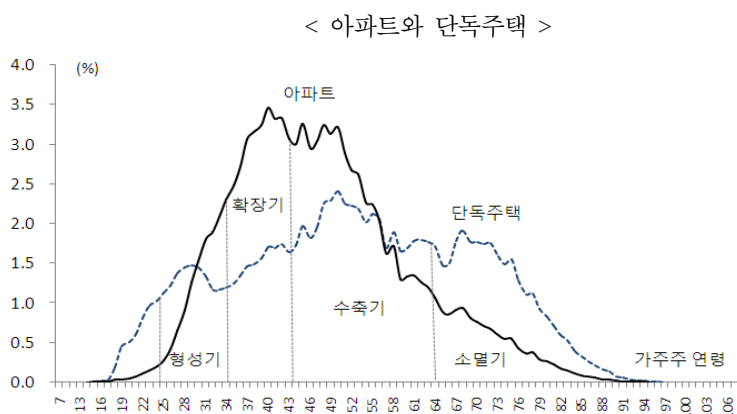
[그림 5-8] 가구주 연령별 세대구성

10) 3세대 가구의 세부 유형별 비중은 ‘부부+미혼자녀+양친’ 12.8%, ‘부부+미혼자녀+부’ 6.8%, ‘부부+미혼자녀+모’ 42.5%, ‘기타’ 37.9%로 나타난다.

2.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1. 에서는 가족 생애주기별 가구규모 및 세대구성을 살펴보았다. 2. 에서는 가족 생애 주기별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2010년도 인구센서스 가구 표본 조사에 따르면, 주택유형별 분포는 아파트 47.1%, 단독주택 39.6%, 다세대주택 7.1%, 연립주택 2.9% 순으로 국민의 절반 수준이 아파트에 거주할 만큼 아파트는 우리나라 가구의 보편적인 거주형태가 되었다.

그렇다면 가족 생애주기별 주택유형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그림 5-9]는 가구주 연령별 주택유형 분포이다. 주택유형 중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아파트 거주 비중은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여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그림 5-9] 가구주 연령별 주택유형



가구주 연령 40대 초반 무렵 비중이 가장 높다. 반면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40대 후반까지 완만히 상승하여 60, 70대에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한편 다세대 주택과 연립 주택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가구주 연령별 분포가 전체 분포와 유사한 양상이다. 즉 가구주 연령 증가에 따라 완만히 증가하는데, 다세대 가구의 증가가 좀 더 이른 시기에 나타난다. 가족 생애주기별 아파트와 단독주택 비중 증감을 살펴보면, 가족 형성기(25~34세)에서 가족 확장기(35~44세) 구간에서 아파트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며 가족 수축기(45~64세) 전반까지 아파트 비중은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수축기 후반부에서 소멸기(65세 이상)까지 아파트 거주 비중은 급격히 하락한다. 반면 단독주택 비중은 가족 수축기(45~64세) 전반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소멸기(65세 이상)에도 높은 비중을 보인다. 고령자들이 단독주택에 많이 거주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5-4>는 가구주 연령계층별 주택유형이다. 주택유형별 가구주 연령 비중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27.2%로 높은 수준이며, 50~54세 11.1%, 45~49세 10.3%, 55~59세 9.4%로 나타난다. ‘아파트’는 40~44세가 16.2%로 비중이 가장 높고, 45~49세 15.6%, 35~39세 14.6%로 단독주택에 비해 가구주의 연령이 낮은 편이다. 한편 ‘연립주택’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18.0%로 높은 수준이며, 50~54세 14.6%, 45~49세 14.3%로 나타난다. ‘다세대주택’은 고령자보다는 40대의 비중이 높는데, 40~44세는 13.3%, 45~49세는 14.0%임을 알 수 있다.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19.7%로 가장 높으며, 50~54세 14.1%, 45~49세 12.5% 순으로 나타난다. 독거노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령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에 고령자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택 이외의 처처’는 20, 30대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25~29세 20.2%, 30~34세 17.1%, 35~39세 12.0%). 학업 및 취업준비 등으로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20, 30대)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가구주 연령별 주택유형을 살펴본 결과,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 세대의 거주비중이 높고, ‘아파트’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까지의 중·장년층 가구주 비중이 높으며, 주택 이외의 처처는 20, 30대 가구주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발견된다. 주택유형별 가구주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52.5세→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51.5세→ 연립주택 51.3세→ 다세대주택 48.0세→ 아파트 47.8세→ 주택 이외의 처처 38.2세 순으로, 단독주택의 평균 가구주 연령이 가장 높고, 주택 이외 처처의 평균 가구주 연령이 가장 낮다.

<표 5-5>는 가족 생애주기별 주택유형 분포이다. ‘가족 형성기(25~34세)’의 주택유형은 아파트(45.3%), 단독주택(37.7%), 다세대주택(8.3%) 순이며, ‘가족 확장기(35~44세)’에는 아파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아파트(61.0%), 단독주택(26.0%), 다세대주택(7.6%)

〈표 5-4〉 가구주 연령집단별 주택유형

(단위: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미형성기	15세미만	0.0	0.0	0.0	0.0	0.0	0.0
	15~19세	0.7	0.1	0.1	0.2	0.7	1.5
	20~24세	3.9	0.6	0.7	1.5	2.8	10.7
형성기	25~29세	6.7	3.5	3.7	5.9	5.4	20.2
	30~34세	6.3	9.6	6.7	10.2	5.4	17.1
확장기	35~39세	7.1	14.6	10.0	12.3	7.1	12.0
	40~44세	8.5	16.2	12.1	13.3	10.0	9.2
수축기	45~49세	10.3	15.6	14.3	14.0	12.5	7.8
	50~54세	11.1	13.6	14.6	12.9	14.1	6.9
	55~59세	9.4	8.9	11.1	9.2	12.2	4.4
	60~64세	8.8	6.2	8.9	7.5	10.2	3.1
소멸기	65세 이상	27.2	11.0	18.0	13.2	19.7	7.0
가구주 평균연령		52.5	47.8	51.3	48.0	51.5	3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은 상가, 공장, 여관 등이며, '주택 이외의 거처'는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임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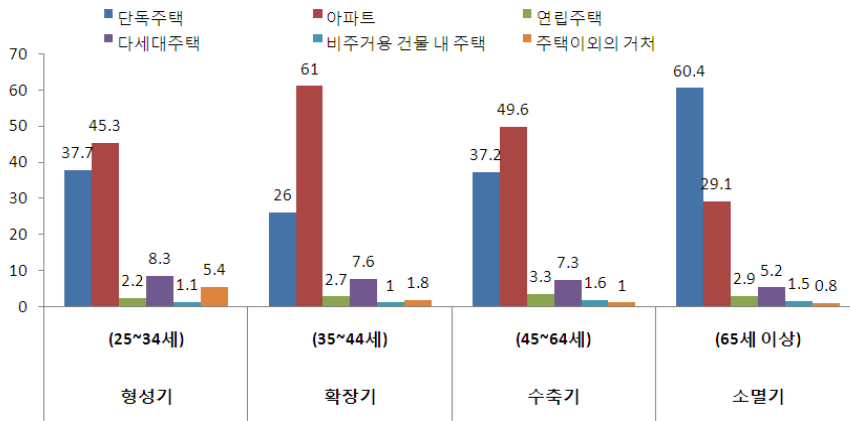
〈표 5-5〉 가족 생애주기별 주택유형

(단위: %)

	형성기 (25~34세)	확장기 (35~44세)	수축기 (45~64세)	소멸기 (65세 이상)	전체
단독주택	37.7	26.0	37.2	60.4	39.6
아파트	45.3	61.0	49.6	29.1	47.1
연립주택	2.2	2.7	3.3	2.9	2.9
다세대주택	8.3	7.6	7.3	5.2	7.1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1.1	1.0	1.6	1.5	
주택이외의 거처	5.4	1.8	1.0	0.8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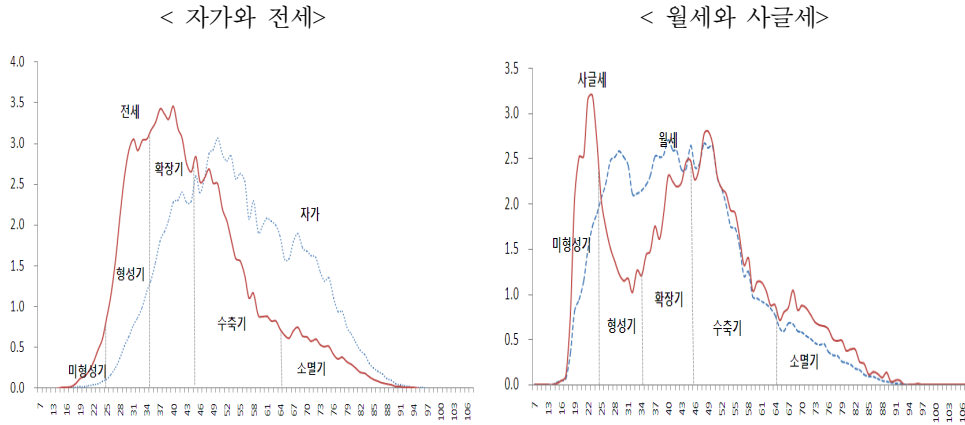
[그림 5-10] 가족 생애주기별 주택유형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가족 수축기(45~64세)’에는 아파트(49.6%), 단독주택(37.2%), 다세대주택(7.3%) 순으로 아파트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단독주택 비중은 증가한다. ‘가족 소멸기(65세 이상)’ 역시 단독주택(60.4%), 아파트(29.1%), 다세대주택(5.2%) 순으로 단독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아파트 비중은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10]을 통해 가족 생애주기별 주택유형 패턴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단독주택 비중은 소멸기 60.4%→ 형성기 37.7%→ 수축기 37.2%→ 확장기 26.0% 순으로 가족 생애주기 과정별로는 확장기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소멸기에 크게 증가한다. 한편 아파트 비중은 확장기 61.0%→ 수축기 49.6%→ 형성기 45.3%→ 소멸기 29.1% 순으로 가족 생애주기 단계별로는 확장기까지 비중이 증가하며,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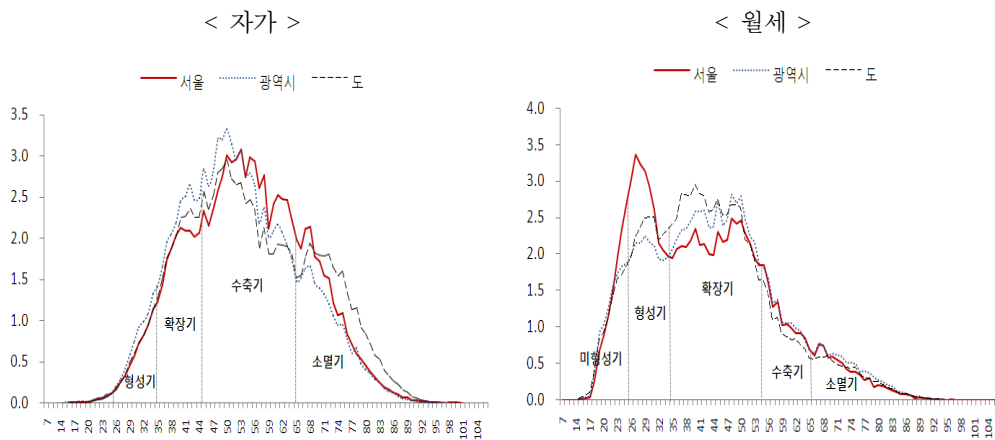
[그림 5-11]은 가구주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이다. 우리나라 주택 점유형태의 일반적인 패턴은 ‘가족 형성기’에 전세로 시작하여 점차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가구규모의 축소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중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늘면서 전세대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결혼과 동시에 집을 장만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선 가구주 연령별 자가와 전세의 주택 점유형태 비중을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 증가에 따른 전세의 비중 증가가 자가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족 형성기’에 전세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며, ‘가족 확장기’에 피크를 보이다가 ‘가족 수축기’에 전세 비중은 급격히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연령구간별 주택 점유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 비중은 40대 중·후반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완만히 감소하며, ‘전세’ 비중은 30대 후반까지 급격히 상승하다가 이후 감소한다. ‘월세’ 비중은 30~40대에 걸쳐 높은 수준이나, 50대 초반 이후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그림 5-11] 가구주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전국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그림 5-12] 가구주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지역별

감소하며, ‘사글세’ 비중은 20대 초반에 비중이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하다 40대 후반 무렵 다시 증가하는 ‘U자’ 패턴을 보인다. 가족 생애주기별로는 ‘가족 형성기’에는 가구주 연령 증가에 따라 전세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 자가 비중은 완만히 상승한다. ‘가족 형성기’에는 자가보다는 전세로 시작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가족 확장기’에는 전세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자가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결혼 후 자녀출산으로 가족 구성원이 확대되고, 저축의 증가로 서서히 내 집 장만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족



수축기와 ‘가족 소멸기’는 자가와 전세의 비중이 모두 감소하는데, 전세 비중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각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주 연령 최고에 이르는 구간을 살펴보면, ‘자가’는 50세(3.1%), ‘전세’는 40세(3.5%), ‘월세’는 48세(2.7%), ‘사글세’는 23세(3.2%)인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점유 유형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지역별 주택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그림 5-12]는 가구주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를 지역별(서울, 광역시, 도)로 작성한 것이다. 가구주의 연령증가에 따라 ‘자가’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그래프의 상승폭은 광역시가 가장 가파른 편으로 최고점은 50세(3.3%)이다. 한편 도 지역은 광역시의 바로 하단에 위치하며, 최고점은 50세(3.0%)로 나타나며, 서울은 가구주 연령 증가에 따라 자가 비중의 상승폭이 가장 더딘 편으로 최고점은 가구주 연령 53세(3.1%)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월세’의 지역별 분포에서는 하나의 특이점이 발견된다. 광역시와 도 지역은 가구주 연령 증가에 따라 월세 비중이 ‘역 U자’ 형으로 평탄하나, 서울은 20대 중·후반에 월세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후 연령구간에서 다시 크게 감소한다. 이는 학업, 취업준비, 구직 등의 사유로 서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청년층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표 5-6>은 가구주 연령계층별 주택 점유형태이다. 주택 점유형태 중 ‘자가’는 65세 이상이 24.7%로 가장 높고, 50~54세 14.1%, 45~49세 13.4% 순으로 나타난다. ‘전세’는 30대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35~39세 16.5%, 40~44세 15.1%, 30~34세 15.0% 순이다. ‘보증금 있는 월세’와 ‘보증금 없는 월세’는 40대 및 65세 이상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편 ‘사글세’는 20~24세 및 65세 이상의 비중이 높으며, 무상 주택은 35~39세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높다.

<표 5-6> 가구주 연령계층별 주택 점유형태: 전국

(단위: %)

		자가	전세	보증금있 는 월세	보증금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관사, 자택 등)
미형성기	15세 미만	0.0	0.0	0.0	0.0	0.0	0.0
	15~19세	0.0	0.2	1.2	2.0	3.0	0.5
	20~24세	0.2	1.7	7.2	7.9	14.1	2.4
형성기	25~29세	1.4	8.3	12.2	8.4	7.9	8.4
	30~34세	4.5	15.0	11.8	7.2	5.8	12.2
확장기	35~39세	8.7	16.5	12.4	9.0	8.2	14.2
	40~44세	11.6	15.1	12.8	11.3	11.5	13.1
수축기	45~49세	13.4	13.1	12.7	13.5	12.7	12.2
	50~54세	14.1	10.2	10.6	12.6	11.2	10.6
	55~59세	11.4	6.1	6.5	8.5	7.3	6.7
	60~64세	10.0	4.1	4.2	6.1	5.1	4.7
소멸기	65세 이상	24.7	9.7	8.3	13.3	13.3	1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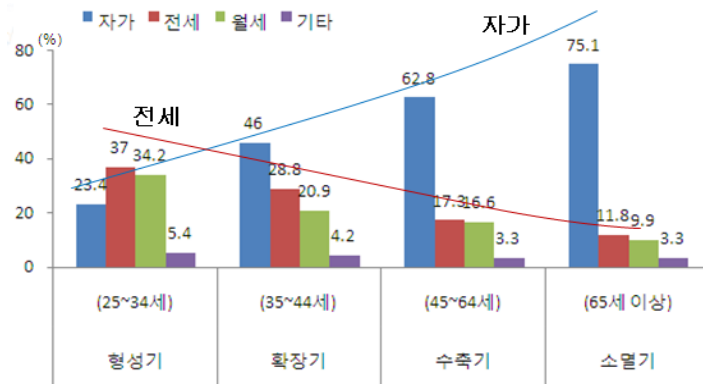
〈표 5-7〉 가족 생애주기별 주택 점유형태

(단위: %)

	형성기(25~34세)	확장기(35~44세)	수축기(45~64세)	소멸기(65세 이상)
자가	23.4	46.0	62.8	75.1
전세	37.0	28.8	17.3	11.8
월세	34.2	20.9	16.6	9.9
사글세	1.3	1.1	1.1	1.0
무상(관사, 자택 등)	4.1	3.1	2.2	2.3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표 5-7〉은 주택 점유형태를 가족 생애주기별로 재작성한 것이다. ‘가족 형성기(25~34세)’에는 자가는 23.4%에 불과한 반면, 전세와 월세는 각각 37.0%와 34.2%를 차지한다. ‘가족 확장기(35~44세)’에는 자가의 비중이 46.0%로 상승하는 반면, 전세와 월세의 비중은 각각 28.8%, 20.9%로 감소한다. ‘가족 수축기(45~64세)’에는 ‘자가’의 비중이 더욱 상승하여 62.8%이며, 전세와 월세의 비중은 감소한다. ‘가족 소멸기(65세 이상)’에는 자가의 비중은 증가하여 75.1%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가구 표본자료

[그림 5-13] 가족 생애주기별 주택점유 형태: 2010년

3. 주택가격 및 규모

3.에서는 가족 생애주기별 전세금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 미형성기’인 24세 이하 가구의 전세금 분포는 3,000~5,000만원이 34.0%, 3,000만원 미만은 32.1%, 5,000~1억이 25.5% 순으로 나타난다. ‘가족 형성기(25~34세)’의 전세금 분포는 25~29세는 5,000만원~1억이 37.1%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3,000~5,000만원은 28.7%, 3,000만원 미만은 18.9% 순이다. 30~34세는 5,000만원~1억은 39.9%, 3,000~5,000만원은 19.8%, 1억~1억 5천만원은 18.2% 순으로 나타난다. ‘가족 확장기(35~44세)’는 전세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자가의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전세금 규모 분포는 35~39세는 5,000~1억 35.1%, 1억~1억 5천 19.8% 순이며, 40~44세는 5,000~1억 30.2%, 3,000~5,000만원이 18.7% 순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족 형성기’에 비해 ‘가족 확장기’에 전세금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데, 이는 이 시기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한 가구에서 자가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구들이 전세로 머물기 때문이다. 한편 ‘가족 수축기(45~64세)’에는 빈 둥지 가족이 증가하면서 전세금 규모는 오히려 축소하여, 1억 미만의 전세 규모가 높아진다. 특히 ‘가족 소멸기’에 이르러서는 3,000만원 미만의 전세 비중이 37.4%, 3,000~

〈표 5-8〉 연령집단별 전세금 규모

(단위: %, 만원)

		3,000만원 미만	3,000 ~5,000만원	5,000 ~1억	1억 ~1억 5천	1억 5천 ~2억	2억 이상	합계
미형성기	24세 이하	32.1	34.0	25.5	5.2	1.8	1.3	100.0
형성기	25~29세	18.9	28.7	37.1	10.4	3.2	1.8	100.0
	30~34세	11.7	19.8	39.9	18.2	6.8	3.7	100.0
확장기	35~39세	12.2	17.8	35.1	19.8	9.0	6.1	100.0
	40~44세	15.2	18.7	30.2	17.9	9.3	8.8	100.0
수축기	45~49세	18.3	19.9	28.4	15.6	8.1	9.7	100.0
	50~54세	20.6	21.2	28.4	13.9	7.2	8.7	100.0
	55~59세	22.8	20.9	28.9	13.1	6.6	7.7	100.0
	60~64세	25.7	22.5	27.8	12.2	6.2	5.6	100.0
소멸기	65세 이상	37.4	22.9	23.7	8.7	3.8	3.6	100.0
전체		18.8	21.0	31.7	15.2	7.0	6.3	100.0

주 : 주거전용, 영업겸용 모두 포함됨. 보증금있는 월세는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5,000만원은 22.9%로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소형 전세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5-9>는 연령집단별 주거용 연면적 규모이다. 39㎡ 이하(12.12평 이하)는 ‘가족 형성기’인 20대 후반(11.7%)에 가장 비중이 높으며, 이후 연령대에는 감소하다가 ‘가족 소멸기’인 65세 이상에 다시 비중이 증가한다. 40~84㎡(12.12~25.76평)는 ‘가족 형성기’인 30대 전반(47.0%)에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후 연령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가족 소멸기’인 65세 이상(48.2%)에서 약간 증가한다. 즉 25평 이하 소형 주택은 ‘가족 형성기’에 비중이 높은 편이나, ‘가족 확장기’ 및 ‘가족 수축기’에는 그 비중이 감소하다가 ‘가족 소멸기’인 65세 이상에 다시 비중이 증가한다. 반면 중·대형 주택은 ‘가족 형성기’에는 비중이 적으나 이후 연령구간에서 크게 증가하다가, ‘가족 소멸기’에 비중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가령 132~197㎡(40~60평)의 가구주 연령별 거주 비중을 살펴보면, 가족 형성기인 30대 전반에는 6.8%이나, 이후 연령구간에서 점차 증가하여 60대 전반에 13.2%로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가족 소멸기인 ‘65세 이상’은 11.6%로 그 비중이 다시 약간 감소한다. 즉 ‘가족 형성기’ 이후 주택 평수는 점차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나, 빈 등지 시기에 접어들면서 가구원 수의 감소로 주택 평수는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5-9> 연령집단별 주거용 연면적 규모: 전체

(단위: %, m²/평)

		39㎡ 이하 (12.12평 이하)	40~84 ㎡ (12.12~ 25.76평)	85~131 ㎡ (25.76~ 40평)	132~197 ㎡ (40~ 60평)	198~329 ㎡ (60~ 100평)	330㎡ 이상 (100평 초과)	합계
미형성기	24세이하	11.3	13.1	6.8	10.6	20.2	38.0	100.0
형성기	25~29세	11.7	31.7	11.4	9.6	13.8	21.8	100.0
	30~34세	7.8	47.0	20.0	6.8	7.9	10.4	100.0
확장기	35~39세	5.5	46.5	28.4	7.4	6.2	6.1	100.0
	40~44세	4.7	42.2	33.0	9.4	6.1	4.7	100.0
수축기	45~49세	4.8	40.1	33.5	11.3	6.2	4.1	100.0
	50~54세	5.2	39.5	33.6	12.3	6.1	3.3	100.0
	55~59세	5.3	39.5	33.2	13.1	6.1	2.8	100.0
	60~64세	5.6	41.2	31.7	13.2	6.0	2.2	100.0
소멸기	65세이상	7.7	48.2	25.5	11.6	5.2	1.8	100.0
전체		6.3	41.9	28.3	10.6	6.9	5.9	100.0

주 : 주거용 연면적 = 주거전용 + 영업겸용이며, 1평은 3.3㎡임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표 5-10>은 연령집단별 주거용 연면적 규모를 아파트만 재집계한 것이다. 가구주 연령별 아파트 평수 분포를 살펴보면, 11~20평의 소형 아파트는 가족 형성기에 비중이 높는데, 20대 후반은 67.7%, 30대 전반은 59.6%이며, 이 후 연령 구간에는 그 비중이 감소하다가 소멸기인 65세 이상에 41.3%로 그 비중이 다시 증가한다. 21~30평대는 가구주 연령 증가에 따라 거주 비중이 증가하는데, 40대 전반의 비중이 44.1%로 가장 높으며, 이후 구간에서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31~40평은 50대 후반에서 비중이 가장 높으며, 41~50평은 60대 전반에 가장 비중이 높다. 그러나 ‘가족 소멸기’인 65세 이상은 대형 아파트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소형 아파트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동시장 은퇴로 가구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원의 출가와 사망으로 인한 가구원 수의 감소가 주택평수 축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표 5-10> 연령집단별 주거용 연면적 규모: 아파트

(단위: %, 평)

		10평 이하	11~20평	21~30평	31~40평	41~50평	50평 초과	합계
미형성기	24세 이하	18.4	58.8	17.4	3.6	1.5	0.3	100.0
형성기	25~29세	4.8	67.7	23.1	3.3	0.9	0.2	100.0
	30~34세	1.9	59.6	32.9	4.4	1.0	0.2	100.0
확장기	35~39세	1.4	48.6	40.8	7.0	1.9	0.4	100.0
	40~44세	1.5	39.9	44.1	10.2	3.6	0.7	100.0
수축기	45~49세	2.2	36.1	43.5	12.4	5.0	0.9	100.0
	50~54세	2.9	33.7	43.1	13.2	6.0	1.1	100.0
	55~59세	3.5	31.6	43.1	13.5	6.8	1.5	100.0
	60~64세	4.2	32.6	41.6	12.9	7.0	1.7	100.0
소멸기	65세 이상	6.9	41.3	34.2	10.1	5.7	1.8	100.0
전체		3.0	41.7	40.1	10.1	4.3	0.9	100.0

주 : 주거전용, 영업겸용 모두 포함됨. 1평은 3.3㎡임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제4절 개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1. 인구규모 및 구조, 지리적 분포

생애주기별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선결(先決)되어야 한다. 생애주기의 구분은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생의 사건을 중심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인간의 생애주기는 한 인간이 생명체로 시작하는 임신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생애의 기간을 몇 개의 단계로 구분된다. 그러나 생애주기의 구체적인 구분은 연구의 성격이나 배경 등에 따라 다르다.

이론 및 정책적으로 가장 고전적으로 거론되는 생애주기 유형화는 에릭슨의 8단계 생애주기 발달론이다. 에릭슨은 개인의 발달단계를 영아기, 유아기, 아동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초기, 중·장년기, 노년기의 8단계로 구분하여 개인의 발달단계를 설명하였다. 생애주기 유형화에 관해서는 연구적,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집단 유형화를 달리한다. 「새로운 복지지표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2010년)」의 신복지체계에서는 생애주기별 핵심 복지지표의 도출을 위해 생애주기를 ‘아동·청소년기’(0~24세), ‘성인기’(25~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하고, 각 생애주기별 핵심 복지지표를 도출하였다

〈표 5-11〉 생애주기별 유형화: 기존연구

	신복지체계	유럽연합(EU) 사회정책 핵심지표	개인·가족 생애주기 이론
생애주기	아동·청소년기 (0~24세)	0~17세	태아기
			영·유아기(0~6세)
			아동기(7~12세)
			청소년기(13~19세)
	성인기(25~64세)	18~44세	성인기(20~39세)
			중·장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	45~54세	중·장년기(40~64세)	
	55~64세 (55~59세/60~64세)		
	노년기(65세 이상)	65세 이상	노년기(65세 이상)



(안상훈 외, 2010). 한편 유럽연합(EU) 사회보장위원회 사회정책 분석틀(frame)에서는 각 핵심지표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략 0~17세, 18~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으로 생애주기 집단을 구분하고 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계획(2010년)」에서는 생애주기(life-cycle) 및 가족 생애주기(family life-cycle)의 개념적 검토를 바탕으로 ‘태아기’(수정~출생), ‘영·유아기’(출생 후~6세), ‘아동기’(7~12세), ‘청소년기’(13~19세), ‘성인기’(20~39세), ‘중·장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의 6단계로 구분하였다(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0). 기존 연구의 생애주기 유형화를 보면, 대체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생애주기 유형화에는 차이가 있다.

앞서 생애주기를 보는 관점 및 정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개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절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개인의 생애주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생애주기 대분류 수준에서 아동·청소년기(0~19세), 성인기(2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하였다. 중분류 수준에서 아동·청소년기는 영·유아기(0~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3~19세)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성인기는 청년기(20~29세), 장년기(30~49세), 중년기(50~64세)로, 노년기는 노년기(65~84세), 초고령기(85세 이상)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5-12> 생애주기별 유형화: 대·중 분류

大	中
아동·청소년기 (0~19세)	영·유아기(0~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3~19세)
성인기 (20~64세)	청년기(20~29세)
	장년기(30~49세)
	중년기(50~64세)
노년기 (65+)	노년기(65~84세)
	초고령기(85세이상)

<표 5-13>은 생애주기별 개인의 인구분포이다. 지역은 서울시, 광역시, 도로 구분하여 각 생애주기별 인구수 및 비중을 살펴보았다. ‘영유아기(0~5세)’는 주된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안전 및 건강한 양육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2세 미만 ‘영아기’는 보육 및 필수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여 정부의 각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영·유아기는 생애주기 중 가장 첫 단계로 영·유아기의 인구수 및 비중은 그 지역의 출산율과 관련이 깊다. 전체 인구 중 영·유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5.6%인 한편,

서울시는 5.0%, 광역시는 5.3%로 각각 전국 평균보다 0.6%p, 0.3%p 비중이 낮다. 반면 도 지역은 5.9%로 전국보다 0.3%p 높다. ‘아동기(6~12세)’는 주로 초등학교 재학 시기로 아동학대, 교통사고 등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학교 및 또래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이다. ‘아동기’의 인구분포는 전국 평균 8.0%, 서울시 6.8%, 광역시 8.0%, 도 8.5%로 서울시의 아동인구 비중은 전국보다 1.2%p 낮은 반면, 도는 0.5%p 높다. ‘청소년기(13~19세)’의 지역별 인구 비중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영·유아기와 아동기의 인구 비중이 도에서 가장 높았던 것과는 달리 ‘청소년기’ 인구 비중은 광역시가 보다 높게 나타난다. 전국 인구 중 ‘청소년기’는 9.8%이며, 서울시는 8.9%, 광역시 10.4%, 도는 9.9%로 광역시의 청소년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0.6%p). 아동·청소년기(0~19세)의 전국 평균 연령은 10.5세이며, 광역시가 10.7세로 가장 높고, 도지역이 10.3세로 가장 낮다.

다음으로 ‘성인기’(20~64세)의 생애주기별 인구분포를 보면, ‘청년기’(20~29세)는 서울이 15.7%로 가장 높으며, 광역시 13.3%, 도 11.8%로 청년 인구의 비중은 일자리가 밀집한 서울 및 광역시에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 시기는 직업의 욕구를 통한 자아 성취 및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이 이뤄지는 시기로 적절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한편 ‘장년기’(30~49세)는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이 이뤄지는 시기로, 성인으로서의 본격적인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는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국가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원활한 근로생활 지원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兩立)을 위한 정책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장년기의 인구비중은 전국 33.7%, 서울 34.5%, 광역시 33.9%, 도 지역 33.3%로 서울의 장년기 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 장년기는 노동력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노동력(primary workers)으로 개인의 근로생애 중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생활을 영위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에는 성차(性差)가 있어 남성은 대체로 단절(斷絶)없는 근로를 경험하는 반면 여성은 경력단절이 존재하며, 노동시장 구조가 매우 이중적(dual labor market)이다. ‘중년기’(50~64세) 인구비중은 전국 18.4%, 서울 19.3%, 광역시 19.1%, 도 지역 17.8%로 도보다 서울과 광역시의 비중이 약간 더 높다.

‘노년기(65세 이상)’은 은퇴로 인한 소득감소와 질병과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독립성 상실, 구직의 어려움, 고립과 소외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직업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가는 시기로 전통적인 가족부양의 약화로 인해 국가의 복지 지원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역별 노년인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65~84세 노년기 인구는 서울시 9.1%, 광역시 9.3%, 도 지역 11.9%로 농가가 많은 도 지역의 고령인구의 분포가 높다. 한편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비중 또한 서울시 및 광역시보다 도 지역의 비중이 높다. ‘노년기(65세 이상)’의 전국 평균 연령은 73.4세로, 도지역이 73.8세로 가장 높고, 서울시가 72.7세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생애주기별 지역별 인구분포를



〈표 5-13〉 생애주기별 인구분포

(단위: 명, %, 세)

		전국		서울시		광역시		도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성별									
	남성	23,248,887	(49.0)	4,623,318	(48.4)	6,039,708	(49.0)	12,585,861	(49.2)
	여성	24,236,502	(51.0)	4,926,888	(51.6)	6,295,714	(51.0)	13,013,900	(50.8)
	계	47,485,389	(100.0)	9,550,206	(100)	12,335,422	(100)	25,599,761	(100.0)
혼인상태									
	미혼	11,734,755	(29.6)	2,849,541	(34.8)	3,146,999	(30.5)	5,738,215	(27.1)
	기혼	23,284,205	(58.7)	4,511,733	(55.1)	5,962,488	(57.7)	12,809,984	(60.5)
	이혼 및 사별	4,672,572	(11.8)	830,400	(10.1)	1,217,173	(11.8)	2,624,999	(12.4)
	계	39,691,532	(100.0)	8,191,674	(100.0)	10,326,660	(100.0)	21,173,198	(100.0)
생애주기		전국		서울시		광역시		도	
아동· 청소년 기 (0~19세)	영·유아기 (0~5세)	2,645,759	(5.6)	472,890	(5.0)	657,703	(5.3)	1,515,166	(5.9)
	아동기 (6~12세)	3,817,441	(8.0)	653,561	(6.8)	990,120	(8.0)	2,173,760	(8.5)
	청소년기 (13~19세)	4,674,444	(9.8)	854,494	(8.9)	1,281,526	(10.4)	2,538,424	(9.9)
	소계	11,137,644	(23.5)	1,980,945	(20.7)	2,929,349	(23.7)	6,227,350	(24.3)
	평균연령	10.5세		10.6세		10.7세		10.3세	
성인기 (20~64세)	청년기 (20~29세)	6,152,750	(13.0)	1,498,527	(15.7)	1,641,230	(13.3)	3,012,993	(11.8)
	장년기 (30~49세)	16,014,936	(33.7)	3,298,817	(34.5)	4,183,851	(33.9)	8,532,268	(33.3)
	중년기 (50~64세)	8,753,283	(18.4)	1,842,262	(19.3)	2,360,677	(19.1)	4,550,344	(17.8)
	소계	30,920,969	(65.1)	6,639,606	(69.5)	8,185,758	(66.4)	16,095,605	(62.9)
	평균연령	41.4세		40.7세		41.5세		41.6세	
노년기 (65+)	노년기 (65~84세)	5,059,886	(10.7)	873,702	(9.1)	1,145,961	(9.3)	3,040,223	(11.9)
	초고령기 (85+)	366,890	(0.8)	55,953	(0.6)	74,354	(0.6)	236,583	(0.9)
	소계	5,426,776	(11.4)	929,655	(9.7)	1,220,315	(9.9)	3,276,806	(12.8)
	평균연령	73.4		72.7		73.1		73.8	
계		47,485,389	(100.0)	9,550,206	(100.0)	12,335,422	(100.0)	25,599,761	(100.0)
평균연령		37.8세		37.6세		37.3세		38.1세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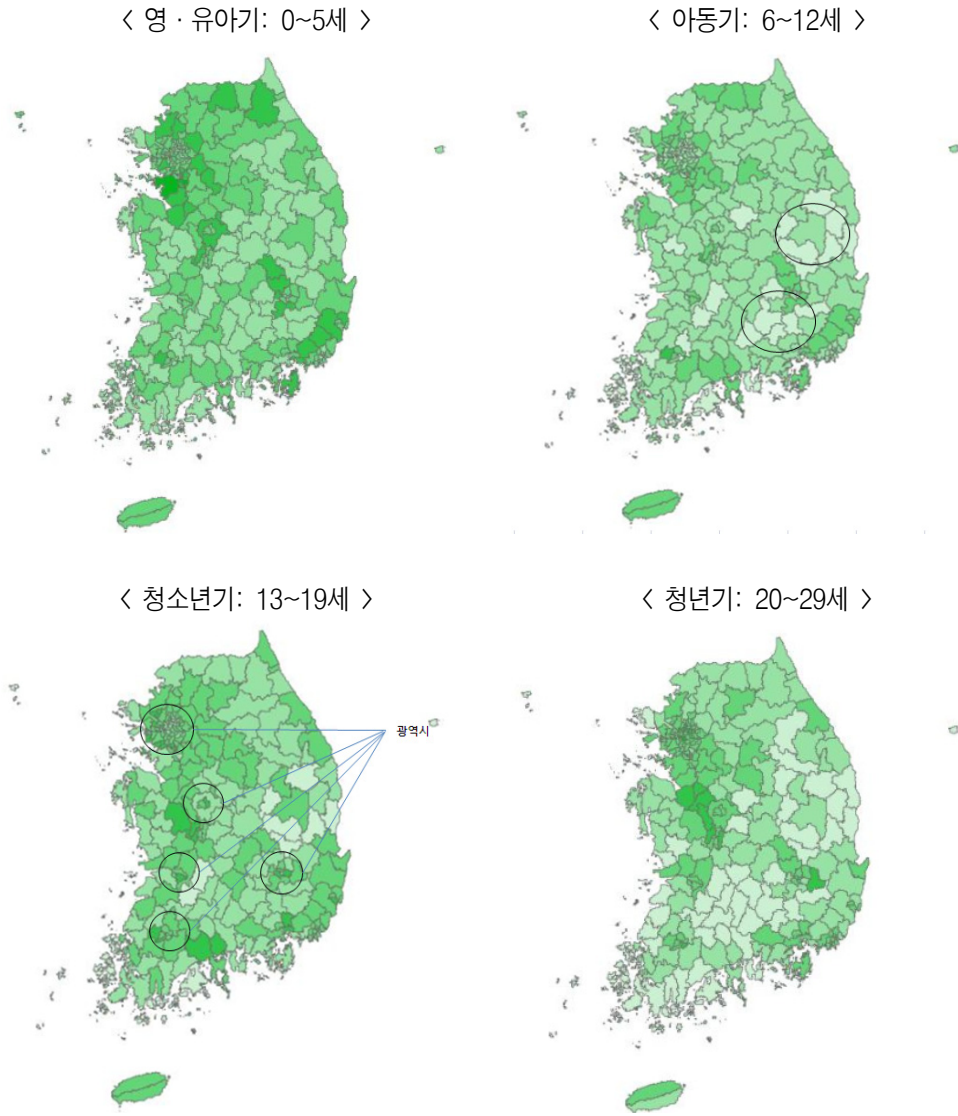
살펴본 결과, 대체로 출산율이 낮은 서울시 및 광역시의 경우 영유아기 및 아동기의 비중은 낮고, 성인기(청년기, 장년기, 중년기)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반면 도 지역은 영유아기 및 아동기와 노년기의 비중은 높고, 노동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성인기의 인구 비중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14]와 [그림 5-15]는 주요 생애주기 집단의 지리적 분포(geographic distribution)로 각 생애주기 집단별 시군구별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을 지도로 도시한 것이다. 영·유아기(0~5세) 비중이 시군구 인구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8.3%), 울산광역시 북구(8.2%), 경기도의 남양주시(7.5%), 오산시(8.8%), 용인시 기흥구(8.5%), 용인시 수지구(7.5%), 충남 아산시(7.7%), 경남 거제시(7.9%) 등으로 주로 광역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영유아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영유아기 비중이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의 중구(3.1%), 서구(3.3%), 동구(3.4%), 영도구(3.4%), 인천광역시 강화군(3.5%), 충남 청양군(3.4%), 전북 고창군(3.5%), 전남의 담양군(3.2%), 함평군(3.3%), 경북의 군위군(2.3%), 의성군(2.5%), 청송군(3.2%), 영양군(3.1%), 청도군(2.6%), 경남의 의령군(3.1%), 산청군(3.3%), 함천군(3.0%) 등으로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기(6~12세)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11.6%), 울산광역시 북구(10.5%), 경기도의 수원시 영통구(10.3%), 고양시 일산서구(10.5%), 용인시 기흥구(10.4%), 용인시 수지구(10.5%), 화성시(10.7%), 충남 계룡시(12.2%) 등 경기도 및 광역시의 일부 지역에서 아동기의 비중이 높다. 반면 아동기의 비중이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5.0%), 서구(5.7%), 동구(5.4%) 등과 경북 군위군(3.9%), 의성군(4.0%), 청송군(4.9%) 및 경남 창녕군(5.7%), 고성군(5.9%), 산청군(5.1%) 등이다. 아동기는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되는데, 부산과 경남 및 경북 일부 지역에서 그 비중이 낮게 분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13~19세)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시기로, 경기도 및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그 비중이 높게 분포된다. 서울시에서는 노원구(10.9%), 양천구(11.6%), 강남구(10.4%)에서 청소년기 비중이 높은 편이며, 부산광역시의 북구(10.9%), 해운대구(10.5%), 금정구(10.3%), 대구광역시의 수성구(12.5%), 달서구(11.5%), 인천광역시의 연수구(12.0%), 계양구(11.6%), 광주광역시의 광산구(11.7%), 남구(11.8%), 대전광역시의 서구(11.7%), 유성구(11.6%), 울산시의 남구(11.5%), 경기도의 수원시 영통구(12.1%), 고양시 일산서구(12.3%) 등에서 청소년기의 비중이 높다. 청소년기의 인구분포는 학군과 일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중·고등학교 시기에 학군을 따라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대체로 학업환경이 좋은 지역이라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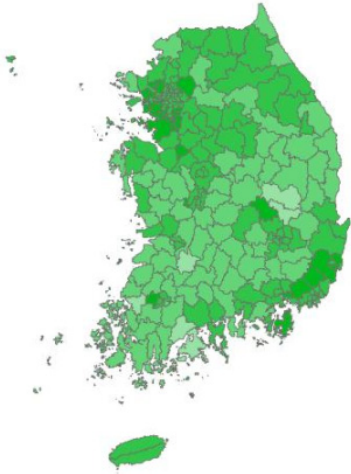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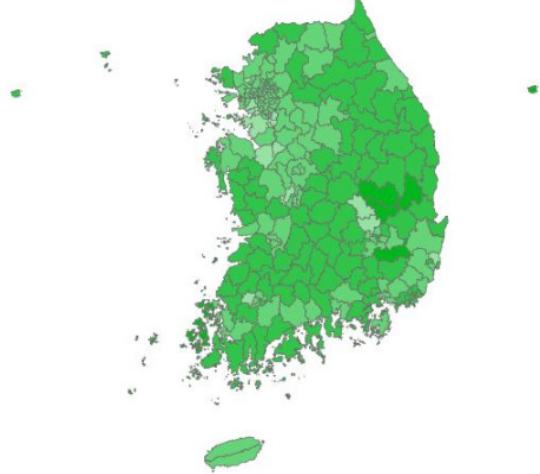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14] 생애주기별 지리 분포(geographic distribution):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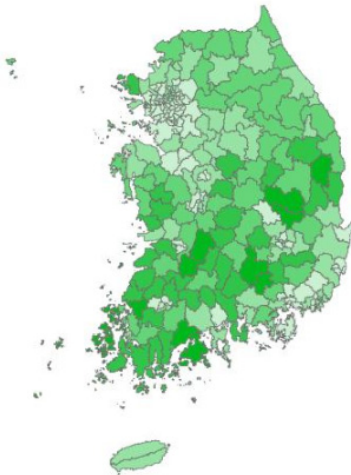
< 장년기: 30~49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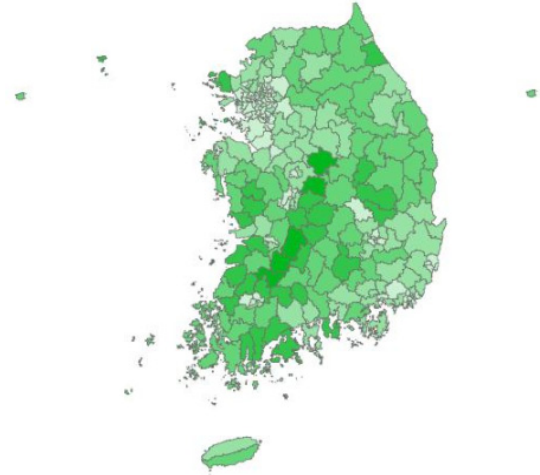
< 중년기: 50~64세 >



< 고령기: 65~84세 >



< 초고령기: 85세 이상 >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15] 생애주기별 지리 분포(geographic distribution): 장년기, 중년기, 고령기, 초고령기

청년기(20~29세)는 대학 재학 및 초직에 진입하는 시기이다. 청년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은 수도권 및 충청권 일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에서는 관악구(21.4%), 광진구(18.9%)의 청년기 비중이 높으며, 광주광역시의 동구(18.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5.6%), 충남 천안시 동남구(16.3%), 아산시(17.7%), 연기군(16.2%), 경북 경산시(18.0%)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청년기의 비중이 낮은 지역은 전북 장수군(4.6%), 임실군(4.8%), 순창군(4.8%), 경북 군위군(4.2%), 의성군(4.1%), 영양군(4.1%) 등으로 나타난다. 청년기의 시군구별 분포는 일자리와 관련성이 엇보이는데, 청년기의 비중이 낮은 지역은 전북 및 경북 일부 지역으로 이 지역은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장년기(30~49세)는 본격적인 근로생활을 영위하는 시기로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나, 특히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북구(41.3%), 경기도의 수원시 영통구(40.1%), 시흥시(40.4%)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장년기 비중이 낮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18.3%), 경북 청도군(19.8%), 예천군(19.7%) 등으로 나타난다. 중년기(50~64세)는 노동시장에서 조금씩 퇴장이 이뤄지는 시기로 인구 분포상의 큰 특이점은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고령기(65~84세)는 노동시장에서 최종적인 퇴장과 함께 급격한 노화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의 시군구별 인구분포는 영·유아기와 대조적인 양상이다. 즉 영·유아기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고령기의 비중이 낮고, 영·유아기의 비중이 낮은 지역은 고령기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고령기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충북 보은군(30.1%), 영동군(25.5%), 충남 청양군(30.6%), 서천군(28.5%), 전북의 임실군(35.1%), 고흥군(35.2%), 보성군(33.8%), 함평군(33.1%), 신안군(34.8%), 경남의 의령군(34.5%), 합천군(34.9%)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고령기의 비중이 낮은 지역은 서울시와 경기도, 광역시 지역이다. 초고령기(85세 이상) 인구분포 역시 고령기 인구 분포와 유사한 구조로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 비중이 낮은 반면 농가지역에 인구 비중이 높다. 초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 분포 중 비중은 대체로 1% 내외 수준이다. 초고령인구의 비중이 2.5% 이상으로 높은 지역은 전북 순창군(3.1%), 전남 곡성군(2.7%), 구례군(2.7%), 고흥군(3.4%), 보성군(2.9%), 장흥군(2.7%), 경북 군위군(2.9%), 의성군(3.0%), 경남 합천군(2.7%) 등으로 나타난다.

시군구별 생애주기 집단의 인구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0~5세) 인구 분포는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 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비중이 높고 반면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그 비중이 낮다. 둘째, 청소년기(13~19세) 인구 분포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 비중이 높는데, 특·광역시 내에서도 구별로 분포의 차이가 나타난다. 청소년기의 인구 분포는 학업환경과 일정부분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청년 인구(20~29세)의 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강원도와 경북지역 등으로 청년기 인구 분포가 학교 및 일자리와 관련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넷째, 고령기(65~84세) 및 초고령(85세 이상)인구의 분포 양상은 영·유아기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즉 고령 및 초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영·유아기 인구 비중이 낮으며, 고령 및 초고령 인구의 비중이 낮은 지역은 영·유아기 인구의 비중이 높은 인구분포의 대칭적

관계가 나타난다. 한편 아동기(6~12세)와 중년기(50~64세) 인구분포 역시 대칭적 관계가 나타난다. 아동기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중년기의 비중이 낮고, 아동기 비중이 낮은 지역은 중년기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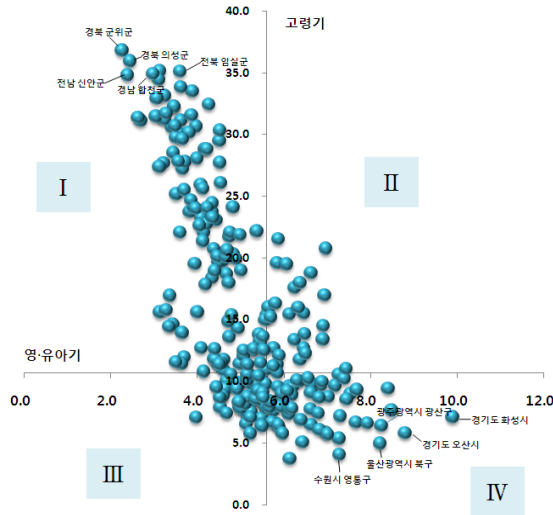
[그림 5-16]과 [그림 5-17]은 영·유아기와 고령기, 아동기와 중년기가 지역(시군구 단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X', 'Y'축에 도시한 것으로 'X'축과 'Y'축의 기준으로 각 생애주기 집단의 전국 평균 비중을 활용하였다. [그림 5-16]은 영·유아기 및 고령기의 시군구별 비중이다. 'X'축은 영·유아기의 비중이고, 'Y'축은 고령기의 비중이며, 'X', 'Y'의 교차점은 영·유아기의 전국 평균(5.6%) 및 고령기의 전국 평균(10.7%)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2차원 평면에 네 개의 영역이 도시되는데, 좌측 상단(제 I 영역)은 고령기 비중이 높고, 영·유아기 비중은 낮은 지역, 우측 상단(제 II 영역)은 고령기 비중과 영·유아기 비중이 모두 높은 지역, 좌측 하단(제 3 영역)은 영·유아기 비중과 고령기 비중이 모두 낮은 지역, 우측 하단(제 4 영역)은 영·유아기 비중은 높고, 고령기 비중은 낮은 지역이다. 영·유아기 및 고령자 비중의 분포는 네 개 영역 중 대체로 '제 1영역'과 '제 3영역' 및 '제 4영역'에 많이 분포된다.

영·유아기의 비중 상위 지역은 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오산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울산광역시 북구 등으로 이들 지역은 영·유아기 비중이 10% 내외인 반면 고령기의 비중은 5% 내외로 매우 작은 수준이다. 반면 고령기 비중 상위 지역은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함천군 등으로 이들 지역은 고령기 비중이 35%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영·유아기 비중은 약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 그래프의 버블의 분포에서 발견되는 특이점은 영·유아기와 고령기 비중의 대칭 및 반비례성이다. 즉 고령기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영·유아기 비중이 낮고, 영·유아기 비중이 높은 지역은 고령기 비중이 낮게 분포하여 결과적으로 버블 분포에 두 인구집단 간 반비례 관계가 나타난다.

[그림 5-17]은 아동기 및 중년기 인구의 버블차트이다. 이 그래프에서 'X'축은 아동기의 비중이고, 'Y'축은 중년기의 비중이며, 'X', 'Y'의 교차점은 아동기의 전국 평균(8.0%) 및 중년기의 전국 평균(18.4%)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2차원 평면에 네 개의 영역이 도시되는데, 좌측 상단(제 1영역)은 중년기 비중이 높고, 아동기 비중은 낮은 지역, 우측 상단(제 2영역)은 중년기 비중과 아동기 비중이 모두 높은 지역, 좌측 하단(제 3영역)은 아동기 비중과 중년기 비중이 모두 낮은 지역, 우측 하단(제 4영역)은 아동기 비중은 높고, 중년기 비중은 낮은 지역이다. 아동기 및 중년기 비중의 분포는 네 개 영역 중 대체로 '제 1영역'과 '제 4영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아동기 비중 상위 지역은 대표적으로 충남 계룡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영통구 등으로 이들 지역의 아동기 비중은 10~12% 수준인 반면, 중년기 비중은 약 10% 수준이다. 반면 중년기 비중 상위 지역은 경북 의성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등으로 이들 지역의 중년기 비중은 25~30% 수준인 반면 아동기 비중은 약 4~5% 수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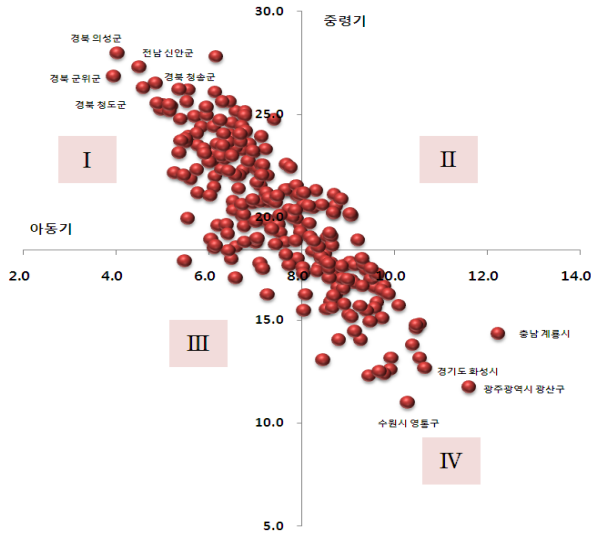




(단위: %)

주: X, Y 축의 교차점은 영유아기와 고령기 비중의 전국 평균값을 사용함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16] 지역별 영·유아기(0~5세) 및 고령기(65~84세) 인구 비중



(단위: %)

주: X, Y 축의 교차점은 아동기와 중년기 비중의 전국 평균값을 사용함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17] 지역별 아동기(6~12세) 및 중년기(50~64세) 인구 비중

지역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젊은층의 비중이 적고,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영·유아기의 비중이 낮다. 따라서 고령층과 영·유아기 및 아동기 비중은 반비례 관계를 보이게 된다. 특히 경북과 전북 일부 지역은 산업기반이 매우 희박하여 농업이 주를 이루고, 따라서 인구구조는 매우 고령화되었다. 반면 경기도 일부 지역과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일부 지역은 근로 및 자녀양육에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비교적 출산율이 높으며, 이와 연동되어 영·유아기 및 아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2. 출생 및 인구이동

인구센서스의 출생관련 항목은 ‘출생지’와 ‘거주지 이동’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출생지별 분포는 서울이 15.9%로 가장 높고, 경기(12.2%), 경북(9.5%), 전남(8.8%) 순으로 나타난다. <표 5-14>에 제시된 지역 범주별로는 서울 15.9%, 광역시 19.7%, 도 63.0%이다. 생애주기별 출생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청년기(20~29세)’로 24.0%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청년기 4명 중 1명은 서울에서 출생하였다는

<표 5-14> 생애주기별 출생지 분포

(단위: %)

생애주기		서울	광역시	도	기타	합계
출생	영·유아기 (0~5세)	19.8	25.4	54.0	0.7	100.0
교육, 노동시장, 결혼	아동기 (6~12세)	20.3	26.7	52.4	0.6	100.0
	청소년기 (13~19세)	22.8	28.2	48.3	0.6	100.0
	청년기 (20~29세)	24.0	26.2	48.4	1.5	100.0
결혼, 출산, 이혼	장년기 (30~49세)	16.3	18.4	64.4	0.9	100.0
	중년기 (50~64세)	8.9	14.2	76.1	0.9	100.0
빈 등지	고령기 (65~84세)	5.7	9.8	78.7	5.8	100.0
사망	초고령기 (85세이상)	4.6	8.7	77.1	9.6	100.0
전체		15.9	19.7	63.0	1.5	100.0

주: ‘기타’는 출생지가 국외나 북한인 경우나 알 수 없는 시군구인 경우이며, ‘태어난 곳(출생지)’은 태어날 당시 어머니가 살고 계셨던 곳을 의미함.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의미이다. 그러나 이후 출생자인 ‘청소년기(13~19세)’와 ‘아동기(6~12세)’, ‘영·유아기(0~5세)’의 서울 출생 비중은 각각 22.8%, 20.3%, 19.8%로 청년기에 비해 서울 출생 비중이 점차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 출생 비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데, 85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 서울 출생 비중은 4.6%에 불과하다. 한편 광역시 출생 비중은 청소년기(13~19세)가 가장 높으며(28.2%), 연령이 증가할수록 광역시 출생 비중은 크게 감소한다. 한편 도 지역 출생 비중은 청년기와 청소년기에 감소하였다가, 아동기와 영·유아기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고령자일수록 서울 및 광역시 출생 비중보다 도 지역 출생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 세대에서 역전되어 청소년기, 아동기, 영·유아기의 경우 서울 및 광역시 출생 비중은 증가한 반면, 도 지역 출생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생애주기별 출생지 분포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급격히 산업화되면서 도시로 인구이동이 가속화되었으나, 최근 수년 사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은 정체된 상황이다. 한편 초혼연령이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특히 젊은 맞벌이의 비중이 높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출산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출생자일수록 서울 출생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도 출생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은 지역별 출산율의 변화 양상과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겠다.

<표 5-15>는 생애주기별 거주지 이동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거주지 이동 패턴은 출생지와 현재 거주지, 1년 전 거주지와 5년 전 거주지의 네 가지 정보를 조합하여 생성하였다. 인구이동의 유형은 보통 1차 이동, 정착(定着)이동, 2차 이동(반복이동), 귀환(歸還)이동으로 분류한다. ‘비이동자’는 출생지와 현거주지가 같은 경우로 출생 이후 한 번도 이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1차 이동자’는 출생지와 5년 전 거주지 및 1년 전 거주지는 같으나, 현재 거주지가 다른 경우를 말하며, ‘2차 이동자’는 2009년~2010년 사이에 거주지 이동을 하였으며, 출생 이후 현재까지 2회 이상 이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 ‘정착 이동자’는 출생부터 조사시점 1년 전 기간까지 출생지를 떠나 1회 이상 이동을 하였으나, 2009~2010년 사이에는 이동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귀환 이동자’는 출생부터 현재까지 2회 이상 이동을 경험하여 출생지와 현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출생지로 다시 돌아간 경우를 의미한다(최진호, 2012).

거주지 이동유형별 분포를 보면, ‘정착 이동’(1번 이상 이동+최근 1년 사이 이동 없음)의 비중이 54.6%로 가장 높으며, ‘비이동’(출생지와 현거주지가 동일함)의 비중은 35.9%, ‘2차 이동’(2번 이상 이동+최근 1년 사이 이동)는 4.1%, ‘귀환 이동’(2번 이상 이동하고 출생지로 돌아감)은 2.3%, ‘1차 이동’(최근 1년 사이 이동) 1.2% 순으로 나타난다. 생애주기별 이동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비이동자’는 아동기(62.4%)→ 청소년기(55.8%)→ 초고령기

〈표 5-15〉 생애주기별 거주지 이동유형 분포(6세 이상)

(단위: 인구수, %)

생애주기		비이동자	1차 이동	2차 이동	정착 이동자	귀환 이동자	무응답	기타	합계
교육 노동시장 결혼	아동기 (6~12세)	62.4	1.4	2.2	29.4	3.4	1.2	0.0	100.0
	청소년기 (13~19세)	55.8	2.7	2.8	35.1	2.5	1.1	0.0	100.0
	청년기 (20~29세)	38.5	3.0	7.5	44.8	3.6	2.4	0.0	100.0
결혼, 출산, 이혼	장년기 (30~49세)	27.2	0.7	5.0	62.9	2.6	1.6	0.0	100.0
	중년기 (50~64세)	27.4	0.3	2.7	67.4	1.2	1.0	0.0	100.0
빈 등지	고령기 (65~84세)	36.1	0.3	1.8	55.3	0.9	5.5	0.0	100.0
사망기	초고령기 (85세이상)	40.4	0.8	2.1	47.9	1.1	7.5	0.1	100.0
전체		35.9	1.2	4.1	54.6	2.3	2.0	0.0	100.0

주: 1. 거주지 이동 유형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비이동자: 출생지와 현거주지가 같은 경우

1차이동자: 출생지, 5년 전 거주지, 1년 전 거주지는 같으나 현 거주지가 다른 경우

2차이동자: 2009~2010년 사이에 이동을 하였고 출생부터 현재까지 적어도 2번 이상 이동을 한 경우

정착 이동자: 출생부터 최근 1년 전 기간 중 출생지를 떠나 적어도 1번 이상 이동하였으나, 2009~2010년 사이에는 이동을 하지 않은 경우

귀환 이동자: 출생부터 현재까지 적어도 2번 이상 이동을 경험하여 출생지와 현거주지가 같아 출생지로 다시 돌아간 이동

2. 인구이동 조사대상은 6세 이상임 3. 이동의 지역 경계는 시군구 수준임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40.4%) 순으로 나타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이동 가능 기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적기 때문에 비이동의 비중이 높다. 한편 초고령(85세 이상) 세대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며, 도시로의 이동이 적었던 세대로 비이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정착 이동자’는 출생 후 1번 이상 이동하였으나, 최근 1년 사이에 이동이 없는 경우로 중년기(67.4%)과 장년기(62.9%)에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 시기는 전세 비중은 감소하고 자가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로 비교적 주거환경이 안정화되어 거주지가 정착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차 이동자’는 현재까지 2회 이상 이동하고, 최근 1년 사이에 이동한 유형

으로 청년기(7.5%)와 장년기(5.0%)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청년기(20~29세)는 학업과 구직 등으로 거주지 이동이 잦은 시기이며, 장년기(30~49세) 초입 또한 주거가 안정화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들 세대에서 2차 이동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1차 이동자’는 최근 1년 사이에 이동이 있었던 유형으로 청년기(3.0%)와 청소년기(2.7%)에서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귀환 이동자’는 출생 후 2번 이상 주거를 이동하다가 출생지로 돌아간 경우로 청년기(3.6%)가 다른 연령집단에서 비해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이동의 양은 감소하고 있으며, 시도 내 이동보다는 시도 간 이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총 인구이동의 양이 감소하면서 비이동자 비중은 커지고, 1차, 2차 및 귀환 이동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1차 이동자의 특성은 비교적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며, 2차 이동자는 관리직 및 전문직 종사 비중이 높다. 즉 전문직일수록 인구이동 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최진호, 2012). 생애주기별 거주지 이동유형 분포를 보면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1차 및 2차 이동은 젊은층에서 그 비중이 높으며, 정착 이동자는 장년기와 중년기에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보육

인구센서스에서는 2000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인구를 대상으로 아동보육에 관련된 항목을 조사하였다. 12세 이하 아동 중 낮 시간 동안 부모가 전적으로 돌보는 비율은 32.3%이며, 부모가 일부라도 돌보는 경우는 48.0%로 나타난다. 12세 이하 아동 인구는 영아기(0~2세), 유아기(3~5세), 아동기(6~12세)로 구분된다. 영·유아기(0~5세) 해당 인구 중 유치원, 어린이집·놀이방, 기타 보육시설, 학원(예체능 포함) 중 하나라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5-16>은 영·유아기(0~5세) 보육시설 이용 여부이다. 영아기(0~2세)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25.9%이며, 유아기(3~5세)는 75.3%임을 알 수 있다. 즉 영아(0~2세) 4명 중 1명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한편, 유아(3~5세) 4명 중 3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영·유아기의 보육시설 이용률을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영아기(0~2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서울 22.1%, 광역시 25.1%, 도 27.5%로, 서울이나 광역시보다 도 지역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더 높다. 한편 유아기(3~5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서울 70.8%, 광역시 76.3%, 도 76.2%로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표 5-16〉 영·유아기(0~5세) 보육시설 이용여부

(단위: 인구수, %)

		이용여부			이용률			합계	
		이용함		이용안함	서울	광역시	도		
0~5세	0~2세	342,034	25.9	977,987	74.1	22.1	25.1	27.5	100.0
	3~5세	997,689	75.3	328,049	24.7	70.8	76.3	76.2	100.0
전체		1,339,723	50.6	1,306,036	49.4	46.0	50.9	52.0	100.0

주: 낮 시간 동안 주된 양육자(두 개 복수응답) 중 유치원, 어린이집·놀이방, 기타 보육시설, 학원(예체능 포함등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용함'으로 정의함)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표 5-17〉 영·유아기(0~5세) 이용 보육시설 종류

(단위: %)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학원 (예체능 포함)		기타보육시설	
영·유아기	0~2세	1	0.0	338,219	25.6	4,075	0.3	-	0.0
	3~5세	353,940	26.7	622,516	47.0	11,880	0.9	30,882	2.3
전체		353,941	13.4	960,735	36.3	15,955	0.6	30,882	1.2

주: 응답항목 중 '기타'는 분석에서 제외/ 복수응답(두 개)으로 이용 보육시설의 합은 전체 이용합보다 큼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 46.0%, 광역시 50.9%, 도 52%로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다. <표 5-17>은 영·유아기의 이용 보육시설 종류이다. 0~2세 영아는 어린이집·놀이방 이용률이 25.6%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3~5세 유아기에는 유치원 비중이 높아져 어린이집·놀이방 47.0%, 유치원 26.7%, 기타 보육시설 2.3%, 학원(예체능 포함) 0.9% 순으로 나타난다.

<표 5-18>은 영·유아기(0~5세) 보육시설 이용 가구의 특성이다. 가구주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보면, 영아기(0~2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은 반면, 유아기(3~5세)는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다. 가구주 교육수준별 보육시설 이용률은 영아기와 유아기 모두 고졸 이하에서 비중이 높으며, 주택 점유 형태별로는 자가보다 월세와 사글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다. 한편 거주지별로는 서울보다 광역시 및 도지역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다.



<표 5-18> 영·유아기(0~5세) 보육시설 이용 가구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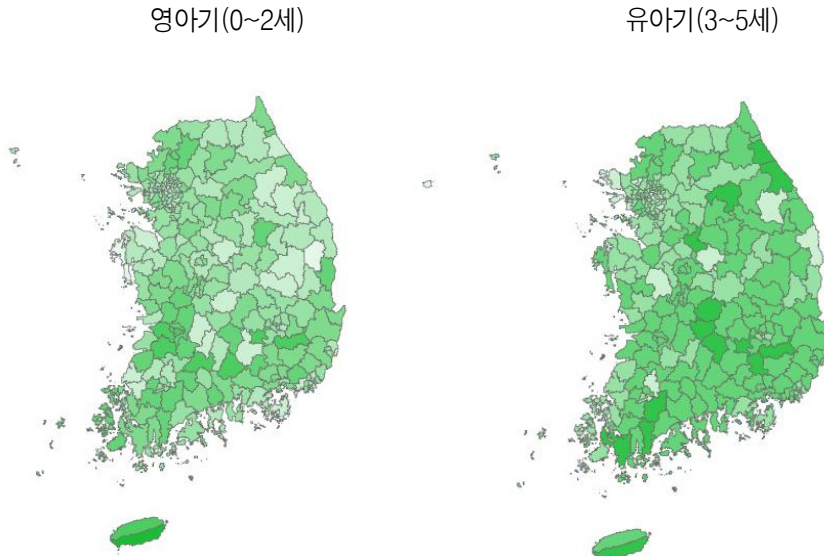
(단위: %)

	0~2세(영아기)			3~5세(유아기)		
	이용함	이용안함	합계	이용함	이용안함	합계
가구주 연령						
15~29세	24.5	75.5	100.0	80.8	19.2	100.0
30~39세	26.1	73.9	100.0	76.4	23.6	100.0
40~49세	28.1	71.9	100.0	72.6	27.4	100.0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이하	24.6	75.4	100.0	72.3	27.7	100.0
고졸이하	29.0	71.0	100.0	77.1	22.9	100.0
대졸이하(2년제 포함 중퇴 등 포함)	24.9	75.1	100.0	74.9	25.1	100.0
대학원(석사, 박사)	22.6	77.4	100.0	72.0	28.0	100.0
점유형태						
자가	25.0	75.0	100.0	74.4	25.6	100.0
전세	23.8	76.2	100.0	74.4	25.6	100.0
월세	32.7	67.3	100.0	79.3	20.7	100.0
사글세	38.6	61.4	100.0	78.7	21.3	100.0
무상(관사, 자택 등)	27.5	72.5	100.0	76.8	23.2	100.0
거주지						
서울	22.1	77.9	100.0	70.8	29.2	100.0
광역시	25.1	74.9	100.0	76.3	23.7	100.0
도	27.5	72.5	100.0	76.2	23.8	100.0

주: 개인 표본자료(보육시설 이용여부) + 가구 표본자료(가구주 연령 및 교육수준, 주택점유형태, 거주지) 연계하여 분석함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및 개인 표본자료

[그림 5-18]은 영·유아기 보육시설 이용률의 시군구별 분포이다. 우선 영아기(0~2세)의 시도별 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보면(<표 5-19> 참조), 제주도가 44.0%로 가장 높으며, 전북(33.9%), 광주광역시(31.1%), 대전(30.6%), 경남(28.7%) 순으로 나타난다. 젊은 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높고, 출산율이 대체로 낮은 수준인 서울 및 경기도는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크게 높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아기(0~2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의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 (48.4%)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18] 영·유아기(0~5세) 보육시설 이용률의 지역별 분포

<표 5-19> 영·유아기(0~5세) 보육시설 시도별 이용률

(단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영아기(0~2세)	25.9	22.1	22.2	24.1	23.1	31.1	30.6	23.0	26.5
유아기(3~5세)	75.3	70.8	76.3	76.6	72.1	77.1	78.9	80.9	73.0
	전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영아기(0~2세)	25.9	26.9	25.4	24.0	33.9	28.1	26.9	28.7	44.0
유아기(3~5세)	75.3	79.3	78.9	74.9	79.3	79.2	79.1	80.1	85.1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이며, 제주시 역시 42.7%로 다른 지역에 비해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 매우 높다. 전국 평균인 25.9%를 상회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시 및 6개 광역시는 대체로 평균 이하인 반면, 예외적으로 대전광역시의 대덕구(33.5%), 서구(31.7%), 유성구(30.9%)는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경기도에서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은 지역은 동두천시(34.8%), 양주시(37.6%), 포천시(34.6%) 등이며, 강원도는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충청지역 중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은 지역은 단양군(35.5%), 논산시

(33.9%) 정도이며, 전라지역은 전주시 완산구(39.4%), 전주시 덕진구(36.5%), 김제시(42.8%), 남원시(38.8%), 장흥군(37.5%) 등이다. 경상지역은 청도군(38.2%)과 고령군(38.3%), 영덕군(36.6%), 의령군(36.8%), 산청군(42.4%)에서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유아기(3~5세)의 시도별 보육시설 이용률은 제주가 85.1%로 가장 높으며, 울산 80.9%, 경남 80.1%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서울(70.8%) 및 경기(73.0%), 인천(72.1%)은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아기(3~5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의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 의 서귀포시(87.4%)이며, 제주시 역시 84.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전국 평균인 75.3%를 상회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의 서구(81.2%), 사하구(80.4%), 사상구(81.1%), 대구의 서구(82.6%), 달성군(83.3%), 대전의 대덕구(80.3%), 울산의 울주군(82.3%), 중구(81.7%)로 나타난다. 그 밖의 도 지역에서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의 동두천시(83.7%), 포천시(81.0%) 등이며, 강원도는 양양군(88.1%), 횡성군(86.1%), 강릉시(84.7%)로 나타난다. 충청지역은 영동군(86.8%)과 음성군(85.9%), 논산시(82.9%)에서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으며, 전북은 무주군(85.9%)과 순창군(83.6%), 전남은 화순군(86.4%)과 해남군(86.0%)에서 이용률이 높다. 경북은 고령군(87.9%), 청도군(86.2%), 경주시(84.6%)에서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으며, 경남은 창녕군(87.7%)과 거창군(85.7%) 등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지역별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다. 즉 거주 지역에 얼마나 보육시설이 보급되어 있느냐가 보육시설 이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보급률을 매우 높은 편으로, 매우 보편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요 측면 요인으로는 부모의 맞벌이 여부, 형제 수, 지역의 출산율 수준, 이용비용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터울이 적은 형제가 있을 경우(지역의 출산율 수준)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석된 바로는 맞벌이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지는 않다. 조부모나 친인척, 도우미에 의해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서울 및 경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율이 낮고 영·유아 비중이 적어 보육시설 이용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보육시설 이용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용’이다. 교육비는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데,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보육시설 이용비용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지역별 보육시설 이용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¹¹⁾.

<표 5-20>은 아동기(6~12세)의 사교육 이용여부이다. 아동기는 주로 초등학교 재학 시기로 여기에서 사교육 이용여부는 ‘방과 후 학교’나 ‘학원(예체능 포함)’ 이용으로

11) 그러나 인구센서스 항목에서 보육시설 이용비용 및 횟수를 알 수 없어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정의되었다. ‘방과 후 학교’는 저학년의 이용비중이 높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용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학원(예체능 포함)’은 고학년이 될수록 이용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 아동(6~12세)의 사교육 이용률은 51.6%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역별 이용률은 서울 44.1%, 광역시 52.6%, 도 53.4%로 서울의 이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21>은 아동기의 이용 사교육 종류이다. 방과 후 학교는 14.1%, 학원(예체능 포함)은 42.6%로 학원의 비중이 방과 후 학교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표 5-20> 아동기(6~12세) 사교육 이용여부

	이용여부		이용률			합계
	이용함	이용안함	서울	광역시	도	
6~12세 아동기	51.6	48.4	44.1	52.6	53.4	100.0

주: 방과 후 학교와 학원(예체능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교육시설 이용함으로 정의함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표 5-21> 아동기(6~12세)의 이용 사교육 종류

	방과 후 학교	학원(예체능 포함)
6~12세 아동기	14.1	42.6

주: 응답항목 중 ‘기타’는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표 5-22>는 사교육 이용가구의 특성이다. 가구주 연령별 사교육 이용률을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은 증가하여, 30대 가구주는 51.8%, 40대 가구주는 52.2%로 나타난다. 가구주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가 55.2%로 가장 높고, 대졸이하 50.0%, 초졸 이하 47.5%, 대학원 44.5%이다. 주택 점유형태별 사교육 이용률을 살펴보면, ‘월세’ 및 ‘사글세’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자녀의 사교육 이용률이 높으며, ‘전세’보다는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의 사교육 이용률이 높다. 주택 점유형태별 사교육 이용률의 차이는 사교육 이용률에 ‘방과 후 학교’가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월세’와 ‘사글세’의 경우 전체 중 자치하는 비중이 적으나, 사교육 중 ‘방과 후 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지별 사교육 이용률은 서울 44.1%, 광역시 52.6%, 도 53.4%로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5-22〉 아동기(6~12세) 사교육 이용 가구의 특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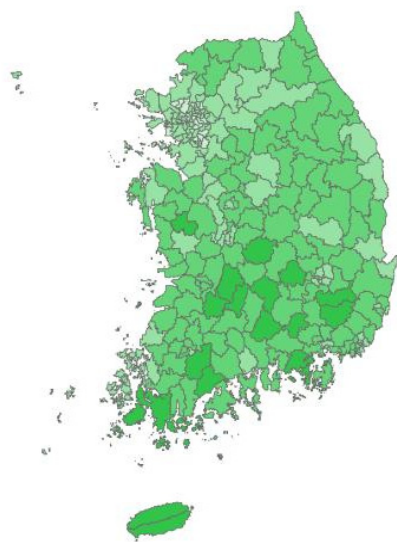
	사교육 이용여부	
	이용함	이용안함
가구주 연령		
15~29세	49.6	50.4
30~39세	51.8	48.2
40~49세	52.2	47.8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이하	47.5	52.5
고졸이하	55.2	44.8
대졸이하(2년제 포함, 중퇴 등 포함)	50.0	50.0
대학원(석사, 박사)	44.5	55.5
점유형태		
자가	52.1	47.9
전세	49.7	50.3
월세	53.0	47.0
사글세	55.1	44.9
무상(관사, 자택 등)	51.6	48.4
거주지		
서울	44.1	55.9
광역시	52.6	47.4
도	53.4	46.6

주. 개인 표본자료(보육시설 이용여부) + 가구 표본자료(가구주 연령 및 교육수준, 주택점유형태, 거주지) 연계하여 변수 생성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및 개인 표본자료

[그림 5-19]는 아동기(6~12세) 사교육 이용률의 지역별 분포이다. 우선 아동기의 시도별 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보면(<표 5-23> 참조), 제주도가 66.9%로 가장 높으며, 전남 60.2%, 전북 59.4% 순인 한편, 서울(44.1%)과 경기(47.6%)는 낮은 수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기의 사교육 이용률의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임실군(72.0%), 경남 거창군(70.8%), 전북 진안군(69.1%)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서울시는 모든 지역의 아동의 사교육 이용률이 평균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광역시 중 사교육 이용률이 전국 평균(51.6%)을 상회하는 지역은 부산시 사하구(58.3%), 기장군(58.2%), 영도구(57.5%) 등이며, 대구광역시는 서구(57.7%)와 달성군(61.1%)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남구(59.6%), 광산구(59.1%) 등에서, 대전광역시에서는

대덕구(55.4%)의 사교육 이용률이 높은 편이며, 울산광역시는 북구(57.4%)와 울주군(57.9%)의 사교육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도지역의 사교육 이용률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사교육 이용률은 낮은 편으로 동두천시(57.0%)와 이천시(56.5%), 안성시(58.9%) 등 인구밀도가 낮은 비도심 지역의 사교육 이용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서울과 경기도의 사교육 이용률의 지역별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은 밀도가 높고, 주택가격이 높은 도심 지역일수록 사교육 이용률이 오히려 낮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교육 이용 행태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이용률보다는 이용비용이다. 즉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를 고려한다면 서울 및 수도권의 사교육 이용률이 낮다 하더라도, 사교육 이용비용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교육 이용률에 방과 후 학교가 포함되었는데,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19] 아동기(6~12세) 사교육 이용률의 지역별 분포

<표 5-23> 아동기(6~12세) 사교육 시도별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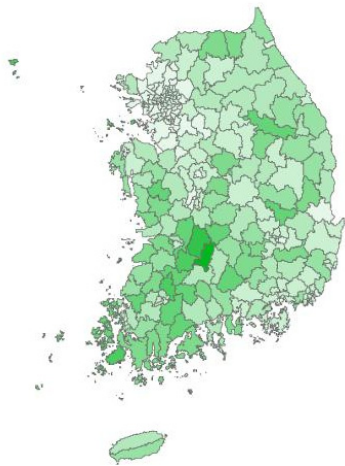
(단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아동기(6~12세)	51.6	44.1	53.9	52.6	47.8	58.2	50.0	55.6	47.6
	전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아동기(6~12세)	51.6	56.4	55.2	55.6	59.4	60.2	57.9	59.1	66.9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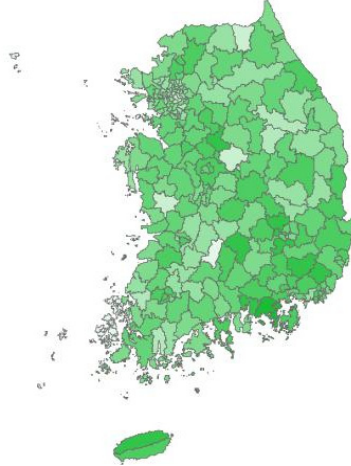
방과 후 학교가 일반 사교육 기관 이용비용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한 점을 감안한다면 비도심 지역의 높은 사교육 이용률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타 도 지역에서 사교육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강원도 양양군(64.1%), 고성군(62.4%), 충북 영동군(68.7%), 충남 서천군(60.3%), 전북 임실군(72.0%), 진안군(69.1%), 전남 화순군(68.7%), 경북 울릉군(70.6%), 경남 거창군(70.8%), 고성군(68.4%)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사교육 이용률은 ‘방과 후 학교’와 ‘학원’으로 이원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20] 아동기 ‘방과 후 학교’ 이용률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21] 아동기 ‘학원’ 이용률

<표 5-24> 아동기(6~12세) 방과 후 학교 및 학원 시도별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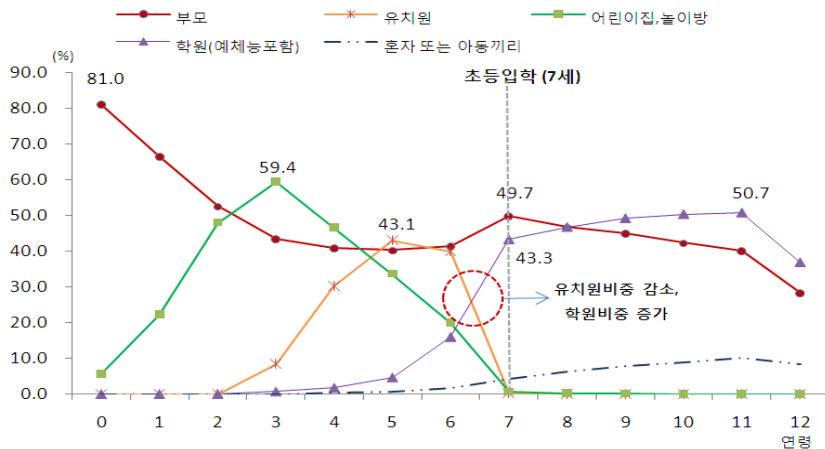
(단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방과 후 학교	14.1	12.5	14.9	13.6	11.9	17.7	12.9	16.6	9.9
학원	42.6	35.6	44.9	45.1	39.9	48.1	41.7	45.2	41.0
	전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방과 후 학교	14.1	17.8	15.3	18.4	22.0	23.6	16.4	15.6	21.6
학원	42.6	44.3	45.3	43.5	44.9	43.8	47.9	50.1	54.0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방과 후 학교’의 이용률은 전국 평균 14.1%로 이용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23.6%), 전북(22.0%), 제주(21.6%)이며, 비중이 낮은 지역은 경기도(9.9%), 인천(11.9%), 서울(12.5%)이다(<표 5-24> 참조). [그림 5-20]에도 뚜렷이 나타나듯이 방과 후 학교는 서울 및 경기도, 광역시 등에서는 이용 비중이 낮은 반면 전북, 전남, 제주 등에서 이용 비중이 높다. 한편 ‘학원’ 이용률은 전국 평균 42.6%로 이용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54.0%), 경남(50.1%), 광주(48.1%)이며, 비중이 낮은 지역은 서울(35.6%), 인천(39.9%), 경기(41.0%) 순으로 나타난다(<표 5-24> 참조). ‘학원’ 이용률의 시도별 분포 역시 ‘방과 후 학교’와 마찬가지로 서울 및 경기 지역이 낮은 편이나, 지역 간 격차는 방과 후 학교보다는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그림 5-21] 참조). ‘방과 후 학교’는 사설 학원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 지역에서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다. 한편 ‘학원’은 이용 비용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그 비용에 지역 간 격차가 있어 역시 서울 및 수도권의 이용률이 낮다.

[그림 5-22]는 만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기의 연령별 보육 상태 구성비이다. 부모가 돌보는 비중은 ‘0세’ 이후 점차 낮아지다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7세’에 소폭 증가한다. 초등학교 입학 후 부모의 돌봄 영역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이집·놀이방 이용 비중은 ‘3세’에 가장 높으며, 유치원은 ‘5세’에 가장 높고, 학원(예체능 포함) 이용 비중은 초등학교 입학 무렵인 ‘7세’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주된 것 두 가지의 복수응답 임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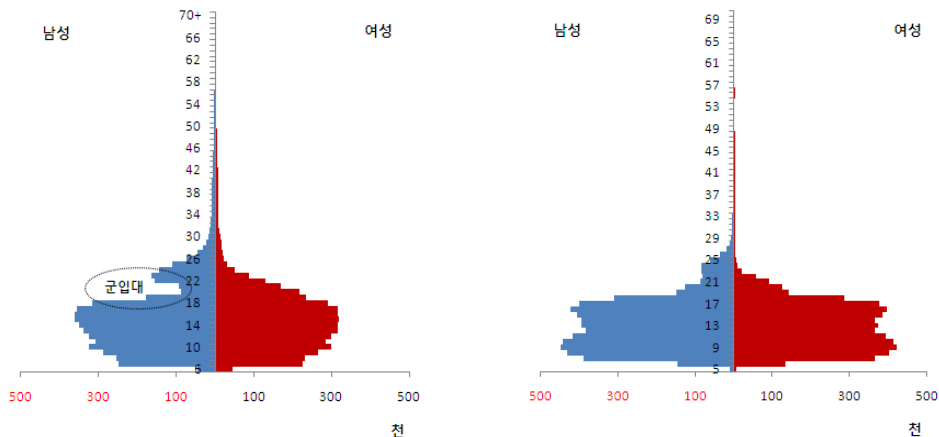
[그림 5-22] 영·유아기 및 아동기의 연령별 보육상태 구성비: 2010년



4. 교육성취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提高)와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은 계층상승(階層上昇)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온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회 맥락 하에서 이해된다. 우선 ‘학력’이 개인의 능력을 시현(示現)하는 객관적 지표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약적인 학력상승을 통한 계층상승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육’은 또한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원동력으로도 작용했다. 즉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교육은 국민통합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인력의 양성에도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교육수준은 비약적으로 상승해왔다. 우리나라 30대의 평균 교육년수는 14.0년(대학 2학년 수료 정도)으로 높으며, 성별 교육년수의 차이는 1980년 2.1년에서 2010년에 0.2년으로 감소하였다. 대학진학률은 정부의 신규 대학설립정책의 변화로 1990년 후반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대 후반에는 80%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해왔는데, 이는 1980년 초반부터 줄어든 출생아 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결과이다. 초·중·고등학교의 학령인구는 시차를 두고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재차 급감한 출생아 수의 영향으로 2010년 전후부터 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는 단계적으로 빠르게 감소하였다(「한국의 사회동향」, 2011).



주: 1990년에는 졸업, 재학, 중퇴 3개의 항목으로 조사되었되며(휴학은 중퇴로 조사됨), 2010년에는 졸업, 재학, 수료, 휴학 4개 항목으로 조사됨
 자료: 인구센서스 1990년,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23] 재학인구 피라미드: 2010년

[그림 5-24] 재학인구 피라미드: 1990년

[그림 5-23]과 [그림 5-24]는 인구센서스 표본자료로 작성된 재학(在學) 인구 피라미드이다. 2010년 재학인구의 성별 규모는 남성 515백만 명(52.3%), 여성 469백만 명(47.7%)으로 남성의 비중이 약 4.6%p 높다. 특히 남성은 군 입대의 영향으로 20대 초반에 급격한 함몰이 있으며, 20대 후반부터 재학인구의 규모와 비중이 여성보다 조금 크다. 한편 1990년의 재학인구 피라미드에서는 남성의 군입대로 인한 함몰이 발견되지 않는다. 휴학은 중퇴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성별 재학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남성은 576백만 명(52.7%), 여성은 517백만 명(47.3%)으로 2010년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규모와 비중이 여성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표 5-25>는 재학인구를 연령구간별로 집계한 것이다. 전체 재학인구는 약 984만 명으로 남성 515만 명, 여성 469만 명으로 남성이 52.3%, 여성이 47.7% 차지한다. 재학인구의 연령구간별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11~15세가 32.6%로 비중이 가장 크며, 16~20세는

<표 5-25> 재학인구 분포: 2010년

(단위: 명, %)

연령	재학인구		남성		여성	
	사례 수	비중	사례 수	비중	사례 수	비중
6~10세	2,224,241	22.6	1,160,496	22.5	1,063,745	22.7
11~15세	3,209,846	32.6	1,678,339	32.6	1,531,507	32.6
16~20세	2,671,926	27.2	1,297,522	25.2	1,374,404	29.3
21~25세	1,129,776	11.5	663,005	12.9	466,771	10.0
26~30세	278,496	2.8	186,914	3.6	91,582	2.0
31~35세	102,313	1.0	55,424	1.1	46,889	1.0
36~40세	85,944	0.9	42,335	0.8	43,609	0.9
41~45세	60,185	0.6	27,409	0.5	32,776	0.7
46~50세	41,862	0.4	19,240	0.4	22,622	0.5
51~55세	23,997	0.2	11,922	0.2	12,075	0.3
56~60세	8,390	0.1	4,562	0.1	3,828	0.1
61세이상	2,298	0.0	1,180	0.0	1,118	0.0
계(2010년)	9,839,274	100.0	5,148,348	100.0	4,690,926	100.0
계(1990년)	10,923,666		5,756,293		5,167,373	

자료: 인구센서스 1990년, 2010년, 개인 표본자료



27.2%, 6~10세는 22.6%, 21~25세는 11.5% 순으로 나타난다. 군입대의 영향으로 16~20세는 여성 29.3%, 남성 25.2%로 여성의 비중이 4.2%p 높으며, 21~25세는 여성 10.0%, 남성 12.9%로 남성이 2.9%p 높다.

<표 5-26>은 생애주기별 교육수준 분포이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청년기는 아직 최종 교육이 완료되지 않는 시점으로 교육수준 분포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최종교육이 완료되고, 노동시장 진입이 이뤄진 장년기 이후 교육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대졸자의 비중은 초고령기(85세 이상) 3.1%, 고령기(65~84세) 8.0%, 중년기(50~64세) 16.6%, 장년기(30~49세) 45.2%로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대졸자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다. 한편 대학원 비중 역시 초고령기(85세 이상) 0.3%, 고령기(65~84세) 1.2%, 중년기(50~64세) 3.6%, 장년기(30~49세) 6.5%로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5-27>은 출생코호트별 교육수준이다.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초졸 이하, 중졸 및 고졸의 비중은 감소하고, 대졸 및 대학원의 비중은 증가한다. 1956~1960년 출생 코호트의 대학 진학률은 21.1%이며, 이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1966~1970년 출생코호트는 40.3%, 1976~1980년 출생코호트는 63.3%, 1985~1990년 출생코호트는 83.4%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원 진학률 역시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증가하였는데, 1956~1960년 출생코호트는 대학원 진학률이 4.4%였으며, 1966~1970년 출생코호트는 6.0%, 1976~ 1980년 출생코호트는 7.4%로 증가하였다.

<표 5-26> 생애주기별 교육수준

		(단위: %)					
생애주기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합계
교육	아동기 (6~12세)	95.3	4.7	-	-	-	100.0
	청소년기 (13~19세)	0.5	38.9	47.3	13.3	-	100.0
	청년기 (20~29세)	0.3	0.9	18.0	77.0	3.8	100.0
노동시장 진입 결혼 및 출산	장년기 (30~49세)	1.9	4.6	41.8	45.2	6.5	100.0
	중년기 (50~64세)	20.7	21.5	37.6	16.6	3.6	100.0
빈 등지	고령기 (65~84세)	60.9	14.6	15.3	8.0	1.2	100.0
사망	초고령기 (85세 이상)	87.5	4.9	4.3	3.1	0.3	100.0
전체		20.5	12.1	31.4	32.3	3.7	100.0

주: 각 학교급의 재학, 휴학, 수료, 졸업을 포함
자료: 인구센서스 1990년, 2010년, 개인 표본자료

〈표 5-27〉 출생코호트별 교육수준

(단위: %)

출생코호트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합계
1956~1960년생	11.5	18.9	44.1	21.1	4.4	100.0
1961~1965년생	4.8	10.5	47.8	31.6	5.3	100.0
1966~1970년생	1.3	4.2	48.2	40.3	6.0	100.0
1971~1975년생	0.6	1.8	41.2	49.1	7.3	100.0
1976~1980년생	0.4	1.1	27.9	63.3	7.4	100.0
1981~1985년생*	0.3	1.0	20.3	72.8	5.7	100.0
1985~1990년생**	0.3	0.9	14.4	83.4	1.1	100.0
전체	2.9	5.8	36.4	49.4	5.5	100.0

주: * 최종학력 미완료 상태임(2010년, 26세~30세), **최종학력 미완료 상태임(2010년, 20세~25세)
 자료: 인구센서스 1975~2010년, 전수자료

<표 5-28>은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대졸 이상 비중이다. 먼저 남성의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대졸 이상 진학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1956~1960년 출생코호트는 25~29세에 대졸 이상 비중이 18.1%였으나, 30~34세에 도달 시엔 27.0%, 35~39세에는 31.4%로 증가한다. 1966~1970년 출생코호트는 25~29세에 대졸 이상 비중이 35.2%였으나, 30~34세에 도달 시엔 43.3%, 35~39세에는 48.6%로 증가한다. 1976~1980년 출생코호트는 대졸 이상의 비중이 매우 상승하여 25~29세에 대졸 이상 비중이 50.8%였으나, 30~34세에 도달 시엔 62.0%로 상승한다.

여성의 경우 1956~1960년 출생코호트는 25~29세에 대졸 이상 비중이 10.2%였으나, 30~34세에 도달 시엔 12.1%, 35~39세에는 14.3%로 증가한다. 1966~1970년 출생코호트는 25~29세에 대졸 이상 비중이 30.1%였으나, 30~34세에 도달 시엔 32.3%, 35~39세에는 36.3%로 증가한다. 1976~1980년 출생코호트는 대졸이상의 비중이 매우 상승하여 25~29세에 대졸이상 비중이 59.1%였으나, 30~34세에 도달 시엔 61.4%로 상승한다. 출생코호트별 성별 대학 이상 진학률 추이는 살펴보면, 이른 출생코호트의 경우 남성의 대졸 이상 비중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이나, 1970년대 출생코호트의 경우 성별 격차가 사라지거나 여성의 대학 이상 진학률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림 5-25]와 [그림 5-26]은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대졸 이상 비중 변화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연령경과에 따라 대졸 이상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그 상승폭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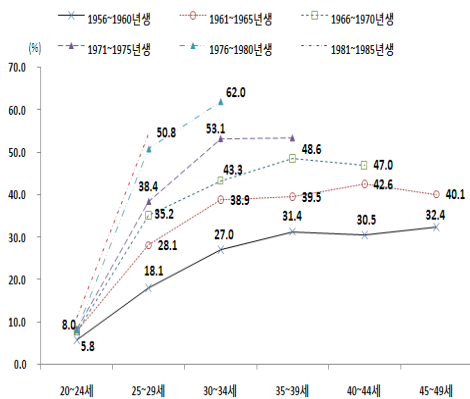


〈표 5-28〉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대졸 이상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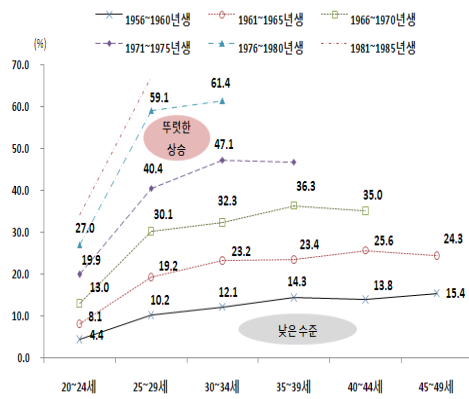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남성						
1956~1960년생	5.8	18.1	27.0	31.4	30.5	32.4
1961~1965년생	7.9	28.1	38.9	39.5	42.6	40.1
1966~1970년생	7.7	35.2	43.3	48.6	47.0	-
1971~1975년생	8.4	38.4	53.1	53.3	-	-
1976~1980년생	8.0	50.8	62.0	-	-	-
1981~1985년생	11.1	54.3	-	-	-	-
1986~1990년생	9.7	-	-	-	-	-
여성						
1956~1960년생	4.4	10.2	12.1	14.3	13.8	15.4
1961~1965년생	8.1	19.2	23.2	23.4	25.6	24.3
1966~1970년생	13.0	30.1	32.3	36.3	35.0	-
1971~1975년생	19.9	40.4	47.1	46.6	-	-
1976~1980년생	27.0	59.1	61.4	-	-	-
1981~1985년생	34.2	67.2	-	-	-	-
1986~1990년생	32.7	-	-	-	-	-

주: 대졸이상은 초대졸 이상(대학원 포함)의 비중임
 자료: 인구센서스 1975~2010년, 전수자료



자료: 인구센서스 1975~2010년, 전수자료

[그림 5-25]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대졸 이상 비중 변화: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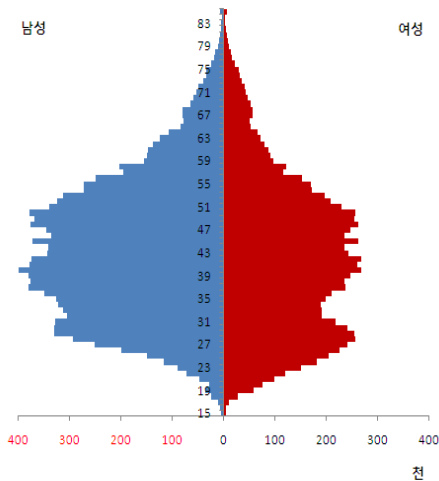
자료: 인구센서스 1975~2010년, 전수자료

[그림 5-26]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대졸 이상 비중 변화: 여성

5. 노동시장 진입과 근로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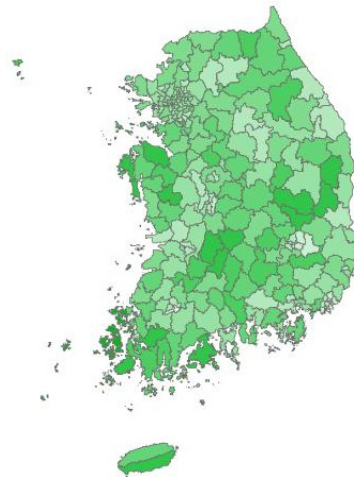
최종학교 졸업 후에는 초직을 획득하게 되며, 노동시장 진입(進入)과 함께 근로생애(勤勞生涯)가 시작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는 청년실업(青年失業)이다. 이는 OECD 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들 중에서 특별히 더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과 고용현황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온 것은 분명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고령 취업자에게 그러하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높고, 실질적인 은퇴시점이 늦은 것은 높은 비임금근로자 비중에 기인한 바가 크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과 이들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 역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27]은 취업 인구 피라미드이다. 취업 구조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30대 초·중반 여성의 함몰과 고령층 노동인구의 두터운 구조이다. 시군구별 고용률 패턴을 살펴보면 서울시 및 광역시는 젊은층 인구가 많고, 구직자가 많아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반면, 농업 기반 지역은 노령층 인구가 많고,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다는 특성이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27] 취업 인구 피라미드: 2010년



주: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그림 5-28] 고용률 시군구별 분포: 2010년



발견된다. 센서스 자료에서 나타나는 취업 인구규모나 고용률의 시군구별 분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력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유사하다.

<표 5-29>는 취업 인구의 성별 분포이다. 청소년기(15~19세)는 아직 노동시장 진입 이전 상태로 취업 인구의 비중은 1% 미만이다. 청년기는 최종 학교 졸업 후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로 전체 노동력 중 16.2%(남성 12.9%, 여성 20.6%)를 차지한다. 장년기(30~49세)는 핵심노동력(primary workers)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생활을 영위하는 시기로 전체 노동력 중 53.0%를 차지하며, 남성 노동력 중 55.0%, 여성 노동력 중

<표 5-29> 취업 인구 분포

(단위: 명, %)

연령	취업 인구(전체) 사례 수 비중	남성		여성			
		사례 수	비중	사례 수	비중		
청소년기	15~19세	189,260	0.9	83,214	0.6	106,046	1.1
청년기	20~24세	986,404	4.4	354,358	2.8	632,046	6.8
	25~29세	2,409,142	10.9	1,221,522	9.5	1,187,620	12.7
	소계	3,584,806	16.2	1,659,094	12.9	1,925,712	20.6
장년기	30~34세	2,634,573	11.9	1,599,788	12.5	1,034,785	11.1
	35~39세	2,951,079	13.3	1,817,663	14.2	1,133,416	12.1
	40~44세	3,116,484	14.0	1,839,962	14.3	1,276,522	13.6
	45~49세	3,067,048	13.8	1,801,454	14.0	1,265,594	13.5
	소계	11,769,184	53.0	7,058,867	55.0	4,710,317	50.3
중년기	50~54세	2,695,681	12.1	1,630,162	12.7	1,065,519	11.4
	55~59세	1,734,758	7.8	1,074,077	8.4	660,681	7.1
	60~64세	1,062,279	4.8	666,437	5.2	395,842	4.2
	소계	5,492,718	24.7	3,370,676	26.3	2,122,042	22.7
고령기	65~69세	656,883	3.0	385,810	3.0	271,073	2.9
	70~74세	433,052	2.0	233,359	1.8	199,693	2.1
	75~79세	198,165	0.9	103,571	0.8	94,594	1.0
	80~84세	52,371	0.2	27,404	0.2	24,967	0.3
	소계	1,340,471	6.1	750,144	5.8	590,327	6.3
초고령기	85세이상	13,219	0.1	6,726	0.1	6,493	0.1
계		22,200,398	100.0	12,845,507	100.0	9,354,891	100.0
평균연령		43.2		43.9		42.3	
중위연령		42.0		43.0		42.0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50.3%를 차지한다. 중년기(50~64세)는 서서히 노동시장에서의 퇴장 및 2차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이 발생하는 시기로 전체 노동력 중 24.7%, 남성 노동력 중에서는 26.3%, 여성 노동력 중에서는 22.7%를 차지한다. 즉 취업 인구 4명 중 1명은 중·고령층으로 구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기(65세 이상)는 노동시장에서 최종적인 은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시기로 전체 노동력 중 6.1%를 차지하며, 남성 노동력 중 5.8%, 여성 노동력 중 6.3%를 차지한다. 초고령기(85세 이상)는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기로 취업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0.1% 수준이다.

<표 5-30>은 출생코호트별 학력수준에 따른 고용률이다. 남성을 살펴보면, 1961~1965년 출생코호트 및 1956~1960년 출생코호트는 학력에 따른 고용률 차이가 최근 출생코호트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가령 195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의 경우, 중졸은 82.7%, 고졸 87.1%, 대졸 89.1%, 대학원 졸 94.4%로 대학원 이상 고등 교육자의 고용률이 매우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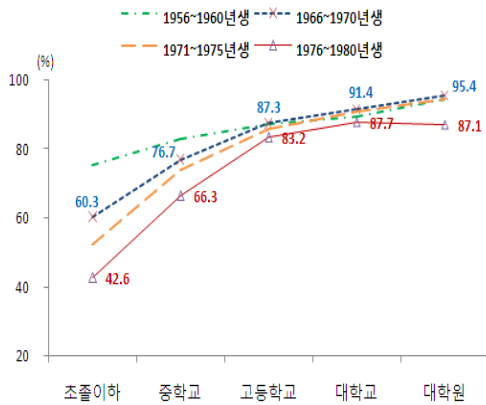
<표 5-30> 출생코호트별 학력수준에 따른 고용률

(단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남성					
1956~1960년생	75.2	82.7	87.1	89.1	94.4
1961~1965년생	70.4	81.5	88.2	91.0	95.0
1966~1970년생	60.3	76.7	87.3	91.4	95.4
1971~1975년생	52.4	73.8	85.5	90.6	94.3
1976~1980년생*	42.6	66.3	83.2	87.7	87.1
1981~1985년생*	37.3	64.6	78.5	66.4	51.9
1986~1990년생*	22.6	47.5	52.7	24.4	30.0
여성					
1956~1960년생	59.3	58.5	54.1	51.6	74.7
1961~1965년생	61.0	64.4	62.3	58.5	79.0
1966~1970년생	54.3	63.5	62.4	58.4	75.9
1971~1975년생	37.9	54.1	53.7	54.2	71.2
1976~1980년생*	30.0	42.6	48.4	58.7	71.0
1981~1985년생*	33.8	41.1	57.7	71.7	64.1
1986~1990년생*	28.9	38.5	61.0	38.9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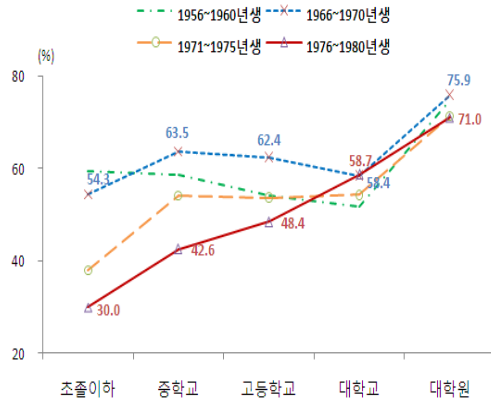
주: * 조사시점에 최종학력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임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29] 출생코호트별 학력수준에 따른 고용률: 남성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30] 출생코호트별 학력수준에 따른 고용률: 여성

수준이긴 하지만, 중졸 및 고졸과 대졸 간 고용률의 차이가 크지 않다. 196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 역시 중졸 81.5%, 고졸 88.2%, 대졸 91.0%, 대학원 95.0%로 대학원졸의 고용률이 다른 학력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대졸과 고졸 간 고용률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대학진학률이 상승하고,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크게 신장되면서 중졸과 고졸 이상의 고용률 간에 격차가 벌어진다. 197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의 경우 중졸의 고용률은 73.8%인 반면 고졸은 85.5%, 대졸은 90.6%로 중졸자의 고용률이 이 시기부터 크게 하락한다. 출생코호트별 학력수준에 따른 고용률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대학원 이상 학력 소지자의 프리미엄이 출생코호트와 관계없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전반적인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학력수준에 따라 고용률의 이중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196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까지 중졸 및 고졸의 고용률은 대졸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학원 이상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의 고용률은 75.9% 수준이다. 그러나 1970년대 출생코호트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경향은 사라진다. 즉 교육수준과 고용률 간 비례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상승 및 고학력 여성 노동시장이 두터워진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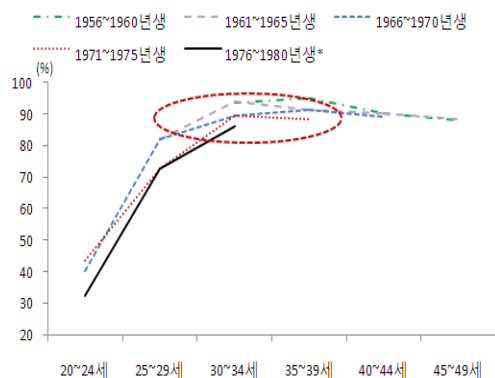
<표 5-31>은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고용률이다. 남성의 경우 출생코호트와 관계없이 노동시장 진입 후 꾸준히 높은 고용률을 유지한다. 195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는 35~39세의 고용률이 95.1%, 196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는 30대 전반이 94.1%, 196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는 30대 후반이 91.3%로 가장 높으며, 출생코호트와 상관없이 30대에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출생코호트별 연령에 따른 고용률에서 ‘M’자

〈표 5-31〉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고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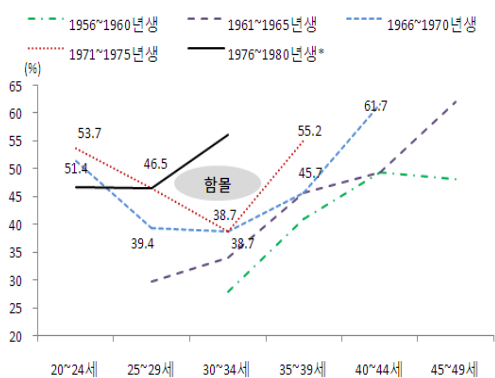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남성						
1956~1960년생	71.2	-	93.7	95.1	90.3	88.1
1961~1965년생	-	82.1	94.1	91.3	90.3	88.6
1966~1970년생	40.2	82.0	89.6	91.3	89.1	-
1971~1975년생	43.8	72.9	89.6	88.6	-	-
1976~1980년생*	32.4	72.9	86.3	-	-	-
1981~1985년생*	32.4	69.4	-	-	-	-
1986~1990년생*	29.9	-	-	-	-	-
여성						
1956~1960년생	53.0	-	28.0	41.1	49.3	48.2
1961~1965년생	-	29.8	34.1	45.7	49.3	62.0
1966~1970년생	51.4	39.4	38.7	45.7	61.7	-
1971~1975년생	53.7	46.5	38.7	55.2	-	-
1976~1980년생*	46.7	46.5	56.1	-	-	-
1981~1985년생*	46.7	67.6	-	-	-	-
1986~1990년생*	43.5	-	-	-	-	-

주: 1. 대졸 이상은 초대졸 이상(대학원 포함)의 비중
 2. *조사시점에 최종학력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해석상 주의 요망
 자료: 인구센서스 1975~2010년, 개인 표본자료



자료: 인구센서스 1975~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31]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고용률: 남성



자료: 인구센서스 1975~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32]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고용률: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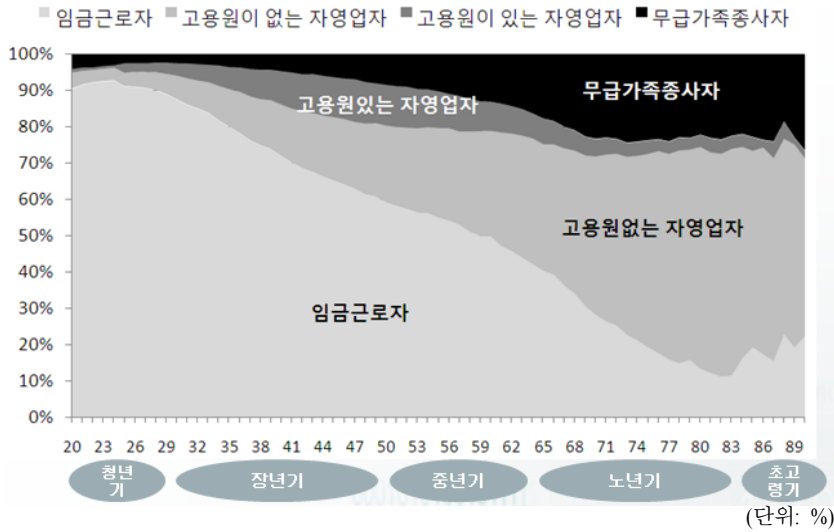


패턴이 뚜렷이 나타난다. 가령 196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의 경우 20대 전반에 51.4%였던 고용률이 20대 후반에 39.4%로 감소하였다가 30대 전반 38.7%, 30대 후반 45.7%로 다시 상승한다. 이 시기 여성의 평균 혼인연령을 고려한다면, 출산과 육아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7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 역시 20대 전반 고용률이 53.7%였던 것이 20대 후반에 46.5%, 30대 전반 38.7%로 감소한 후 30대 후반에 55.2%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총량적인 수준에서 취업 인구의 연령별 분포와 출생코호트별 고용률에 관해 살펴보았다.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은 주로 청년기의 최종학력을 이수한 시점에서 이뤄진다. 청년층은 정규교육 이수 후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연령계층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은 경기변화와 시장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한 구조이다. 또한 청년층은 이직률이 매우 높으며, 청년기 동안 취업·미취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불안정성을 보인다. 또한 청년층은 초직의 획득이 어렵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장기간의 구직기간을 거치며, 일자리에 정착하기까지 높은 불안정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이 처한 취약한 상황에 기인한다. 청년층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규교육 이외에 경력이 없으며, 축적된 인적 자본량이 적기 때문이다(박시내·심규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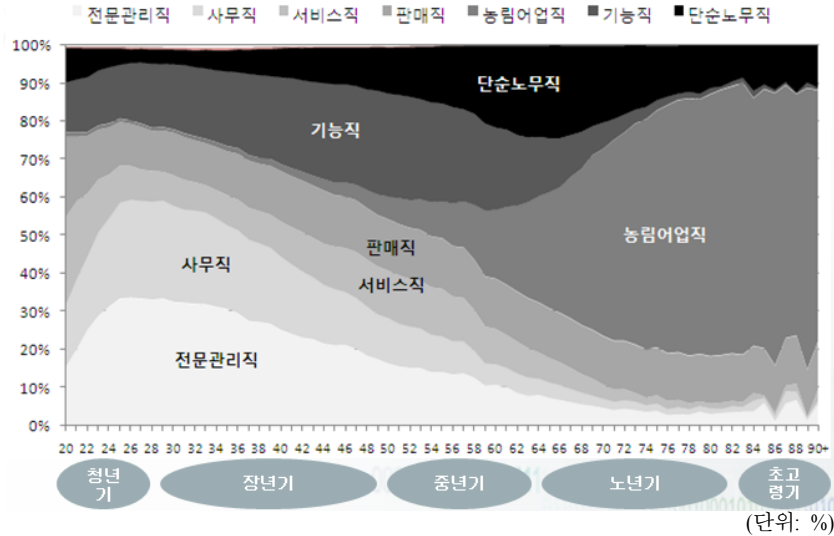
이 같은 청년기의 노동시장 특성은 직·산업 분포 및 종사상 지위 분포로 좀 더 명확히 짚어볼 수 있다. [그림 5-33]은 생애주기별 종사상 지위 분포이다. 청소년기(13~19세)에 경험한 경제활동은 정규 일자리로 보기에는 힘들며 단기간의 아르바이트가 다수일 것이다(임시직 임금근로자). 한편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이뤄지는 청년기(20~29세)에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 초직은 주로 임금부문으로 진입하는 것이 정형화된 패턴이기 때문이다¹²⁾. 그러나 노동시장의 핵심노동력(primary workers)이라고 할 수 있는 장년기(30~49세)에 들어서면서 연령 증가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와 고용주)는 크게 증가한다. 중년기(50~64세) 활발한 경제활동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이 서서히 이뤄지는 시기로 임금부문에서의 퇴직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한편 장년기와 중년기의 자영업자 및 무급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과도 무관하지 않다. 고령기(65~85세)에는 노동시장에서 완전한 퇴장이 이뤄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며, 자영업자 및 무급종사자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다음 그림에서 살펴보겠지만, 고령기의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은 이 연령계층의 높은 농어업직 비중에 기인한 것이다.

12) 청년기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임시직 비중이 높은 편이다.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33] 생애주기별 종사상 지위 분포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34] 생애주기별 직업분포

[그림 5-34]는 생애주기별 직업분포이다. 청소년기(13~19세)에는 서비스·판매직 및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다. 이 시기에는 정규 일자리보다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종학교 졸업 후 초직에 진입하는 청년기(20~29세)에는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의 화이트칼라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다. 사무직의 비중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하며, 전문·관리직 역시 그러하다. 직업구조에서 전문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젊은 세대의 학력수준이 크게 상승한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장년기(30~49세)에 들어서면서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화이트칼라 영역은 서서히 감소하며,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은 증가추세를 보인다. 중년기(50~64세)는 총량적인 수준에서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정점 이후 하락하는 시기로, 주된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이 서서히 이뤄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정년시기가 빠른 사무직 영역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는 한편 60세 이후 농어업직과 단순노무직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다. 고령기(65~84세)는 임금부문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완전한 은퇴가 이뤄지는 시점으로 직업 구성은 농어업직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고령 취업자는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6. 결혼 및 출산

노동시장 진입 후 결혼 및 출산의 생애과정이 시작된다. 우리나라 기혼인구를 생애 주기별로 살펴보면, 장년기(30~49세) 47.0%, 중년기(50~64세) 30.5%, 노년기(65~84세) 18.0% 순으로 나타난다. 기혼인구 분포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장년기(30~49세) 47.9%, 중년기(50~64세) 32.8%, 노년기(65~84세) 16.5% 순이며, 여성은 장년기(30~49세) 46.2%, 중년기(50~64세) 28.6%, 노년기(65~84세) 19.2% 순으로 나타난다.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청년기(20~29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 중 13.0%이나, 기혼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3.2%(남성 2.1%, 여성 4.1%)에 불과하다.

결혼행태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출생코호트의 생애과정상 결혼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5-33>, [그림 5-35], [그림 5-36]). 남성의 미혼율은 1956~1960년생의 경우 20~24세 도달 시 93.1%, 25~29세 50.7%, 30~34세 도달 시 13.9%로 나타난다. 반면 최근 출생 코호트일수록 연령 미혼율이 증가하는데, 1966~70년생의 30~34세 도달 시 미혼율은 27.4%, 1971~1975년생은 41.3%, 1976~1980년생은 50.2%로 미혼율은 급격히 증가한다. 여성의 경우 20~24세의 미혼율은 1956~1960년생 66.1%에서 1966~1970년생 80.5%, 1976~1980년생 88.7%로 크게 증가한다. 최근 코호트일수록 연령 경과에 따른 미혼율의 감소폭은 적다([그림 5-36]). 남성의 경우 '56~'60년 출생코호트는 30~34세 도달 시 미혼율이 13.9%에 불과했으나, '66~'70년 출생코호트는 27.4%, '76~'80년 출생코호트는 50.2%로 미혼율이 증가한다. 여성 역시 '56~'60년 출생코호트는 30~34세 도달 시 미혼율이 5.3%에 불과했으나, '66~'70년 출생코호트는 10.5%, '76~'80년 출생코호트는 29.1%로 미혼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32〉 생애주기별 기혼인구 분포

(단위: 명, %)

생애주기		전체		남성		여성	
		기혼 인구수	비중	기혼 인구수	비중	기혼 인구수	비중
성장	청소년기(15~19세)	5,023	0.0	783	0.0	4,240	0.0
성숙	청년기(20~29세)	903,694	3.2	273,630	2.1	630,064	4.1
	장년기(30~49세)	13,133,112	47.0	6,094,400	47.9	7,038,712	46.2
노쇠	중년기(50~64세)	8,528,780	30.5	4,170,180	32.8	4,358,600	28.6
	노년기(65~84세)	5,022,315	18.0	2,097,233	16.5	2,925,082	19.2
사망	초고령기(85세이상)	363,853	1.3	93,729	0.7	270,124	1.8
계		27,956,777	100.0	12,729,955	100.0	15,226,822	100.0

주: 기혼인구는 유배우, 사별, 이혼을 포함함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표 5-33〉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미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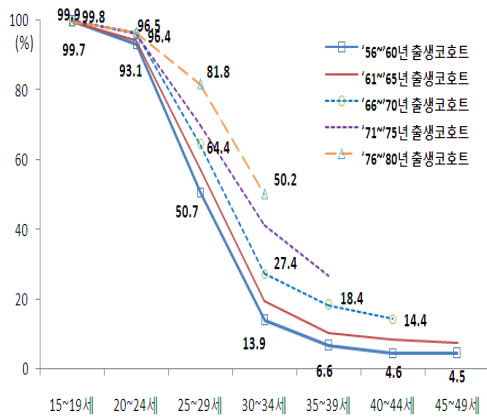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남성							
1956~60년생	99.7	93.1	50.7	13.9	6.6	4.6	4.5
1961~65년생	99.8	94.4	57.3	19.4	10.3	8.5	7.5
1966~70년생	99.9	96.4	64.4	27.4	18.4	14.4	-
1971~75년생	99.9	96.3	70.1	41.3	26.7	-	-
1976~80년생	99.8	96.5	81.8	50.2	-	-	-
1981~85년생	99.6	98.2	85.4	-	-	-	-
1986~90년생	99.8	98.8	-	-	-	-	-
여성							
1956~60년생	97.4	66.1	18.4	5.3	3.3	2.4	2.4
1961~65년생	98.2	72.1	22.1	6.7	4.1	3.6	3.3
1966~70년생	99.1	80.5	29.6	10.5	7.6	6.2	
1971~75년생	99.5	83.3	39.7	19.0	12.6		
1976~80년생	99.2	88.7	59.1	29.1			
1981~85년생	99.2	93.7	69.3				
1986~90년생	99.6	96					

주: 15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집계함

자료: 인구센서스 1975~2010년, 전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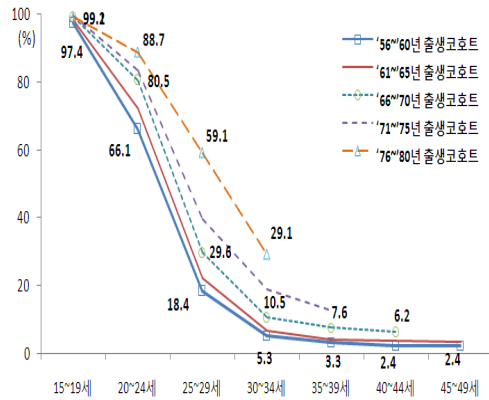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인구센서스 1975~2010년, 전수자료

[그림 5-35]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미혼률 변화: 남성



(단위: %)

자료: 인구센서스 1975~2010년, 전수자료

[그림 5-36]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미혼률 변화: 여성

<표 5-34>는 생애주기별 초혼연령이다. 2010년의 기혼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결혼한 경우 초혼연령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청년기 기혼인구의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20~24세의 평균 초혼연령은 20.8세(남성 21.2세, 여성 20.7세)이며, 25~29세는 25.2세(남성 25.8세, 여성 24.9세)로 나타난다. 장년기는 30~34세는 27.0세, 35~39세는 27.3세, 40~44세는 26.9세, 45~49세는 26.2세로 나타난다. 30대 후반 이후 기혼인구의 초혼연령은 낮아지는데, 중년기의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50대 전반은 27.3세, 50대 후반은 26.9세, 60대 전반은 27.2세로 나타난다(남성). 노년기의 초혼연령은 가장 낮은 수준인데, 60대 후반은 24.5세, 70대 전반은 23.5세, 70대 후반은 22.4세, 80대 전반은 21.7세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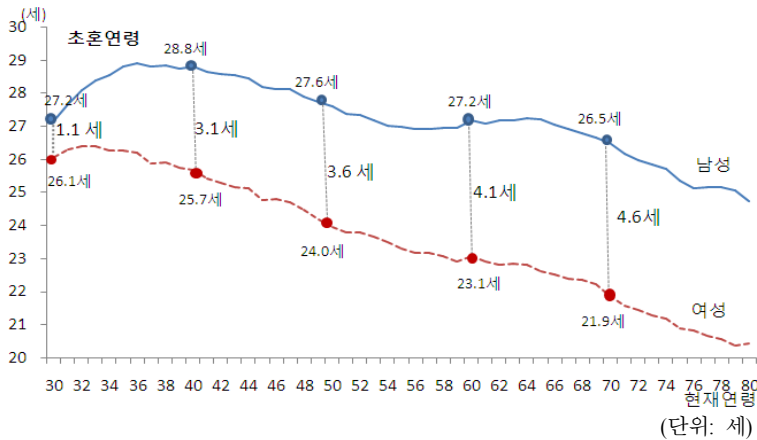
[그림 5-37]은 생애주기별 초혼연령 곡선이다. 부부의 연령패턴이 다양화되면서, 성별 초혼연령의 차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남성의 주요 연령별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30세는 27.2세, 40세는 28.8세, 50세는 27.6세, 60세는 27.2세, 70세는 26.5세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30세는 26.1세, 40세는 25.7세, 50세는 24.0세, 60세는 23.1세, 70세는 21.9세임을 알 수 있다. 각 연령별 초혼연령의 성별차이는 70세 4.6세에서 60세 4.1세, 50세 3.6세, 40세 3.1세, 30세 1.1세로 젊은 연령층일수록 초혼연령의 성별차이는 크게 감소한다.

<표 5-34> 생애주기별 초혼연령

(단위: %)

연령		전체		남성		여성	
		평균 초혼연령	비중	평균 초혼연령	비중	평균 초혼연령	비중
청년(青年)기	20~24세	20.8	0.3	21.2	0.1	20.7	0.5
	25~29세	25.2	2.9	25.8	2.0	24.9	3.7
	소계	24.8	3.2	25.5	2.1	24.4	4.1
장년(壯年)기	30~34세	27.0	8.1	28.1	7.4	26.3	8.7
	35~39세	27.3	11.9	28.8	11.9	26.0	11.8
	40~44세	26.9	13.3	28.6	13.9	25.3	12.8
	45~49세	26.2	13.8	28.0	14.7	24.6	12.9
소계	26.8	47.0	28.4	47.9	25.5	46.2	
중년(中年)기	50~54세	25.5	13.1	27.3	14.2	23.8	12.2
	55~59세	25.0	9.7	26.9	10.4	23.1	9.1
	60~64세	25.0	7.7	27.2	8.2	22.9	7.3
소계	25.2	30.5	27.2	32.8	23.3	28.6	
노년(老年)기	65~69세	24.5	6.4	26.9	6.5	22.4	6.4
	70~74세	23.5	5.6	26.1	5.3	21.5	5.8
	75~79세	22.4	3.9	25.2	3.2	20.7	4.4
	80~84세	21.7	2.1	24.8	1.5	20.3	2.7
소계	23.4	18.0	26.1	16.5	21.4	19.2	
초고령기	85세이상	21.4	1.3	25.1	0.7	20.1	1.8
계		25.6	100.0	27.5	100.0	23.9	100.0

주: 기혼인구는 유배우, 사별, 이혼을 포함함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37] 생애주기별 초혼연령 곡선 : 2010년



혼인 다음에 발생하는 생애과정은 출산이다. <표 5-35>는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추이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출생아 수는 감소한다. 인구센서스 자료에 나타나는 바에 따르면 출산이 거의 완결되는 35~39세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980년 3.4명에서 1990년 2.4명, 2000년 1.9명, 2010년 1.8명으로, 2000년대에 들어 2.0명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대만 해도 40대까지 출산이 이뤄졌다. 1980년 45~49세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4.7명으로 35세 이후에서 평균 1.3명 정도 추가적인 출산이 이뤄졌던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35세 이후 추가적인 출산의 발생은 미비한 수준으로 30대 후반에 거의 출산력이 완결됨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지난 50여 년간 연령대별 출산을 추이는 대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출산 주력 연령대였던 25~29세의 출산율이 가장 급속히 감소하였다. 한편 연령대별 출산율 추이엔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는 30~34세 보다는 25~29세 연령층이, 35~39세 보다는 20~24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높았으나, 이후 역전되어 20대 보다는 30대의 출산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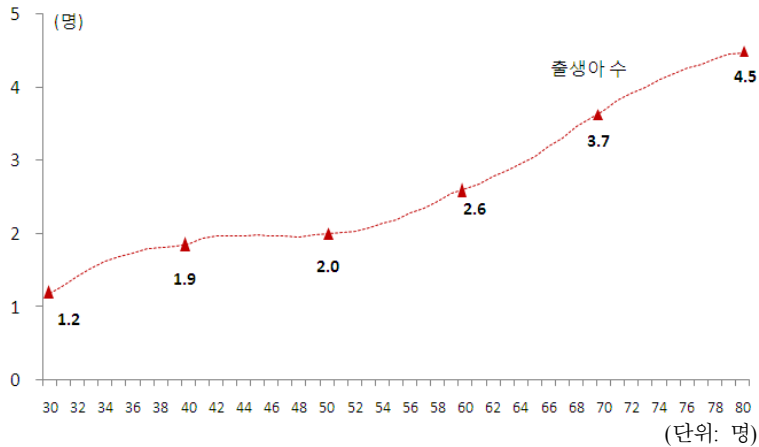
[그림 5-38]은 기혼여성의 출생아 수 곡선이다. 기혼여성의 주요 연령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30세는 1.2명, 40세 1.9명, 50세 2.0명, 60세 2.6명, 70세 3.7명, 80세 4.5명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생아 수 역시 증가한다. 출생아 수 추이는 가족계획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가족계획의 영향을 크게 받은 베이비 붐 세대 이후 평균 출생아 수는 2.0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35> 유배우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추이:1980~2010년

(단위: 명)

	1980	1985	1990	2000	2005	2010
15~19세	0.5	0.4	0.3	0.5	0.4	0.5
20~24세	0.9	0.9	0.7	0.7	0.7	0.8
25~29세	1.8	1.5	1.3	1.1	0.9	1.0
30~34세	2.7	2.3	1.9	1.7	1.5	1.4
35~39세	3.4	2.8	2.4	1.9	1.9	1.8
40~44세	4.2	3.4	2.8	2.0	1.9	1.9
45~49세	4.7	4.1	3.4	2.3	2.0	2.0

자료: 인구센서스 각 년도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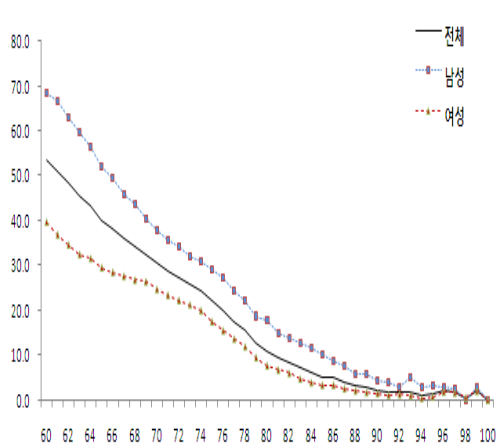
[그림 5-38] 기혼여성의 출생아 수 곡선 : 2010년

7. 빈 등지

개인 생애주기 단계는 성장(growth), 성숙(maturation), 노쇠(senescence), 해체(dissolution)의 네 단계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좀 더 미시적으로는 출생(birth), 교육(education), 노동시장 진입(job), 결혼(marriage), 출산(child-birth), 빈 등지(empty nest), 사망(death)의 7단계로 설명할 수 있겠다. 최종교육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결혼 및 출산 후 자녀 양육기를 거치면, 은퇴와 빈 등지 시기가 도래한다. 특히 자녀들이 취업이나 결혼으로 분가하면서 부모, 즉 노부부로만 구성된 가족 형태를 빈 등지 가구(Empty Nest Household)라고 하며, 여기서는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으로 1세대 가구 중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빈 등지 가구로 정의하였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1인 가구에 관한 연구는 많이 활성화되었으나, 빈 등지 가구에 관한 연구는 그만큼 조망(眺望)받지 못하였다. 빈 등지 가구는 부부단독 세대로 구성된 가구로 특히 형성된 원인이 중요할 것이며, 가족 또한 변화하는 유기체임을 감안하면 다른 가구 형태로의 변화 등이 분석에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특히 서구에서는 중년여성의 빈 등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¹³⁾, 이것이 여성의 생애과정에서 갖는 함의에 관한 다수의 논의가 있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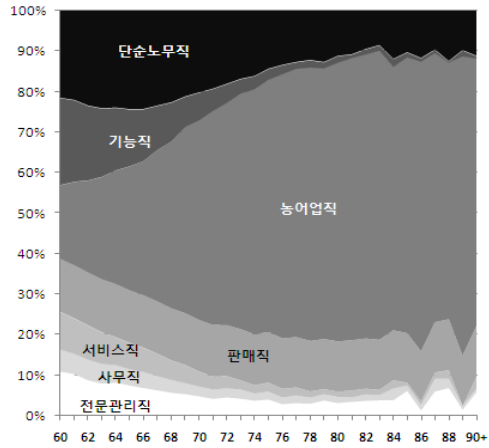
13) “The Empty Nest Syndrome: Myth or Reality?”, Jana L. Raup and Jane E. Myers(1989)



(단위: %)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39] 고령자(60세 이상) 고용률



(단위: %)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40] 고령자(60세 이상) 직업분포

한국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적인 은퇴연령은 55세이며, 대부분의 기업의 정년 시기도 55세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주된 노동시장에서의 1차적인 퇴장이 발생한다. 특히 60세 이상은 근로생애에서 본격적인 은퇴가 발생하는 시기로 노동시장에서의 근착도가 감소하면서, 급격한 이탈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5-39]와 [그림 5-40]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 및 직업분포이다. 60세의 고용률은 53.7%(남성 68.3%, 여성 39.7%) 수준이며, 이후 연령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65세는 40.1%(남성 52.0%, 여성 29.6%), 70세에는 30.6%(남성 38.0%, 여성 24.7%) 수준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정년제가 엄밀히 적용되는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농어업직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다. 고령자의 연령증가에 따른 농·어업직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취업자의 농·어업직 비중은 18.7%이나, 65세는 31.8%, 70세는 52.2%, 75세는 67.4%, 80세는 75.2%로 80세 취업자의 경우 4명 중 1명은 농·어업직에 종사한다. 즉 한국 고령층의 높은 수준의 고용률은 농·어업직에 힘입은 바 크다.

<표 5-36>은 60세 이상 가구의 세대구성 변화이다.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 중 1세대 가구의 비중은 1985년 18.3%에서 2010년 27.4%로 9.1%p 증가했으며, 1인 가구 역시 1985년 14.1%에서 2010년 24.4%로 10.3%p 증가하였다. 반면 2세대 가구는 1985년 42.5%에서 2010년 29.9%로 12.6%p 감소하였고, 3세대 이상 가구 역시 24.0%에서 17.9%로

6.1%p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가구규모 축소로 가구원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60세 이상 고령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는 세대(3세대 이상 가구)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36>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 및 세대구성

	1985	1995	2000	2005	2010
1세대 가구	18.3	28.5	23.2	26.0	27.4
2세대 가구	42.5	33.9	29.8	30.0	29.9
3세대 이상 가구	24.0	14.0	28.1	22.0	17.9
비혈연 가구	1.1	0.9	0.4	0.4	0.4
1인 가구	14.1	22.8	18.5	21.6	24.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센서스 각 년도

<표 5-37>은 빈 등지 가구와 자녀동거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및 주택유형과 가구원 평균연령이다. 빈 등지 가구의 자가 비중은 84.4%로 자녀 동거가구 81.4%에 비해 3.0%p 높으며, 전세 비중은 빈 등지 가구 8.1%, 자녀 동거가구 10.8%로 자녀 동거가구가 2.7%p 높다.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빈 등지 가구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58.2%로 자녀 동거가구 42.4%에 비해 15.8%p 높으며, 아파트 거주 비중은 32.1%로 자녀동거가구 43.1%에 비해 11%p 낮다. 한편 빈 등지 가구 및 자녀동거 가구의 가구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빈 등지 가구는 69.7세, 자녀 동거가구는 65.4세로 빈 등지 가구의 평균 연령이 4.3세 높다. 한편 한부모 가구(부, 모+미혼자녀)의 주택특성을 살펴보면, 자가의 비중은 65.4%로 빈 등지 가구나 자녀 동거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평균연령은 67.4세로 빈 등지 가구와 자녀 동거가구의 중간 수준이다.

그렇다면 빈 등지 가구와 자녀동거 가구의 생활비 원천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 부부단독 가구의 재정적인 독립성이 자녀동거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일까? <표 5-38>은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 중 빈 등지 가구와 자녀 동거가구의 생활비 원천을 비교한 것이다. 우선 단일수단 및 복합수단 비중을 살펴보면 빈 등지가 가구는 단일수단 비중이 57.2%, 자녀동거 가구는 31.4%, 복합수단 비중은 빈 등지 가구 42.8%, 자녀동거 가구는 68.6%로 자녀동거 가구가 빈 등지 가구에 비해 생활비 원천으로 보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생활비 원천 중 '본인 스스로 마련'의 비중은 빈 등지 가구는 68.4%, 자녀동거 가구는 75.7%로 자녀동거 가구가 7.3%p 높으며, 직업을 통한 소득의 비중은 빈 등지 가구 40.5%, 자녀동거 가구 51.8%로 자녀동거 가구의 비중이

〈표 5-37〉 빈 등지 가구 및 자녀동거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및 주택유형

(단위: 세, %)

	빈 등지 가구	자녀 동거가구	한부모 가구 (부, 모+미혼자녀)
점유형태			
자가	84.4	81.4	65.4
전세	8.1	10.8	16.4
월세	5.7	6.7	15.7
기타	1.8	1.1	2.4
주택유형			
단독주택	58.2	42.4	47.2
아파트	32.1	43.1	37.2
연립주택	2.9	4.1	4.1
다세대주택	4.7	8.4	9.7
기타	2.2	2.0	1.8
평균연령	69.7세 (남성69.8세, 여성66.8세)	65.4세 (남성65.5세, 여성64.3세)	67.4세 (남성 66.7세, 여성 67.6세)
전체	100.0	100.0	100.0

주: 1.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빈 등지 가구는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이며, 1세대 가구 중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3. 자녀 동거 가구는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 2세대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4. 한 부모 가구(부, 모 + 미혼자녀)는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이며, 2세대 가구 중 '부, 모+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11.3%p 높다. 한편 생활비 원천 중 자녀로부터의 이전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빈 등지 가구는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의 이전소득 비중이 높고, 자녀동거 가구는 함께 사는 자녀로부터의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다. 또한 빈 등지 가구는 국가, 지자체 등의 보조에 의한 이전소득의 비중이 6.9%로 자녀동거 가구(2.9%)에 비해 4.0%p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5-38>에 제시된 빈 등지 가구 및 자녀동거 가구의 생활비 원천의 항목별 차이는 이들 가구의 고유의 특성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부의 연령 차이에 기인한 바가 크다.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상 자녀와 부모세대의 완전한 분리가 주로 자녀의 결혼으로 성립 되는데, 자녀동거 가구는 아직 자녀의 출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빈 등지 가구에 비해 부부세대의 연령이 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비 원천 중 직업소득 응답비중이 높은 반면, 연금 및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 비중은 낮게 나타난다.

〈표 5-38〉 빈 등지 가구 및 자녀동거 가구의 생활비 원천

(단위: %)

	빈 등지 가구			자녀동거 가구 (부부+미혼자녀)			한 부모 가구 (부, 모+미혼자녀)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단일수단	57.2	61.8	52.6	31.4	37.0	24.5	31.9	16.6	46.0
본인 스스로 마련	68.4	71.4	64.8	75.7	79.0	69.5	43.8	59.3	38.7
본인, 배우자의 일, 직업	40.5	43.1	37.4	51.8	55.7	44.6	27.3	39.2	23.3
예금, 적금	7.8	7.0	8.8	7.3	6.3	9.1	5.4	6.3	5.2
공적연금	12.7	14.2	11.0	10.6	11.5	9.0	6.7	9.7	5.8
개인연금	2.7	2.5	2.9	2.5	2.4	2.5	1.6	2.0	1.5
부동산	4.5	4.5	4.6	3.4	3.1	4.1	2.6	1.8	2.9
주식, 채권, 펀드	0.1	0.1	0.1	0.1	0.1	0.1	0.1	0.1	0.1
함께 사는 자녀	0.0	0.0	0.0	14.6	12.7	18.2	33.9	24.2	37.1
따로 사는 자녀	23.3	20.8	26.3	5.2	4.2	7.0	10.6	5.9	12.2
친인척	0.2	0.2	0.3	0.3	0.2	0.3	0.7	1.0	0.6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	6.9	6.6	7.2	2.9	2.7	3.3	9.3	7.9	9.7
이웃, 종교사회단체 보조	0.3	0.3	0.3	0.2	0.2	0.2	0.5	0.5	0.5
기타	1.0	0.8	1.2	1.1	0.9	1.5	1.1	1.3	1.1
복합수단	42.8	38.2	47.4	68.6	63.0	75.5	68.1	83.4	54.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제5절 생애과정 주요특성 변화

1. 생애과정 주요특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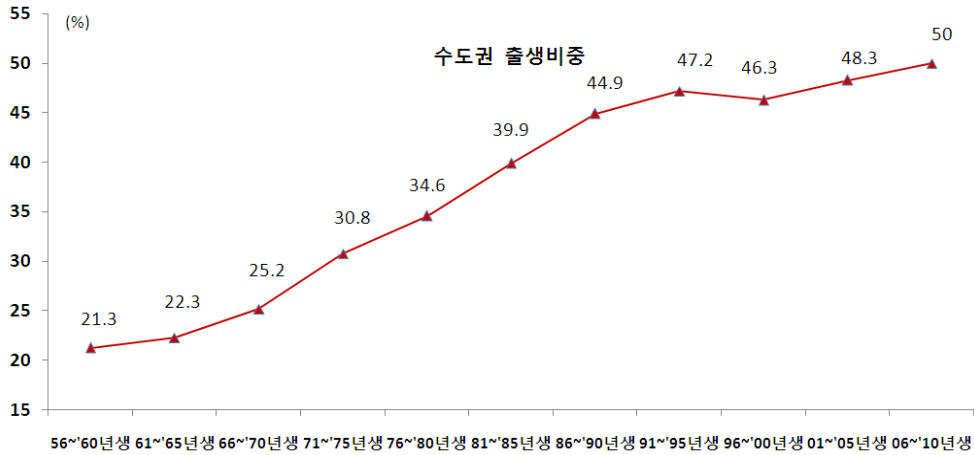
4절에서는 가족과 개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생애과정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5절에서는 개인의 생애과정의 주요 시계열 특성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39>는 출생코호트별 수도권 출생 비중이다. 출생코호트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출생한 비중은 195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는 21.3%, 196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는 25.2%, 197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는 34.6%, 198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는 44.9%, 199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는 47.2%로 꾸준히 증가하나, 199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는 46.3%로 소폭 감소한다. 한편 199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는 2010년 기준 10~14세로 이들이 출생한 시기는 외환위기가

<표 5-39> 출생코호트별 수도권 출생 비중

(단위: %)

	'56~'60 년생	'61~'65 년생	'66~'70 년생	'71~'75 년생	'76~'80 년생	'81~'85 년생	'86~'90 년생	'91~'95 년생	'96~'00 년생	'01~'05 년생	'06~'10 년생
수도권 출생비중	21.3	22.3	25.2	30.8	34.6	39.9	44.9	47.2	46.3	48.3	50.0

주: '96~'00년생은 2010년 기준 10~14세임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41] 출생코호트별 수도권 출생 비중 추이: '56~'60년생 - '06~'10년생

있었던 시기로, 이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낮은 출산율이 출생코호트별 수도권 출생 비중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0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부터는 수도권 출생비중은 다시 증가한다.

<표 5-40>은 인구이동 유형별 비중 변화이다. 시군구를 경계로 하여 1990년, 2000년, 2010년 기간 중 인구이동 추이를 살펴보았다. 비이동자의 비중은 1990년 36.7%에서 2000년 31.1%로 5.6%p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35.9%로 다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동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63.3%에서 2000년 67.2%로 3.9%p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62.2%로 5%p 감소하였다. 2000년과 2010년 기간 중 이동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1차 이동자, 2차 이동자, 정착 이동자, 귀환 이동자 모두 감소하였으며, 2차 이동자 및 정착 이동자는 각각 1.3%p, 3.6%p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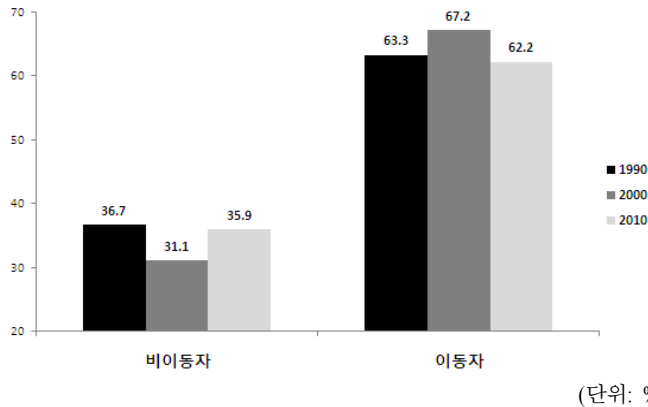
〈표 5-40〉 인구이동 유형별 비중 변화: 1990년, 2000년, 2010년

(단위: %)

	비이동		이동				기타
	비이동자	1차이동자	2차이동자	정착이동자	귀환이동자	계	
1990	36.7	1.6	5.7	54.0	2.0	63.3	0
2000	31.1	1.4	5.4	58.2	2.2	67.2	1.8
2010	35.9	1.2	4.1	54.6	2.3	62.2	2.0

주: 1. '비이동자'는 출생 이후 거주지 이동이 없는 경우이며, '이동자'는 한번이라도 거주지 이동이 있었던 경우임 2. 인구이동의 지역 경계는 시군구 임

자료: 인구센서스 1990, 2000, 2010년, 개인 표본자료



자료: 인구센서스 1990, 2000,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42] 이동자와 비이동자 비중 변화: 1990~2010년

우리나라 총 인구이동의 양은 감소하고 있으며, 시도 내 이동보다는 시도 간 이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총 인구이동의 양이 감소하면서 비이동자의 비중은 커지고, 1차·2차 및 귀환 이동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센서스 자료를 통해 1990년, 2000년, 2010년 기간 중 인구이동 패턴을 살펴본 결과 2000년까지는 인구 이동자 비중이 증가했으나, 2000년과 2010년 기간 중에는 이동자 비중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인구이동성이 둔화된 것이 확인된다.

<표 5-41>과 [그림 5-43]은 영·유아기의 보육시설 이용률 변화이다. 영아기(0~2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0년 7.5%에서 2005년 10.8%, 2010년 25.9%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8.5%에서 22.1%로 13.6%p 상승하였고, 광역시는 7.2%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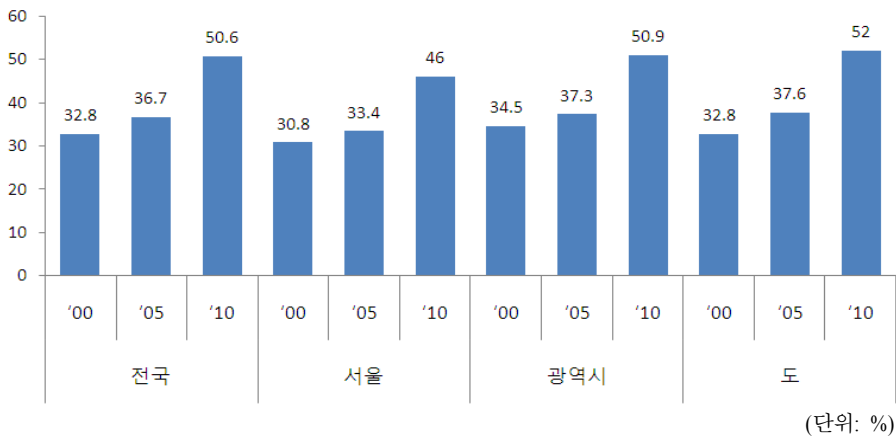
25.1%로 17.9%p, 도는 7.2%에서 27.5%로 20.3%p 상승하였다. 지난 10년간 영아의 보육 시설 이용률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울보다 광역시 및 도 지역의 이용률 상승 추이가 더 뚜렷하다. 한편 유아기(3~5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0년 55.9%에서 2005년 57.8%, 2010년 75.3%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52.0%에서 70.8%로 18.8%p 상승했으며, 광역시는 58.5%에서 76.3%로 17.8%p 상승하였고, 도는 55.9%에서 76.2%로 20.3%p 상승하였다. 영아기의 보육시설 이용률과 마찬가지로 유아기의 보육시설 이용률도 서울보다 광역시 및 도 지역의 이용률이 더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41> 영·유아기(0~5세) 보육시설 이용률 변화: 2000, 2005, 2010년

(단위: %)

		전국			서울			광역시			도			합계
		'00	'05	'10	'00	'05	'10	'00	'05	'10	'00	'05	'10	
영유아 기 (0~5세)	영아기 (0~2세)	7.5	10.8	25.9	8.5	12.4	22.1	7.2	9.7	25.1	7.2	10.7	27.5	100.0
	유아기 (3~5세)	55.9	57.8	75.3	52.0	51.9	70.8	58.5	59.2	76.3	55.9	58.9	76.2	100.0
전체		32.8	36.7	50.6	30.8	33.4	46.0	34.5	37.3	50.9	32.8	37.6	52.0	100.0

주: 1. 유치원, 어린이집·놀이방, 기타 보육시설, 학원(예체능 포함)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용함'으로 정의
 2. 보육시설 해당항목은 2000년은 유치원, 어린이집 및 기타 보육시설, 놀이방, 학원(예체능 포함)이며, 2005년과 2010년은 유치원, 어린이집·놀이방, 기타 보육시설, 학원(예체능 포함)임
 자료: 인구센서스 2000년, 2005년, 2010년, 개인 표본자료



자료: 인구센서스 2000년, 2005년,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43] 영·유아기 보육시설 이용률 변화: 2000, 2005, 2010년

<표 5-42>는 아동기의 사교육 이용률이다. 아동의 낮 동안 주된 돌봄 상태가 학원이나 방과 후 학교인 경우 사교육 시설을 이용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 아동기의 사교육 이용률은 2000년 51.9%, 2005년 49.6%, 2010년 51.6%로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 서울은 46.5%에서 44.1%, 광역시는 55.7%에서 52.6%로 각각 2.4%p, 3.1%p 소폭 감소한 한편, 도 지역은 51.8%에서 53.4%로 1.6%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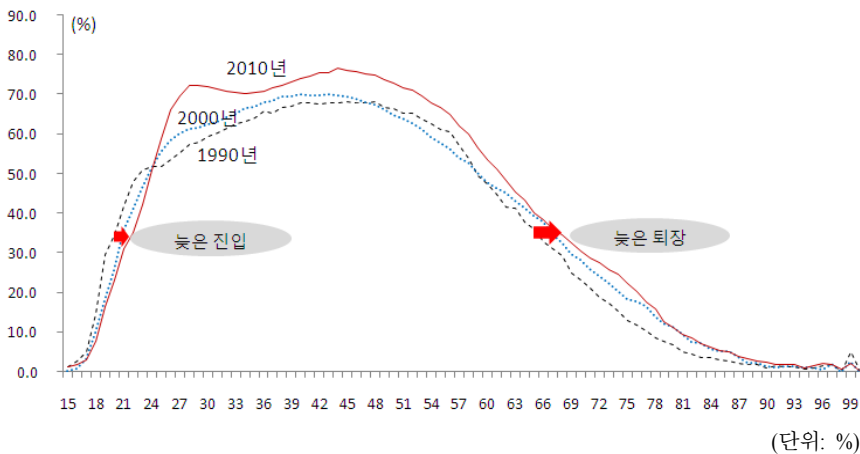
<표 5-42> 아동기(6~12세) 사교육 이용률: 2000, 2005, 2010년

(단위: %)

	전국			서울			광역시			도			합계
	'00	'05	'10	'00	'05	'10	'00	'05	'10	'00	'05	'10	
아동기(6~12세)	51.9	49.6	51.6	46.5	39.4	44.1	55.7	53.1	52.6	51.8	51.2	53.4	100.0

주 : 사교육 해당항목은 2000년과 2005년은 학원(예체능 포함)이며, 2010년은 학원(예체능 포함)과 방과 후 학교임
 자료 : 인구센서스 2000, 2005,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44]는 1990-2010년 기간 중 각 세별 고용률 추이이다. 노동시장 진입시기의 지연으로 전체 취업인구 중에서 청년기(20~29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6.4%에서 2000년 20.2%, 2010년 15.3%로 11.1%p 감소한 반면, 은퇴시기의 지연으로 전체 취업인구 중 중년기(50~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7.3%에서 2000년 18.1%, 2010년 24.7%로 7.4%p 증가하였다. 즉 1990~2010년 기간 중 청년기의 학업기간 연장 등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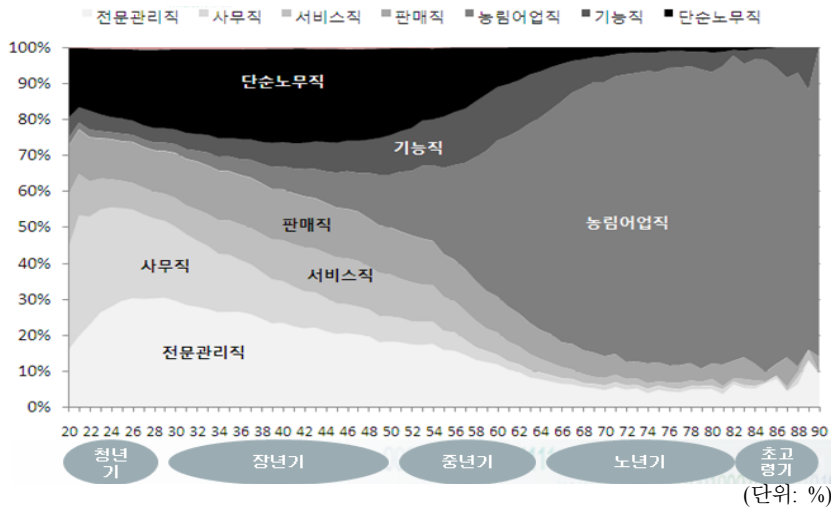
자료: 인구센서스 1990, 2000,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44] 각 세별 고용률 추이: 1990, 2000,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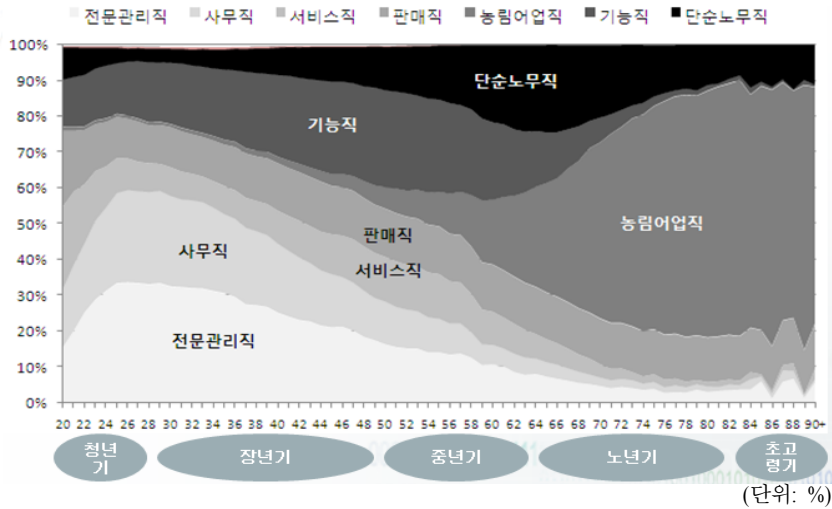
노동시장 진입시기의 지연으로, 청년기(20~29세)의 취업인구 비중은 하락한 반면, 은퇴 시기의 지연으로 중년기(50~64세) 및 노년기(65~84세)의 취업인구 비중은 상승하였다. 각 시점별 고용률 곡선을 살펴보면, 세 시점 간의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청년층의 경우 1990년,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반면, 중년기 및 노년기는 늦게 퇴장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즉 전체적으로 연령별 고용률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45]와 [그림 5-46]은 2000년~2010년 기간 중 생애주기별 직업분포의 변화이다. 2000년의 전체 취업인구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전문·관리직 22.2%, 기능직 21.6%, 사무직 13.6%, 농림어업직 12.8%, 판매직 12.5%, 서비스직 9.5%, 단순노무직 7.5% 순이다. 2010년에는 2000년에 비해 농림어업직이 감소하였는데, 각 직업별 비중은 전문·관리직 22.2%, 기능직 21.0%, 사무직 16.3%, 농림어업직 7.5%, 판매직 12.2%, 단순노무직 10.5%, 서비스직 10.0% 순으로 나타난다. 연령별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청년기(20~29세)는 학력수준의 상승으로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 진입비중이 높은 편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은 급격히 증가한다. 장년기(30~49세)에는 전문직과 사무직의 화이트칼라 부문은 감소하는 반면, 기능직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중년기(50~64세)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시기로 사무직이 급격히 감소하며, 60세 이후에는 농림어업직 영역이 크게 증가한다. 고령기(65~84세)는 임금부문에서 완전한 은퇴가 이뤄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취업자의 직업은 농림어업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료: 인구센서스 200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45] 생애주기별 직업분포: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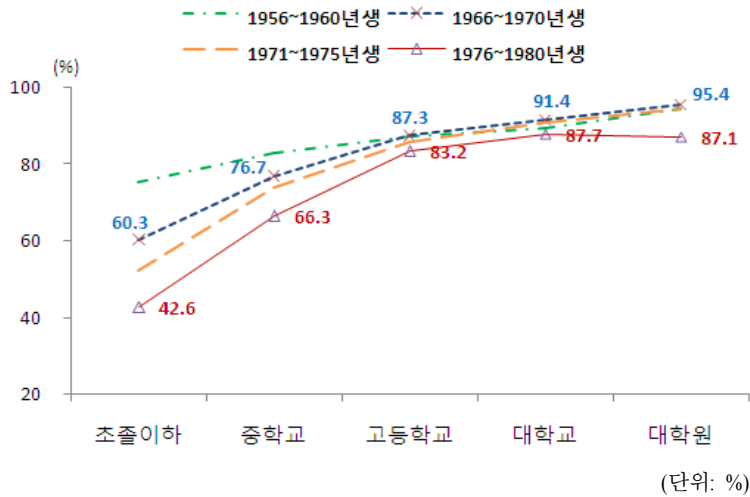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46] 생애주기별 직업분포: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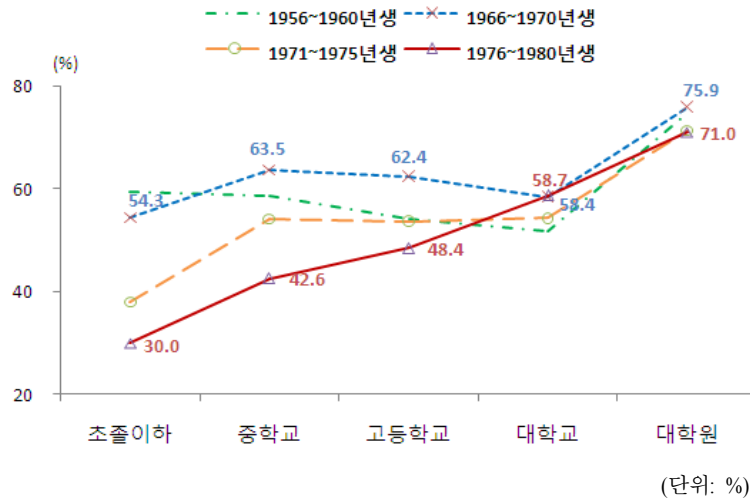
두 시점(2000년, 2010년) 간 생애주기별 직업분포를 비교해 보면, 청년기의 전문·관리직 비중은 2000년 27.9%에서 2010년 31.4%로 3.5%p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직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농림어업 취업자의 연령대가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고연령층으로 밀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 취업자 중 농림어업직은 감소한 반면 판매직 및 서비스직이 증가하였다. 한편 2000년에 비해 청·장년기 중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기능직의 비중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년층 학력수준의 상승 및 단순노무직의 외국 인력 대체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림 5-47]과 [그림 5-48]은 출생코호트별 교육수준에 따른 고용률을 성별로 제시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출생코호트와 관계없이 학력수준과 고용률이 비례관계인 반면, 여성은 고졸 이하의 고용률이 대졸보다 높았으나, 1970년대 출생코호트에 이르러 이러한 경향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출생코호트와 관계없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으며, 특히 대학원의 고용률은 95% 내외로 높은 수준이다. 출생코호트별로 교육수준에 따른 고용률을 살펴보면(남성), 1966~1970년 출생코호트의 경우 중졸은 76.7%, 고졸은 87.3%, 대졸은 91.4%, 대학원졸은 95.4%로 교육수준과 고용률의 뚜렷한 비례관계가 관찰된다. 관측된 출생코호트 중 가장 최근의 출생코호트인 1976~1980년 출생코호트의 교육수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중졸은 66.3%, 고졸은 83.2%, 대졸은 87.7%, 대학원졸은 87.1%로 대학원졸이 대졸보다 고용률이 약간 낮은 수준인데, 이는 1976~1980년생은 조사시점(2010년)에 아직 최종학력 졸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1. 각 학교 급의 재학, 휴학, 수료, 졸업을 포함
 2. '76~'80년생은 최종학력(대학원) 미완료 상태임
 자료: 인구센서스 1990, 2000,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47] 출생코호트별 교육수준에 따른 고용률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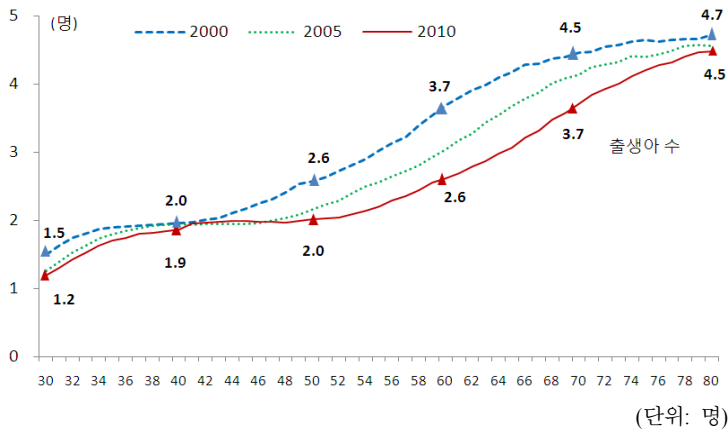
주: 각 학교 급의 재학, 휴학, 수료, 졸업을 포함
 자료: 인구센서스 1990, 2000,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48] 출생코호트별 교육수준에 따른 고용률 : 여성

여성은 1966~1970년 출생코호트까지 대졸여성의 고용률이 고졸 이하보다 낮았던 한편, 1970년 후반 출생코호트에 이르러 이러한 경향은 사라진다. 이는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상승 및 고학력 여성 노동시장이 두터워진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1960년대 및 197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 여성의 교육수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1966~1970년 출생코호트 여성은 중학교 63.5%, 고등학교 62.4%, 대학교 58.4%, 대학원 75.9%이며, 1976~1980년 출생코호트 여성은 중학교 42.6%, 고등학교 48.4%, 대학교 58.7%, 대학원 71.0%로 나타난다.

[그림 5-49]는 기혼여성의 생애주기별 출생아 수 곡선이다. 혼인지연 및 출산율 저하로 2000년~2010년 기간 중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2000년 2.5명에서 2005년 2.43명, 2010년 2.3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 기혼여성의 주요 연령별 출생아수는 30세 1.5명, 40세 2.0명, 50세 2.6명, 60세 3.7명 등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생아 수는 증가하며 30대의 평균 출생아 수는 1.5~2.0명 수준이다. 2005년 기혼여성의 출생아 수는 30세 1.3명, 40세 1.9명, 50세 2.2명, 60세 3.0명으로 2000년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다. 2010년 기혼여성의 출생아 수는 30세 1.2명, 40세 1.9명, 50세 2.0명, 60세 2.6명 등으로 2000년에 비해 출생아 수 곡선이 매우 하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족계획 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이의 영향을 받은 세대부터 출산수준은 급격히 감소한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에 이르러 평균 출생아 수는 2.0명 대 수준으로 감소하여 이후 출생 세대의 평균 출생아 수는 대체출산율인 2.1명에 미치지 못한다.



자료: 인구센서스 2000, 2005, 2010년, 개인 표본자료

[그림 5-49] 기혼 여성의 생애주기별 출생아 수 곡선 : 2000, 2005, 2010년

결혼 및 출산, 자녀 양육기 이후 자녀의 독립으로 은퇴와 빈 둥지기가 도래한다. ‘빈 둥지 가구(Empty Nest Household)’란 생애주기 중 노년기에 이르러 자녀들이 취업이나 결혼으로 분가하고, 노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시기에 이르러 가족규모는 축소되고, 노부부의 사망이 발생하면 가족유기체는 소멸되게 된다. 한편 자녀세대의



노부모 부양 의식 약화와 노부부 세대의 독립성의 증가 등으로 지난 20년간 빈 등지 가구(부부단독 세대)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자녀동거 가구(부부+미혼자녀)는 감소해 왔다.

<표 5-43>과 [그림 5-50]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 중 빈 등지 가구의 비중은 1990년 21.3%에서 2000년 30.7%, 2010년 32.1%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자녀동거 가구는 1990년 20.0%에서 2000년 17.6%, 2010년 14.6%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60세 이상 가구 중 한부모 가구(부+미혼자녀 또는 모+미혼자녀)의 시기별 비중은 1990년 6.8%, 2000년 5.9%, 2010년 6.0%로 1990~2000년 기간 중 감소하였으나, 2000대에 들어서는 6.0%대로 동일 수준을 유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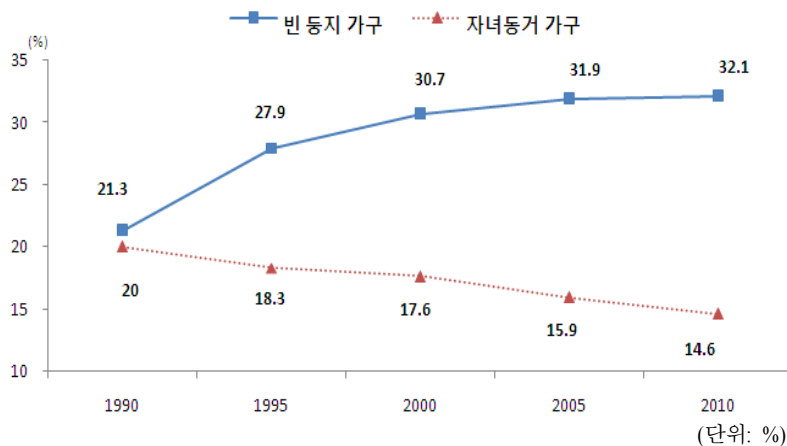
<표 5-43> 빈 등지 가구의 비중 변화: 1990-2010년

(단위: %)

	1990	1995	2000	2005	2010
빈 등지 가구	21.3	27.9	30.7	31.9	32.1
자녀동거 가구	20.0	18.3	17.6	15.9	14.6
한 부모 가구	6.8	6.4	5.9	6.0	6.0
기타	51.9	47.4	45.8	46.1	47.3
전체(60+가구)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빈 등지 가구'는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 중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로 정의함
 2. '자녀동거 가구'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한 부모 가구'는 부+미혼자녀 또는 모+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임

자료: 인구센서스 1990~2010년, 전수자료



자료: 인구센서스 1990~2010년, 전수자료

[그림 5-50] 빈 등지 가구의 비중 변화: 1990-2010년

2. 소결

5절에서는 개인의 주요 생애과정의 시계열 특성변화를 살펴보았다. 개인의 생애과정은 출생에서 성장(Growth), 성숙(Maturation), 노쇠(Senescence), 해체(Dissolution)에 이르기까지 출생, 보육, 교육성취, 노동시장 진입 및 근로생애, 결혼 및 출산, 빈 등지기 등 일련의 생애과정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추이는 총 인구이동의 양은 감소하는 한편,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출생비중 추이를 출생코호트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도권 출생 비중은 꾸준한 증가추세이나, 1991~1995년생 이후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6~2000년생은 수도권 출생 비중이 감소하는데, 이 시기는 외환위기 시기로 이 시기 수도권 지역의 출산율이 다른 시기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20년간 인구이동 유형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2000년 기간 중에는 이동자 비중은 증가한 반면 비이동자 비중이 감소하였다. 반면 최근 10년간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2010년 기간 중에는 이동자 비중이 감소하고 비이동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최근 10년 동안 그 이전시기보다 인구 이동성이 저하되었음을 시사한다.

교육성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대학진학률의 비약적 상승을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겠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률 현상이 뚜렷한데, 출생코호트별 대졸 이상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 출생코호트부터 여성의 대졸 이상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 진입과 근로생애는 주로 청년기(20~29세)와 중년기(50~64세) 두 집단의 특성변화로 요약될 수 있겠다. 청년기에는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진입 및 근로생애가 시작된다. 우리나라 취업 구조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중년기(50~64세) 취업인구의 두터운 구조이다. 지난 20년간 연령별 취업 구조 변화 양상을 요약하면, 노동시장 진입시기의 지연으로 취업 구조 중 청년기(20~29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년기(50~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다. 한편 연령별 고용률 패턴의 시계열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할 수 있다. 출생코호트별 교육수준별 고용률에서는 여성의 큰 변화가 관찰되는데, 1970년대 전반 출생코호트까지 고졸 이하가 대학 이상보다 고용률이 높았으나, 197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부터 교육수준과 고용률 간의 비례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상승 및 고학력 여성 노동시장이 두터워진 결과로 풀이된다.

결혼 및 출산에 있어서 큰 변화는 초혼연령의 상승 및 출생아 수의 감소이다.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기혼인구 중 청년기(20~29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하며,



출생코호트별 연령경과에 따른 미혼율은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성별 초혼연령의 차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감소하여 30세 기혼자의 성별 초혼연령의 차이는 1.1세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혼인지연 및 출산율 저하로 최근 10년간 평균 출생아 수는 크게 감소하였는데,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00년 2.5명에서 2005년 2.43명, 2010년 2.38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 수준은 과거 국가의 가족계획 정책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기혼여성의 생애주기별 출생아 수 곡선을 살펴보면, 출산시기에 가족계획 정책의 영향을 받은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 2010년 47~55세)부터 출생아 수는 2.0명대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및 출산, 자녀 양육기 이후에는 자녀의 독립으로 인하여 노부부만 남은 빈 동지기가 도래한다. 이 시기에 이르러 가족 규모는 축소되고, 노부부의 사망으로 가족 유기체는 소멸되게 된다. 지난 20년 간 60세 이상 가구 중 빈 동지 가구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21.3%에서 2010년 32.1%로 10.8%p 상승하였다. 반면 자녀동거 가구는 1990년 6.8%에서 2010년 6.0%로 0.8%p 감소하였다. 이는 자녀세대의 부모 부양의식이 감소 및 노부모세대의 독립성 증가의 결과로 풀이된다.

제6절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인구센서스 횡단면 및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생애과정별 주요 특성 및 시계열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애과정에 관한 연구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면, 생애과정 접근법을 활용한 연구는 서구 및 일본의 사회과학계에서 활발히 조망(眺望)받아 온 주제이다. 1970년대 이래로 서구에서는 라이프코스 또는 라이프코스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생애 관한 연구는 연령 분화, 연령 계층화, 사회이동 및 직업이동과 지위획득, 가족학, 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해외 통계청에서는 생애주기와 관련된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영국 통계청에서는 인구센서스 자료와 인구동태 자료 및 보건 관련 행정 자료를 연계한 종단자료를 구축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일본 통계청은 후생 노동성 주관으로 「21세기 출생아 종단조사」, 「인구동태 직·산업별 통계조사」 등을 수행하여 출생패턴 및 취업모의 직·산업 변화 양상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호주 통계청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생애과정의 주요 단계와 사건의 시기를 분석하고,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이론 검토를 통해 가족 및 개인의 생애과정을 단계별로 유형화하고,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수준은 첫째, 생애주기별 기초특성 분석(정태분석), 둘째, 생애과정의 시계열 특성변화(동태분석), 셋째, 생애과정 결정요인 분석(모델링을 통한 가설 검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과 개인의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 시계열 변화양상의 주요 함의를 도출하고, 생애과정의 주요 단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가족의 생애주기별 특성은 가구규모 및 세대구성, 주택특성 및 주택규모 면에서 살펴보았다. 가구주 연령별 가구규모(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20대 중반부터 평균 가구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42, 43세에 정점(3.37명)을 이루고 이후 완만하게 감소한다. 가족 생애주기별 평균 가구원 수는 가족 형성기는 1.5명~2.8명, 가족 확장기는 2.9명~3.4명, 가족 수축기는 2.4명~3.3명, 가족 소멸기는 2.4명 이하로 나타난다. 한편 가족 생애주기별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 거주 비중은 가족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역U자’ 형태를 보이는 반면,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가족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U자’ 형태를 보인다.

개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은 생애과정의 주요 단계별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생애주기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청소년기(13~19세)는 교육환경과, 청년기(20~29세)는 학업 및 일자리와 연관성이 나타난다. 출생 및 인구이동 영역의 주요 특성은 최근 출생코호트 일수록 수도권 출생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전체 인구 중 인구 이동자 비중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기와 청소년기(13~19세)는 비이동자의 비중이 높고, 장년기(30~49세) 및 중년기(50~64세)는 정착 이동자의 비중이 높다. 보육 영역에서의 주요 특성은 보육시설 이용률은 지난 10년간 증가했으며, 아동의 사교육 중 방과 후 학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보육 및 사교육의 단순한 이용률만 고려했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교육성취 영역의 주요 특성은 우리나라 인구의 전반적인 진학률 상승으로 재학인구 구조는 인구구조와 거의 유사한 형태이며, 출생코호트별 대졸 이상 비중 변화에서 특히 70년대 출생코호트 여성의 대졸 이상 비중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 진입과 근로생애 영역에서는 청년기와 중년기의 노동시장 상황변화 및 출생코호트별 특성을 주로 제시하였다. 노동시장 진입 시기의 지연으로 취업 구조에서 청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연령별 고용률 곡선 역시 우측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여성은 고졸 이하의 고용률이 대졸보다 높았으나, 1970년대 출생코호트에 이르러 이러한 경향을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 및 출산 영역의 주요 특성은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기혼인구 중 청년기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연령 미혼율은 증가해왔다. 197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 남성의 30~34세 도달 시 미혼율은 50.2%이며, 여성은 29.1% 수준이다. 한편 젊은 세대일수록 초혼연령은 상승하였고, 부부의 연령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성별 초혼연령의 차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감소하였으며, 혼인지연 효과로 평균 출생아 수 역시 감소하였다.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는 빈 등지기이다. 빈 등지기는 노년기에 이르러 자녀들이 취업이나 결혼으로 분가하고, 노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빈 등지 가구의 비중은 1990년 21.3%, 2000년 30.7%에서 2010년 32.1%로 증가하였으며, 자녀동거 가구에 비해 재정적인 독립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녀세대의 부모부양 의식이 감소하고, 노부부세대의 독립성이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2. 합의

본 연구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및 개인의 생애과정별 주요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구센서스 자료는 5년에 한번 조사되는 전수조사로, 전체 10%에 해당하는 표본에 한해서는 표본조사를 수행한다.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항목은 가구조사의 경우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등 주택 특성, 개인조사는 성, 연령, 혼인상태 등 기본항목 외에 인구이동, 출산력, 경제활동, 활동제약 등 다양한 항목을 조사한다. 인구센서스 표본조사는 표본의 규모가 매우 클뿐더러 다양한 분야의 많은 항목을 조사하여 분석가치가 매우 풍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매 5년마다 조사되어 분석대상자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기에도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이 같은 분석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생애과정의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별 주요 특성 및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단일 자료를 통해 출생에서 인구이동, 노동시장 진입 및 근로생애, 결혼 및 출산, 빈 등지기의 전 생애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자료를 집약화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것이다. 또한 해외 통계청의 사례처럼 분석자료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자료가 5년에 한번 수행되는 자료로 조사 시점 사이의 변동사항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동일 개인을 추적한 패널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생애과정 분석에 일부 한계가 따랐다. 또한 주요 생애과정의 시점에 관한 정보, 예컨대 노동시장 진입 시기, 출산 시기, 이혼 시기 등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좀 더 면밀한 분석이 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이같은 연구의 한계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안병철(1994), 「라이프 코스 연구에 관한 일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제16호 봄: pp.57-65
- 한경혜(1993), 「한국 남성의 성인기로의 전이유형 변화」, 사회와 역사 vol 39: pp.121-171
- 윤진(1988), 「인생의 단계와 그 연령기준(I):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그리고 취업 및 은퇴적령기에 대한 대학생과 노인의 지각비교」, 한국심리학회지 vol 7, No 2: pp.127-139
- 한경혜(1990), 「산업화와 결혼 연령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족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제24집(겨울호): pp.103~120
- 윤진·심재웅(1986), 「인생의 단계와 그 연령기준(II): 결혼, 출산시기에 대한 대학생과 노인의 지각비교」 한국심리학회지 vol 6, No 1: pp.1225-1356
- 한경혜(1991), 「세대관계 측면에서 본 Life Course 전이와 역연쇄전이의 시기: 결혼연령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1(1): pp.36-48
- 조은(1990), 「역사적 형태로서의 가족과 계급: 서구 가족사 연구쟁점의 재조명」 한국사회학회, vol 20: pp.11-41
- 한경혜(1993), 「사회적 시간과 한국남성의 결혼연령의 역사적 변화: 생애과정 관점과 구술생활사 방법의 연계」, 한국사회학 제27집(겨울호): pp.295~317
- 한경혜(2008),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본 은퇴경험의 남녀차이」, 한국사회학 제42집 3호: pp.86~118
- 우해봉(2012),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과정: 출생코호트별 및 교육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5권 제1호, pp.151~179
- 송현주·윤정혜(2012), 「중·고령자 빈 등우리 가계의 부채 보유여부와 가계 재무상태: 소득과 자산수준을 고려하여」, 한국가정경제학회지 50(4): pp.37-50

2. 국외문헌

- Angela M. O’Rand & Margaret L. Krecker(1990), "Concept of the Life Cycle: Their History, Meanings, and Uses in the Social Sci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6: 241-262
- Linda K. George(1993),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Life Transi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9: 353-373



- Gunhild O. Hagestag(1988), "Demographic Change and the Life Course: Some Emerging Trends in the Family Realm", *Family Relations* Vol 37. No 4: 405-410
- John Demos & Virginal Demos(1969), "Special Section: History of The Family, Adolescence i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1, No 4: 632-638
- Charles Hirschman & Ronald Rindfuss(1982), "The Sequence and Timing of Family Formation Event in Asi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7(October: 660-680)
- Vaughn R.A. Call & Jay D. Teachman(1996), "Life-Course Timing and Sequencing of Marriage and Military Service and Their Effects on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February: 219-226)
- Helga A. G. De Valk & Aart C. Liefbroer(2007), "Timing Preferences for Woman's Family-Life Transiti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mong Migrants and Dut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9(February: 190-206)
- Feinian Chen, Yang Yang & Guangya Liu(2010), "Social Change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Health over the Life Course in China: A 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5(1): 125-150
- Frank F. Furstenberg(2000), "The Sociology of Adolescence and Youth in the 1990s: A Critical Commenta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November: 896-206)
- Marini, Margaret M(1984), The Order of Event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Sociology of Education* Vol 57, No 2: 63-84
- Jana L. Raup and Jane E. Myers(1989), "The Empty Nest Syndrome: Myth or Realit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novembor/december, Vol 68: 180-183
- Julie S. Dare(2011), "Transition in Midlife Women's Lives: Contemporary Experienc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Vol 32: 111-133

<부 록>

〈부표 5-1〉 가구특성별 가구주 평균연령

가구특성		평균연령	sd	
가구규모	1인 가구	48.9	57.0	
	2인 가구	54.4	47.9	
	3인 가구	48.9	39.3	
	4인 이상	46.6	32.2	
세대구성	1세대	부부	58.2	43.8
		부부 + 미혼형제자매	41.8	40.4
		부부 + 기타 친인척	55.1	41.9
		가구주 + 미혼형제자매	30.3	28.2
		가구주 + 기타 친인척	43.4	54.1
		기타	48.3	57.1
	2세대	부부+미혼자녀	46.3	31.9
		부+미혼자녀	50.3	33.6
		모+미혼자녀	48.4	36.5
		부부+양친	60.5	37.4
		부부+한부모	56.8	31.8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39.9	26.4
		조부모+미혼손자녀	68.9	24.2
		한조부모+미혼손자녀	67.3	45.9
		기타	53.9	44.2
	3세대	부부+미혼자녀+양친	56.8	44.8
		부부+미혼자녀+부	49.6	42.6
		부부+미혼자녀+모	48.5	31.8
		기타	55.8	43.6
	4세대		57.3	37.2
	전체		49.5	46.0

주: 가구원수는 1~17명까지 조사됨. 4~17은 4인 이상으로 recode. 주택종류는 코드 6~10의 경우 주택이외의 거처로 처리함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부표 5-2> 가구주 연령집단별 주택 점유형태: 서울시

(단위: %)

	자가	전세	보증금있는 월세	보증금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관사, 자택 등)
15세 미만	0.0	0.0	0.0	0.0	0.0	0.0
15~19세	0.0	0.2	0.9	2.1	0.8	0.6
20~24세	0.2	1.7	7.7	10.6	4.5	2.2
25~29세	1.4	8.4	15.6	15.0	7.9	8.0
30~34세	4.2	14.1	11.9	9.9	9.0	13.4
35~39세	8.3	15.6	10.6	8.7	10.7	15.9
40~44세	10.4	14.1	10.7	10.0	14.4	13.2
45~49세	12.2	13.0	11.6	11.2	16.6	11.0
50~54세	14.7	10.8	10.7	10.9	13.8	10.5
55~59세	13.4	7.0	7.1	7.2	7.6	6.6
60~64세	12.1	4.8	4.7	5.3	5.0	5.3
65세 이상	23.0	10.3	8.6	9.2	9.7	1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부표 5-3> 가구주 연령집단별 주택 점유형태: 광역시

(단위: %)

	자가	전세	보증금있는 월세	보증금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관사, 자택 등)
15세 미만	0.0	0.0	0.0	0.0	0.0	0.0
15~19세	0.1	0.2	1.5	1.4	1.6	0.4
20~24세	0.3	1.7	7.7	5.2	7.0	2.1
25~29세	1.6	7.2	10.9	6.6	6.8	6.6
30~34세	5.1	13.9	10.5	6.5	5.5	11.6
35~39세	9.3	15.3	11.7	8.9	8.5	14.8
40~44세	12.6	14.7	12.5	12.0	13.0	14.1
45~49세	14.7	13.7	13.0	14.5	14.2	13.2
50~54세	15.3	10.9	11.2	14.1	12.7	11.1
55~59세	12.0	6.7	7.0	9.2	8.3	6.4
60~64세	10.0	4.4	4.6	6.9	6.0	4.8
65세 이상	19.1	11.3	9.4	14.5	16.3	1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부표 5-4〉 가구주 연령집단별 주택 점유형태: 도

(단위: %)

	자가	전세	보증금있는 월세	보증금없는 월세	사달세	무상(관사, 자택 등)
15세 미만	0.0	0.0	0.0	0.0	0.0	0.0
15~19세	0.0	0.2	1.3	2.4	3.8	0.6
20~24세	0.2	1.8	6.6	8.4	17.9	2.6
25~29세	1.3	8.7	11.3	7.1	8.3	9.0
30~34세	4.3	16.1	12.4	6.6	5.6	12.2
35~39세	8.5	17.7	13.8	9.2	7.7	13.8
40~44세	11.4	15.9	14.0	11.4	10.5	12.7
45~49세	13.1	12.9	13.1	13.8	11.7	12.0
50~54세	13.4	9.4	10.3	12.4	10.3	10.5
55~59세	10.7	5.2	5.9	8.6	6.9	6.8
60~64세	9.4	3.5	3.7	6.0	4.7	4.6
65세 이상	27.7	8.5	7.5	14.0	12.6	1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부표 5-5〉 연령집단별 주거용 연면적 규모: 아파트

(단위: %, m²/평)

		39m ² 이하 (12.12평 이하)	40~84m ² (12.12~ 25.76평)	85~131m ² (25.76~ 40평)	132~197m ² (40~ 60평)	198~329m ² (60~ 100평)	합계
미형성기	24세이하	30.2	53.5	14.5	1.7	0.0	100.0
형성기	25~29세	14.2	66.7	18.1	1.0	0.1	100.0
	30~34세	6.3	65.7	26.7	1.2	0.1	100.0
확장기	35~39세	4.4	57.2	36.2	2.2	0.1	100.0
	40~44세	4.0	49.7	42.0	4.1	0.1	100.0
수축기	45~49세	4.6	46.4	43.1	5.7	0.2	100.0
	50~54세	5.5	44.0	43.3	6.9	0.2	100.0
	55~59세	6.3	42.4	43.1	7.9	0.3	100.0
	60~64세	7.2	42.9	41.2	8.3	0.4	100.0
소멸기	65세이상	11.8	48.1	32.6	7.0	0.4	100.0
전체		6.4	50.4	38.0	5.0	0.2	100.0

주: 주거전용, 영업겸용 모두 포함됨/ 1평은 3.3m²임

자료: 인구센서스 2010년, 가구 표본자료

